

峴山文化

제23호



襄陽文化院

농협은 항상 농업인 곁에 있습니다.

농협은 농업인에게는 든든한 후원자로
 소비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유통으로
 우리 고장 농업의 미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 | |
|-----------------------|---|
| ■ 조합장실 : 671-0078 | ■ 카드·공제계 : 671-0075 |
| ■ 기획·총무계 : 671-0077 | ■ 농기계서비스센터 : 671-0076 |
| ■ 예금계·당직 : 671-0071 | ■ 미곡건조처리장 : 671-4424 |
| ■ 대부·채권관리 : 671-0072 | ■ 양양농협주유소 : 671-1747 |
| ■ 지도·구매·판매 : 671-0073 | : 672-9333 |
| ■ 하나로마트 : 671-0074 | ■ 팩 스 : 672-0076 |



양양농업협동조합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4리 208번지
 홈페이지 : www.yyangnh.com



양양에너지월드

“물로 만드는 빛 이야기”

한국수력원자력(주) 양양양수발전소는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 관 시 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 견학신청 방법 : www.komipo.co.kr (20인이상부터 신청가능)
- 휴관 및 휴무 : 매주 월요일(명절연휴, 회사사정에 의한 지정일)
- 문 의 전 화 : 070-4034-2344~5

 한국수력원자력 |주| 양양양수발전소

PHOTO CLUB



2012 신년인사회 시루떡 절단식



문화학교 개강식



물치만세운동 제92주년 기념행사



제33회 현산문화제



제1회 강원도동구리전통민요 경창대회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식



모범장병전통문화교육



경로효친문예작품시상식



문화원회원선진지견학



문화학교학생 유적지탐방



제21회 강원도향토문화연구발표회



어르신문화학교 수료식



표지설명 : 관동지도(1712년)

襄陽邑地圖,襄陽府는 현재의 속초시와 양양군 양양읍, 강현면, 서면, 손양면, 현북면, 현남면 일대에 해당한다. 당시의 읍치는 양양읍 성내리 일원에 있었다. 양양은 설악산을 끼고 동해에 연한 고을로 산과 해안의 경치가 수려하다. 고을의 진산인 설악산을 위쪽에 배치하여 그렸는데, 여기에서 뻗어 내린 산지의 모습이 독특하게 표현되어 있다. 읍치에는 객숙, 太平樓를 비롯한 관아 건물과 문루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원래 돌로 쌓여진 읍성이 있었는데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거의 무너지고 동,서,남의 세 문만 남아 있었다. 주변 지역에는 고을 소속의 각 면과 洞里들이 비교적 상세하게 표기되어 있다. 고을의 아래쪽에는 東海廟, 洛山寺, 祥雲館 등이 부각되어 그려져 있다. 동해묘는 동해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사묘인데, 동해신에 대한 제사는 고려 이후 祀典에 中祀로 등재되어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이곳은 서해의 풍천, 남해의 나주(지금의 영암)와 함께 우리나라 삼해의 해신에게 국태민안과 풍농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매년 음력 2월과 8월에 왕이 친히 향축을 내려 보내어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洛山寺와 義相臺, 觀音屈이 강조되어 표현되었다. 조선의 개국공신인 조준과 하륜이 잠시 은거했다 해서 이름 붙여진 河趙臺의 특색있는 모습도 보인다. 아름다운 경치를 지닌 靑草湖와 현재는 매립되어 농경지로 변해버린 雙湖 등의 호수도 그려져 있으며 설악산 五色嶺 아래에는 지금도 유명한 五色藥水가 표시되어 있다.

발간사 양양문화원장 양동창	-----	8
신년사 양양군수 정상철	-----	10
신년사 양양군의회위원장 오세만	-----	14
신년사 국회의원 송훈석	-----	16

특별기고

● 양양군정사 「약진도상의 수복지구」에 대하여 장정룡 (강릉원주대 국문과 교수)	-----	18
● 백범 선생님과 한시이야기 양동창 (양양문화원장)	-----	36

향토사료

● 오색령 지명에 관한 고찰 이종우,이규환	-----	40
● 양양지방의 유희요와 조화울동 이재풍	-----	62

여성심경 | 편집실

----- 85

설악산의 팔기팔경

● 팔기(八奇) 편집실	-----	86
● 팔경(八景) 편집실	-----	87



양양의 음식

- 떡류 | 편집실 ----- 89

문화학교운영

- 2011년도 문화학교 소개 및 학생 수상, 공연내역 | 편집실 ----- 93

건강상식

- 우리몸을 진짜 위하는 올바른 건강상식 | 편집실 ----- 96
- 올바른 음주방법 | 편집실 ----- 98
- 올바른 양치법-포인트 | 편집실 ----- 100
- 추운겨울철 건강관리요령 | 편집실 ----- 101

향토단상

- 신인상 작품/시 (3·8선) 및 당선소감 | 이철규(양양문화원이사) ----- 102

설화

- 안심암(安心庵)의 자심탑(慈心塔) | 편집실 ----- 104
- 관찰사 오도일(觀察使 吳道一)과 소금장수 | 편집실 ----- 105
- 구탄봉(九嘆峰) | 편집실 ----- 106

지명

- 지명유래 | 조산리(造山里)·황이리(黃耳里)·수여리(水餘里)·둔전리(屯田里) ----- 108

경로효친문예작품

- 심사평 ----- 110
- 입상현황 ----- 111
- 시부문 최우수상 ----- 112
 - 할머니 / 김예원(양양초등학교 4학년)
- 산문부문 최우수상
 - 진정한 경로효친 -마음알아주기 / 오종현(송포초등학교 6학년) ----- 113
 - 우리 마을 콜서비스 / 전해인(현남중학교 1학년) ----- 114
- 포스터부문 최우수상
 - 사랑이 담긴 전화한통 주름진 얼굴에 활력 충전 / 변다정(양양초등학교 6학년) ----- 115

- 2011 양양문화원 언론홍보현황 | 편집실 ----- 116





발간사



양 양 문 화 원 장
양 동 창

대망의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군민 여러분과 문화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지난해에 보살펴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는 그 어느 해보다 국내외적으로 역사적인 한해였습니다.

2011년 7월 7일 2018동계올림픽을 세번 도전 만에 평창에 유치하는데 성공하였으며, 1922년 일본의 식민지 지배 때 주문진항을 통해 불법으로 반출 해간 오대산 사고(史庫)본 왕실의궤 등 1,200책이 89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역사적인 해였으며, 현재 규장각에 보관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과 왕실의궤가 원래 있었던 자리인 오대산으로 돌아오도록 강원도민은 함께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화재란 있던 자리인 제자리에 있어야 그 가치가 빛나고, 문화란 올바른 고증을 통하여 입증되어야만 진정한 역사와 문화로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는 잘못된 향토사를 바로잡고 잊혀져가고 소멸해가는 향토사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색령 표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오색령은 1596년부터 선조실록에 기록되면서 사용하였는데 1914년 일제 강점기에 창지(創地) 개명을 통하여 지도상에 멋대로 땅이름을 표기 하면서 오색령을 한계령으로 바꿔놓은 일제의 지도 원판이 미군정을 거쳐 대한민국정부에 이관됨으로써 지금까지 잘못 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잘못 표기하고 부르고 있는 한계령을 오색령으로 바로잡기 위하여 “오색령 지명에 관한 고찰”이란 제목의 논문을 문화원부설 향

토사연구소에서 작성하여 한국문화원연합회 제26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에 출품하여 논문부문 최우수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함으로써 오색령을 올바르게 표기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동해신묘에 대한 올바른 고증입니다. 고려때부터 우리 양양에 세워진 “동해신묘”가 강릉에서 이전되었다는 등 왜곡되어 있어 이에 관한 자료를 총망라하여 올바르게 바로잡아 시정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해신묘는 강원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를 철저한 고증을 통하여 국가사적지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에 사는 우리의 과제이며 후손들에게 올바른 향토사를 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폐광 된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철산마을의 애환이 담긴 생활과 문화를 더 늦기 전에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민간주도 3년차인 제33회 현산문화제가 온 군민의 참여 속에 화합의 한마당 잔치로 승화하였으며, 특히 처음으로 개최한 “제1회 강원도 양양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가 각 시군에서 많은 출연진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더 성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학교에서는 매년 선생님과 수강생 여러분이 혼연 일체가 되어 열심히 가르치고 배움으로써 실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으며, 한시, 서예, 한국화 반에서는 각종 백일장이나 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함으로써 추천작가를 배출하였으며, 사물놀이, 민요, 통기타 반에서는 지역의 각종 축제에 참가하여 축제를 더욱 빛냈으며, 지역의 여러 행사에 초청 되어 공연활동을 하는 등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셨습니다. 특히 민요 반에서는 동구리 경창대회에서 12분이 출연하여 장려상을 받으심으로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문화학교 운영과 국내문화탐방 제34회 현산문화제 등을 더욱 발전적으로 운영하고 향토 사료를 꾸준히 발굴하고 정리하여 지역의 문화 창달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문화원이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면서 희망찬 임진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년사



양 양 군 수
정 상 철

존경하는 내·외 군민여러분! 그리고 산하공직자 여러분!

2012년 임진년(壬辰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먼저 여러분 모두 소원성취하시고, 각 가정마다 만복(萬福)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모쪼록 올 한해도 여러분 모두가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건승·번창하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역사적으로 임진년은 외부로부터의 힘이 나라 안의 질서와 안정에 많은 영향을 준 해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420년전 임진왜란이 그러하였고, 1950년 또다른 임진년의 인천상륙작전 또한, 한반도 질서의 재편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한미FTA와, 남북관계를 둘러싼 열강들의 이해, 또 가까이 있는 설악 4개시군 통합문제에 이르기까지 임진년이 지닌 이러한 역술적 의미는 금년에도 상당부분 설득력을 지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신년을 맞는 우리에게 이러한 역술적 의미보다 올 한해에 대한 이해와 예측이 더욱 중요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한 대비책 마련에 온 군민 모두가 합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새해벽두의 이러한 기운과 상황을 직시하며 2012년 한해의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2012년은 ‘머리로 군정(郡政)을, 가슴으로 군민(郡民)을’ 생각하는 “휴머니즘 양양”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특히 머리로 냉철하게 계산하되, 해법은 가슴으로부터 따뜻하게 제시하는 것이 올 한해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럼 올 한해 우리의 머리와 가슴이 어떤 상호작용을 이루어야 할지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머리면에서 과거의 낡은 사고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고를 통해 군정전

반에 스마트한 시책의 물결이 가득 넘치게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확정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성공은 도민 모두의 기쁨임에 틀림없지만, 동시에 강원도 각 시군이 이 올림픽 특수를 누리기 위해 본격적인 시책경쟁에 뛰어들었다는 출발신호이기도 합니다.

양양군 또한 이러한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선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해나갈 수 있는 혁신적인 사고로의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입니다.

그간 우리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해왔던 오색케이블카나 종합스포츠타운, 해양레저단지 조성, 골프장 건립, 아울러 양양시가지내 소도읍 육성사업 및 제 2차 그린농공단지 조성, 연어생태관 및 송이밸리자연휴양림과 같은 단기시책들은 금년부터 조금씩 그 창대한 구조물들을 우리앞에 드러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단기시책외에도 앞으로 우리군의 비전과 전략을 구체화하고 이를 단계적, 체계적, 종합적으로 실현가능케 하는 중장기계획에 조금씩 눈을 떠야 합니다.

금년부터 우리군의 미래성장 동력에 걸맞게 좀더 원대한 밑그림을 준비해나가겠습니다.

핵심은 2015년 고속화시대의 대비입니다.

우리군은 지금까지 인근 자치단체와의 틈새에서 도시세력 확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동서·동해고속도로의 건설은 그간 강릉을 거점으로 동해안으로 분기되었던 일구심 체계가 양양군이 가세하는 두개의 분기점으로 분리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동해·동서고속도로의 교차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영북지역 진입 관문으로서의 역할 강화에 군의 모든 관심과 노력을 집중시키겠습니다.

아울러 고속화시대에 밀려들 대규모 민자유치를 6개읍면 권역단위 계획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상담해나갈 수 있는 장기적 안목을 제시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동북아 국제물류·관광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을 양양국제공항이 위치한 손양준으로 집중시키고, 대규모 택지조성을 비롯한 친환경 주거단지는 택지개발에 이점을 안고 있는 강현준으로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행정과 상업, 교육은 기존의 순환형 중심도시인 양양준으로 흡수시키고, 농·산·해양체험이 두루 가능한 현북준과 현남준은 생태 및 해양레저의



이점을 더욱 특화시킬 예정입니다.

서면존은 녹색생산·산림체험 등을 통해 마을관광과 산림휴양의 강점을 더욱 부각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이 권역별 특화산업안에서 폐교 관동대의 다양한 활용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권역별로 특색있는 문화유적들을 모아 선사시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양양군만의 전략 스토리텔링도 엮어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도전들은 새로운 것이 많은 만큼 이에 대처하는 방식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올 한해 우리의 사고가 변화하여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지금까지가 임진년을 이끌어갈 행정의 머리역할이었다면, 이제부터 이러한 두뇌에서 창출된 군정이 어떻게 가슴으로 펼쳐져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슴의 핵심은 역시 위민(爲民)입니다.

머리의 혁신과 변화는 결국 “군민에게 이로운”이라는 단일한 명제를 추구해야 합니다.

머리의 능력이 탁월함에도 그 본바탕에 위민과 윤리가 기초되어 있지 않으면 그 탁월함이 군민에게 이롭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머리에서 착안된 군정이 가슴으로 검증받고 감동으로 전달될 수 있는 위민행정체제로 변화시켜나가겠습니다.

일사천리 민원 원스톱체제를 금년안에 정착시키고, 명예리장제를 통해 현장 행정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행정의 친절성을 더욱 고취시키는 한편,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임진년 우리가 이끌어갈 위민행정의 중심에 바로 복지가 놓여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년대비 금년 예산을 보더라도 복지예산이 증액되었으며, 군이 증감을 따지지 않더라도 복지분야는 올 한해 최대 화두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비롯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의 지원에 세심한 주의를 기

울이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화, 노인과 여성, 장애인의 사회적 진출을 적극적으로 보조해나가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교육과 의료, 문화 전반은 예산대비 효율의 극대화로 점진적인 개선을 모색하겠습니다.

임진년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모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과 모험을 헤쳐나가는데 있어 제일 필요로 한 가치는 비록 오래되기는 했지만, 근면과 정직, 책임과 의무, 관용과 포용, 바로 이러한 가치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정신들이 역사를 진보시켜온 말 없는 강력한 힘들입니다.

우리는 금년한해 이러한 정신으로 다시한번 복귀해야 합니다.

머리로 또 가슴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다독이며, 임진년 한해를 활기차게 열어가십시오!

군민 여러분, 그리고 산하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신년사



양양군의회 의장
오 세 만

존경하는 3만 군민 여러분!

임진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 모두 편안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며, 뜻하시는 일마다 성취의 기쁨을 누리는 한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는 연초부터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유례없는 구제역으로 농민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보았고, 연초 폭설과 여름 철 곳은 날씨는 날로 어려워가는 지역경기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장기 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마련한 의미 있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은 우리에게 또 다른 동기를 부여하고 있으며, 동해·동서 고속도로, 종합스포츠타운 사이클경기장 등 우리군의 성장 동력이 될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반으로 2012년은 우리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특별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만반의 준비를 다해놓고 이제 시범사업으로서의 선정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로 그동안 침체되었던 양양국제공항이 다시 비상할 수 있는 호기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수년 동안 주민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문제도 명지학원 측의 매각 결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기능전환을 검토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날과 같은 방식으로 대처를 한다면 앞으로의 미래도 낙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똑같은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양양

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의 가장 윗자리에는 반드시 우리 군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양양군민 여러분!

임진년 한 해도 군민들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정치적 이해를 떠나 견제와 비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양양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미래를 열어 나가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들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임진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군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년사



국 회 의 원
송 훈 석

존경하는 양양군민 여러분,

희망찬 임진년(壬辰年)새해가 밝았습니다. 복의 상징인 ‘용’의 해를 맞이하여 양양군민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새아침을 맞이하여 그동안 양양군의 전통문화 계승과 군민단합에 큰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는 「현산문화」 제23호 발간을 군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양양지역의 대표적인 문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현산문화’의 발간을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양양문화원 양동창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문화 발전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현산문화’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양양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전 세계인을 놀라게 하며 3번의 도전끝에 마침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해 강원도가 국내를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해 전 국민을 들뜨게 했습니다.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로 인해 지역 경제도 매우 어려워졌으며,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많은 축산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는 등 여러 가지로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도 양양군민들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내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용(龍)’을 신성하게 여겨 왔습니다.

비록 실존하는 동물은 아니지만 예로부터 ‘용’은 복을 상징해 왔고 기백이 넘치는 ‘좋은 기운’을 상징합니다. 특히, 2012년은 60년만에 돌아오는 ‘흑룡’의 해입니다.

아무쪼록 힘차게 승천하는 ‘용’의 기운이 전해져 더욱 활력이 넘치는 한해가 되고, 서민경제도 되살아나 지역주민 모두가 번창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잘 사는 양양군, 행복한 양양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양양군의 숙원사업인 ‘오색 로프웨이 사업’ 과 ‘양양 종합운동장’, ‘양양공항 활성화’ 그리고 ‘동서·동해 고속도로’ 등 지역의 주요현안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원도민의 의지를 모아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예산반영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현산문화」제23호 발간을 양양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임진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정사 83 『약진도상의 수복지구』에 대하여

장정룡(강릉원주대 교수)

1. 머리말

『약진도상의 수복지구』는 양양군 수복지구건설위원회와 양양군청에서 1953년 7월에 49쪽으로 발행하였다. 국한문 혼용체와 영문으로 수록하였으며 크기는 4×6배판이다. 표지는 컬러로 의상대 사진을 수록하였다. 『약진도상(躍進途上)의 수복지구(收復地區)』목차는 다음과 같다.

이형근 중장 약력, 여명, 증강일로의 국군 22·25사단창설 기념식에 이대통령각하 임석, 일면작전 일면건설(양양교의 웅자, 동교준공기념탑, 공병단의 가교광경, 충통로 개통기념과 제자를 쓰신 최홍희 장군, 수복지구 양양지도) 향토재건에 청년도 쫓기, 향토를 찾아온 주민들, 풍년이다. 어촌의 아침은 밝아온다, 바다는 우리의 생명, 교육의 재건상, 충후치안은 철벽의 포진, 신앙의 자유, 거리의 천사, 민간인의 구호활동, 수복지구의 이모저모, 군단장각하의 민정시찰, 명승과 고적,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 이형근장군 인상기(김팔봉), 편집여록 등이다.

이 내용가운데 1952년부터 1953년 휴전이 되기 전후 수복지구 군정(軍政)양양의 과거모습을 되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전쟁 직후 북한 지역의 피난민들이 월남하여 양양군 속초읍 지역에 몰려들었으며 38이북지역인 양양군은 휴전이 되기 전까지 북한 공산정권하에 6~7년의 압정에 시달렸으며, 한편으로 북한 괴뢰군과 전쟁을 계속하고 한편으로는 전쟁피해를 복구하면서 주둔국군에 의한 군정에 들어갔다. 따라서 당시는 이른바 ‘일면작전(一面作戰), 일면건설(一面建設)’의 혼란기였다.

1945년 8월 15일 일제강점기로부터 한반도는 해방이 되었으나 미소 양국이 38선을 중심으로 남쪽지역은

1) 장정룡 외, 『속초시거주 피난민정착사』속초문화원, 2000

미군정하에 들어갔으며, 1946년 1월 15일 남조선국방경비대가 창설되었고 당시 제2연대장은 이형근(1920.11.2~2002.1.13)이었다.²⁾ 그리고 1952년 1월 이형근 중장이 수복지구 양양군 군사령관으로 부임하였다. 1954년 10월 21일 법률 제350호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시행으로 38이북지역인 양양군이 수복되었다.³⁾ 당시에 양양군에는 수복지구건설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수복지구건설위원회는 1군단 군정의 지휘를 받았던 군정예하위원회로 볼 수 있다.

한반도의 군정은 당시 '세계적 관심사' 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미군정 기간을 '잃어버린 또 하나의 역사' 라고 평가하기도 한다.⁴⁾ 유엔군의 일환으로 미군정이 시행된 인구 7만여명의 수복지구 양양군은 1951년 7월 4일 한국군 제1군단이 군정을 주도하였다. 군정시기는 1951년 8월부터 1954년 11월까지 3년 4개월기간인데 38이북 지역에서 수복된 강원도 7개군(양양군, 고성군,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철원군, 춘성군)과 경기도 2개군(연천군, 북포천군) 가운데 강원도 양양군만 군정이 실시되어 민간인들도 거주할 수 있었다. 이처럼 양양군에 유엔군을 대표하는 미군이 군정을 실시하게 된 이유나 군정의 실제, 운영체계 및 내용 등이 분석된 바 있다.⁵⁾ 이 지역만 군정을 실시한 이유에 대하여, 이곳이 공산주의 행정연구와 공산주의 지역재건을 위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었음이 1952년 38이북지역인 양양과 속초지역을 방문했던 첩보원 오스본(J.Osborne)의 보고서에 나타난다.⁶⁾

-
- 2) 이형근(李亨根, 1920.11.1~2002.1.13) 대한민국 군인으로 초대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이응준의 사위다. 1920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 1942년 일본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였다. 종전 후 1945년 12월 5일 군사영어학교 1기생으로 입교신청을 하여 뛰어난 영어능력으로 UN으로부터 면제를 받았다. 1946년 1월 15일 1기로 임관하고 국방경비대 제2연대장을 맡았다. 유엔군사령부에서 각국의 참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한민국 국군의 상징인 군번1번이 되었으며 1946년 5월 1일 초대 조선경비사관학교 교장, 1946년 9월 국방경비대 총사령관 겸 육사교장, 1948년 2월 통위부 참모총장, 1949년 6월 제8사단장을 맡았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 제2사단장, 1950년 10월 제3군단장, 1951년 8월 교육총장, 1951년 9월 초대 휴전회담 대표, 1952년 1월 제1군단장으로 양양군 수복지구 총사령관을 맡았다. 종전후에는 1954년 2월~1956년 6월 초대 합참의장, 1956년 6월 27일~1957년 5월 17일 제9대 육군참모총장, 1959년 8월 대장으로 예편하였다. 이후 행정개혁조사위원장, 주영국대사, 한국자유총연맹고문, 국정자문위원을 역임하고 1등수교훈장, 태극무공훈장을 받았다. 일제만주국에서 끈끈한 군맥을 다져 해방후 군부를 장악했으며, 5.16때 정치정면에 나서서 등 한국 현대사에서 국군의 기초를 다진 인물로 평가되며, 군정당시 제1군사령관으로 양양에서 활약하였다.
- 3) 위의 자료에 의하면 당시의 양양군은 총 8개읍면으로 속초읍, 강현면, 양양면, 서면, 손양면, 현북면, 토성면, 죽왕면 등 1읍 7개면이었다. 속초읍과 고성군 토성면, 죽왕면이 양양군에 군정소속이 되었다.
- 4) 김귀옥, 「잃어버린 또 하나의 역사 -한국전쟁시기 강원도 양양군 미군정 통치와 반성」 『경제와 사회』 여름호, 한국산업사 회연구회, 2000, 30~53쪽
- 5) 김귀옥, 「속초와 군정(1951.8~1954.11)의 인연과 현대적 의미」 『속초문화』 제17호, 속초문화원, 2001, 50~54쪽
- 6) J.Osborne, "Field Report on Yangyang Gun, North Korea", Liaison Officer, USIS, 1951, pp.196~222, 김귀옥 위의 글 재인용 "나는 이 지역이 많은 정보실험과 교육실험이 수행될 수 있는 곳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며 동시에 그곳을 계속해서 공백지역으로 내버려두는 상태에 대해 의문시한다. 물론 그 곳은 장막이 몇 마일뒤 밀리게 될 러시아제국의 주변부에 속하는 유일한 장소이다. 따라서 공산주의 행정연구와 공산주의 지역의 재건을 위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민간인이 아닌 군인들에 의한 양양군정(郡政)의 군정(軍政)은 미제8군사령부 행정명령 제34호 부칙에 의거 실시하였고, 양양군 8개읍면이 수복을 개시하여 주민 총수 7만명, 수복지구 총면적(고성 간성지구는 제외) 582km²에 달한 지역을 관장하였다. 1951년 7월 5일 군내 전반에 걸쳐 읍면자치위원회 구성, 7월 10일에 군자치위원회 형성, 8월 10일 군관하지구 행정잠정규정 공포, 각리장과 읍면장 선거, 8월 10일에는 민정군수를 선출하고 초대민정관으로 박종승(朴鍾勝, 1951. 8. 10~1954. 11. 17, 3년 4개월 재임) 씨가 당선되었으며, 9월 19일에는 각읍면협의원을 선출하였다.

6.25사변 당시 군정(軍政)은 제1군단장 김백일(金白一), 백선엽, 김종오, 이형근 장군이 군정을 포시(布施)하였으며 1953년 10월 26일 수복된 7개읍면에서 읍면민정관 선거가 실시되었다. 당시 급속적인 수복지구 재건을 위해서 속초읍 김근식, 양양면 김익중, 강현면 이찬우, 토성면 박주하, 죽양면 김창길, 서면 손병환, 손양면 고연재, 현북면 오국현이 임명되었다.⁷⁾ 군정당시는 이 지역이 대한민국의 관할이 아니었고, 그 통치권은 유엔군에 있었으므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나서 이승만 정권은 양양과 속초를 비롯한 수복지역에 대한 행정권 이양협상을 하였다. 당시 군정의 최종 결정권, 통치권, 행정권은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있었으며, 유엔군사령부 내 민사행정보조팀(Civil Assistant Team)이 주도하였다. 이들은 현지군정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되, 한국군 군정팀에게 집행권을 부여하여 형식적으로 고문역을 담당하고 군정의 전면에는 1군단 군정사령부가 실무에 나섰다.

군정사령부는 민사처(1952년 당시 제1군단 민사처장은 오천덕이었다)를 통해서 민정을 실시하고 구체적으로 행정을 집행한 것은 현지민사팀, 양양군민정관(군수), 읍민정관(읍장) 등이었다. 읍민정관 밑에는 치안대, 국민회, 대한청년단, 대한부인회 등의 실무기구가 있었다. 이들로 구성된 현지민사팀은 군정사령부의 승인하에 공산주의자 색출에 나서기도 하였다. 수복 초기 속초지부 대한청년단(한청)은 500명 이상의 단원이 소속되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유엔군인 미군에 의해서 군정이 실시된 양양지역은 민사행정보조팀(CAT)의 지휘를 받는 한국군 군정팀이 있었고 그 예하에 현지민사팀이 존재하여 군정지역을 통할하였다.

한국군 1군단 민사처에서는 부정기적으로 강릉에 주둔한 미8군 동해사령부에서 구호물자를 직접 인수하여, 각 민정관과 주무부처 직원, 구장, 피난민 반장 등을 소집하여 물자를 나누어 지급하면 그들이 현지에 가서 일정량을 배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속초읍의 경우 '요구호대상자'는 1952년 6월 이후 1953년 5월말까지 3,661세대 16,213명 가운데 2,204세대 7,364명이 모포, 의류, 식료품, 피혁, 일용품, 소금, 천막, 농업용 도구를 지급받았고, 구호양곡으로 외미(外米=안남미)와 소맥, 대맥, 고량미, 수수 등을 배급받고, 그 외에도 어선용 전나무, 주택용 자재, 의약품, 학용품, 책상 등을 배급하기도 했다. 수복기념품을 조성하고 학교와 문화재를 복구하고 어선을 수리하고, 도로를 개수하였으며, 고아원과 교회를 설립하는 등 수복지구 주민들을 위해 노력하였고, 지역주민들도 한청을 조직하여 군정에 협조하면서 불순분자들을 색출하는데 도왔고 지역농악대

7) 「동아일보」, 1953년 10월 30일자, '수복된 이북 7개읍면 민정관 선출' "군정관하의 수복지구에서는 지난 10월 26일 읍면민정관 선거를 거행하였다. 동선거는 수복지구의 급속적인 재건에 수반하여 이의 유능한 인재를 선출한 목적으로 관할 해당 7개읍면에서 구민의 백% 투표로써 다음과 같이 민정관을 선출하였다 한다..."

가 군단에 위문공연을 하는 등 군정과 주민사이에 다양한 소통이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군정이 주민생활안정, 산업진흥, 교육제건을 위해 수복지구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유엔군 소속 미8군이 한국군 제1군단에게 지역행정권을 넘겨준 때는 1954년 6월이며, 1군단이 다시 민정이양을 한 때가 1954년 11월 17일이었다. 따라서 대한민국 행정권이 38이북 수복지역은 미치지 못했으며 실제로 군정의 권한은 막강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정부는 군정지역이나 군정 자체에 대해서 영향력을 거의 행사하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드디어 1953년 10월 30일 양양군 7개읍면의 민주선거가 치뤄졌다. 이에 대한 반론도 있는데 과거 공산주의 치하에서 살던 주민들에게 민주주의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민주선거가 주민의 100%가 투표했다는 것에 대해서 실시자체에 의문을 품기도 한다. 여하튼 8개읍면의 민정관이 선출되었으며, 1954년 11월 17일 군정에서 민정(民政)으로 이양되고 김주혁(金周赫, 1954. 11. 17~1956. 9. 9)⁹⁾이 군수로 당선되기에 이르렀다.

본고에서 소개하는 이 자료는 1952년 1월 제1군단장 이형근 장군이 부임하여 1953년 7월까지 1년 6개월간 있었던 양양 군정 당시를 소개한 것으로서 제1군단 창설 3주년 기념으로 출간된 것이다. 당시 양양군 속초지역은 제1군단장인 이형근 군정사령관에 의해서 재건이 주도되었으므로 소위 '이형근공화국'이라는 말도 나왔고 "군정시절 이형근 장군과 그의 미녀부인이야기, 그가 부월리, 조양동 사람들을 내쫓았다는 이야기, 몰래 나온 미군물자가 중앙동이며, 영랑동 시장에 가득 찼다."⁸⁾는 이야기 등등이 지금도 회고담으로 나올 정도로 당시 상황은 특별하였다. 그동안 수복지구인 양양군정과 지역주민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미흡하였다. 1953년 7월 5일 발간된 『약진도상의 수복지구』책자는 군정당시의 행적이나 양양군 지역의 복구상황을 이해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원문 한자는 한글로 바꾸고 맞춤법은 표준어로 고쳤다. 글씨가 작고 국한문을 혼용한 인쇄가 부정확하여 판독에 어려운 점이 많아서 내용상 오류가 없지 않을 것이다.



8) 김귀옥, 앞의 글 50쪽

2. 1950년대 수복지구 양양군정의 제 양상

1) 여명(黎明)

[이형근(李亨根, 1920. 11. 2~2002. 1. 13) 중장 약력]

1929년 충남공주출생, 일본육군사관학교급 동육군야전포병학교 졸업, 일본군 육군대위로 제2차대전시 중국과 불인(佛印)국경에 출전하였다가 해방후 귀국, 1946년 1월 국방경비대 최초로 대위임관, 1946년 5월 국방경비대 사관학교장, 1946년 10월 국방경비대총사령관, 1948년 2월 통비부참모총장, 1948년 8월~1949년 5월 도미(渡美)군사시찰, 1949년 6월 제8사단장, 1950년 10월 제3군단장, 1951년 8월 교육총감, 1951년 9월 정전(停戰)대표, 1952년 1월 제1군단장으로서 현재에 직함.

찬(讚) 이형근 장군

맑은 호수처럼 이지(理智)에 빛나는 눈동자에는
항상 미소하는 웃음이 떠올라
언제나 춘풍이 태탕(駘蕩)하고...

삼군(三軍)을 질타(叱咤)하는 그 위엄은
서릿발처럼 무겁고 날카로워
전군(全軍)의 신망을 한 몸에 지니니

아! 님은 용장(勇將)이외다
지장(智將), 덕장(德將)이외다.(1953. 7. 5, 鳳儀學人 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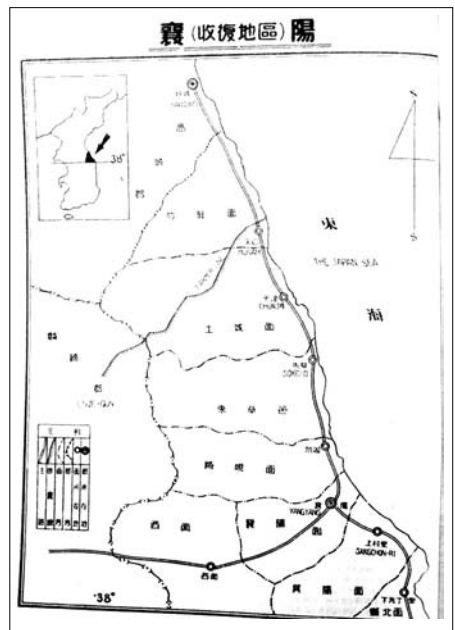
1950년 6월 25일, 북한괴뢰의 남침이 있자 임전태세를 갖추기 위하여 구성된 제1군단은 1953년 7월 5일로서 만 3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전투발발이래 우리 군단은 처음 작전상 후퇴작전과 북진, 또다시 북진에서 현 전선방어전까지의 계단을 삼단계로 나눌 수 있다. 과거의 쌓아놓은 찬연한 업적은 우리군단의 불멸의 금자탑이거니와 처참가열(悽慘苛烈)한 과거 1년 반 동안 육군중장 이형근(李亨根) 장군께서 군단장으로 취임하신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쌓아놓은 군단역사는 한국동란과 함께 영원히 청사(靑史)에 길이 수놓아질 것이다.

일면 작전, 일면 건설의 군정(軍政)을 실시하고 있는 현재 실정은 다른 전투면 만을 맡은 지구와는 전혀 그 실정이 다른 것이다. 다른 지구는 정면의 적과 대치하고서 전투만하면 되는 터이거니와 우리 군단은 주저항선에 있는 적과 대치하여 치열한 전투를 감행하는 일면, 수복지구 7만여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치안확보는 물론 산업, 경제, 교육, 문화, 의료 각각 부면에 있어 군정을 실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군단에 부하(負荷)된 사명은 중차대한 것이었다. 이곳 지구가 종전 북한괴뢰의 치하에 있던 곳 이요 6~7년간이나 공산확정아래 신음하던 동포들이기 때문에 군정을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세계의 이목을 이끄는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격언과 같이 군단장 각하의 애민구휼(愛民救恤)하는 덕정과 군단장 각하를 자부(慈父)같이 존경하는 주민들의 마음은 이심전심(以心傳心)하나로 귀일되기 때문에 수복지구의 군정은 날로 주민의 생활안정과 향상을 달성하고 있다. 그간 이 장군 취임이래로 영일(寧日)없이 아방(我方)진지에 침투를 꾀하는 괴뢰군은 전후 수10회에 걸쳐서 공격을 가해왔으나 우리 국군은 단호 이를 포착섬멸(捕捉殲滅)하였다. 1952년 7월 10일, 8월 22일, 11월 9일에 벌어졌던 351고지 공방전은 적으로 하여금 막대한 출혈을 재래(齎來)케 하였으며 다시 더 침투를 단념하게까지 하였다. 최근 생포된 적 포로의 진술에 의하면 적은 김일성의 명령에 의하여 기필코 351고지탈환을 명세하였으나 마침내 뜻을 이루지못하였다는 증언까지 한 바 있는 것으로 보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전기 3차에 걸친 소전투만으로도 적에게 준 타격은 심대한 것으로서 아방이 거둔 전과로는 사살 912명, 부상 575명, 포로 17명, 소통 137정, 다발총 20정, 추격포, 전화기, 쌍안경 기타 무기 탄약 다수를 노획하였으며, 적의 토치가 수백개소를 폭파하는 전과를 올리고 있다.

적 포로의 진술에 의하면 적은 고지 앞 남강(南江)을 일제 건너오지 말라는 엄명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남강을 한걸음이라도 넘어만 오면은 섬멸을 당하기 때문에 내심 전전공공하고 있는 까닭이라고 한다. 이를 계기로 하여 이 군단장 각하는 작전방침을 신경선전전에 중점을 두시고서 대이북 괴뢰군 귀순공작과 선전공작을 강력히 전개하여 다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중이다. 객년중(客年中)에도 2개 사단의 새로운 창설을 보았고, 지난 5월 15일에도 또다시 2개 사단의 증설을 보아 전력의 증강과 강병육성에 새로운 포진을 하신 상승(常勝)장군 이중장 각하는 앞날의 새로운 구상을 마음에 그리시면서 휘하장병에게 강철같은 투지를 양성하고 계시다. 흘러가는 역사의 수레바퀴가 이 장군의 혁혁한 공훈과 우리 군단의 찬연한 업적을 길이 청사에 영광스러운 빛을 남기리라. 여명의 날은 밝아온다. 우리군단이 가진 바 특색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지점이 155리 전(全) 전선에서 가장 이북에 위치하고 있어 적의 군사시설의 심장부인 원산을 육박하고 있는 점, 또 하나는 적이 휴전문제가 대두하자 38선까지 탈환을 꾀하고 수십 차에 걸쳐서 치열한 공세를 취하고 있으나 그 시(時)마다 적은 심대한 출혈만 내고서 일보도 아군 진지를 침범하지 못하는 점이 수복지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군단의 2대 특색인 것이다. 이 특색을 살리어 수십만 장병은 군단장 이 장군을 모시고 우직 북진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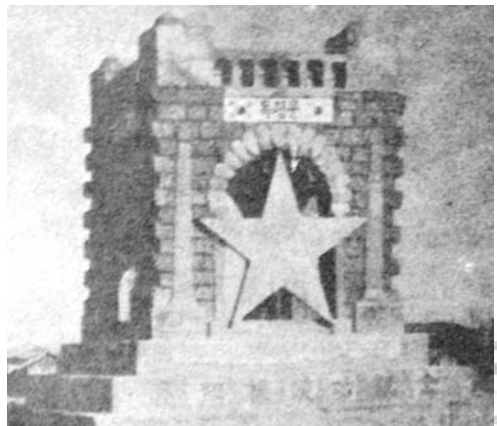
2) 증강일로의 국군 -22, 25사단창설기념식에 이대통령각하 임석

역사는 흐른다. 흘러가는 역사가운데 새로운 창조가 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건군사(建軍史)이다. 1953년 6월 15일, 세계의 이목을 총집중화 가운데 우리군단 제22사단과 제25사단 창설기념식이 ○○지구에서 거행되었다. 자라는 이 나라 국군들의 씩씩한 모습을 친히 사열하시기 위하여 이날 이 대통령각하께서는 미제8군단사령관 테일장군과 신국방, 진내무, 변외무장관, 원헌병총사령관 등 정부요인들을 대동하시고 우리 군단을 내방하시었다. 이번 내임하신 것이 우리 군단에는 세 번째 되는 일이다. 먼저 창설기념식에 임하시어 사단에 사단기를 수여하시고 아래와 같은 간곡한 훈사가 계시었다. “우리나라 국군이 창설된 지 불과 얼마 안되는 동안 우리의 성가는 높이 평가되고 있다. 우방 여러 나라에서 군사와 물자를 많이 보내줌으로 우리의 적을 쳐물리치고 남북통일을 완수할 날도 멀지 않다. 특히 우리들은 미국을 위시하여 모든 우방국가에 감사하는 바이며 증강되어 가고 있는 우리장병들에게 영광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심장한 훈사가 계시었다. 기념식이 끝난 다음 이 대통령께서는 관동팔경의 하나인 청간정을 시찰하시고 이어 군단으로 돌아오시어 잠시 소계 후(少憩後) 군단장 육군중장 이형근 각하 태극성훈장 육군소장 김중갑 각하 태극무성훈장 육군준장 임부택 각하 화랑금성훈장 이하 장병다수, 전기행사가 종료된 다음 이 대통령각하 내외분은 통일없는 휴전결사반대 양양군민총궐기대회 임석하시어 3만여 군중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친히 미제8군사령관 테일장군을 소개하시고 간곡한 훈사를 하신 다음 회정에 오르셨다.



3) 일면 작전, 일면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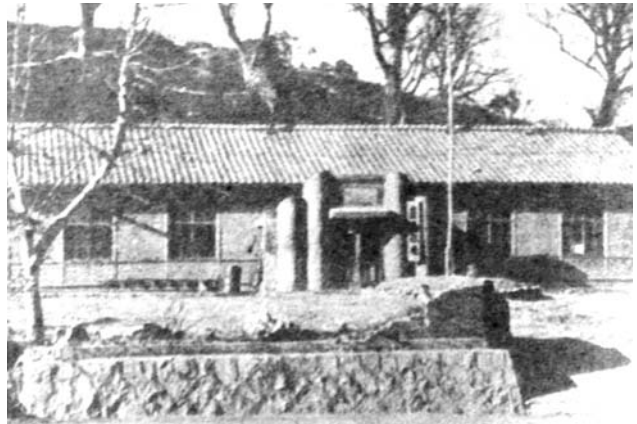
파괴는 건설을 낳는다고 한다. 처참한 전화(戰禍)는 국토전반에 걸쳐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악착스러운 적마(赤魔)를 몰아내고 수복된 지구에서는 건설의 망치소리로 드높게 새로운 부흥과 건설이 이루어진다. 군단에서는 일면전격, 일면건설의 표어아래 도로교량의 복구공사를 우리 공병대원들의 손만으로서 속속 완성하고 있다. 양양읍내를 관통하는 남대천에는 우리 공병대 1101부대의 혈한(血汗)으로 이루어진 양양교가 가교되었다. 전장



0000미터(m)에 달하는 이 교량이야말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군용교량으로서 최초의 가설이요 최대 최장의 교량인 것이다. 자랑만한 우리 공병대의 특출한 기술은 가교공사에 있어서도 개가를 올리고 있다. 그리고 동 부대(110)에서는 ○○으로부터 ○○○에 이르는 구간도로 32km를 새로 개간하였는데 동 도로는 일찍이 일정 때 3년 9개월이나 걸리면서도 개통을 보지 못하던 도로를 우리 공병대에서는 불과 6개월 동안에 개통한 것이다. 이것은 오로지 애국지성에서 우러나온 결정이기 때문에 도로명칭도 충통로(忠通路)라고 명명한 것이다.

4) 향토건설에 청년도 걸기

4284(1951)년 6월 2일 38선을 두 번째 돌파한 우리 군단은 노도(怒濤)처럼 일로북진을 계속 하였다. 공산학적 하에서 죽음의 행진과 같은 신산(辛酸)한 생활을 거듭해오던 이북주민들은 지옥에서 구세주를 만나는 것처럼 반기었다. 일차 후퇴 때에 이남으로 피난갔던 수만주민은 군단이 진격하자 때를 놓치지 않고 정든 고향을 찾아왔다. 수복지구 양양일원은 7월 4일 미제8군사령부 행정명령 제34호 부칙에 의거하여 군정을



실시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8개읍면이 수복을 개시하여 현재 주민 총수 7만을 산(算)하고 수복지구 총면적(고성 간성지구는 제외) 평방 582km에 달하고 있다. 7월 5일 군내 전반에 걸쳐 읍면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 10일에 군자치위원회를 형성하였다. 8월 10일에는 군관하지구 행정잠정규정을 공포하고 각리장, 읍면장을 선거한 다음 10일에는 군민정군수를 선출(초대민정관 박종승씨)하고 9월 19일에는 각읍면협의원을 선출하였다. 군단에서는 민주주의 하에서 민의를 창달하기 위하여 매 월말에 군민과 더불어 격의없는 의견 개진과 건의를 받아들이는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이때에는 군단장 이 장군만 임석하고 진지한 민중의 여론을 청취하는 것이다. 잠정적인 행정조치로서 본의 아닌 군정을 실시하고 있기는 하나 온정의 인(人) 이 군단장 각하는 군정의 목표를 ①주민생활 안정과 향상 ②교육의 재건 ③산업의 진흥으로 결정하고 주민과 더불어 호흡을 같이하고자 하여 자녀교육도 이곳 학교에 입학을 시키어 수복지구 자녀들과의 어깨를 견주고 공부하고 있다. 일반 주민들에게 만곡의 신뢰감과 안심감을 주고 있는 것이다. 표고 1.705m나 되는 설악연봉 아래서 잃었던 고토(故土)를 찾고 귀농의 환희를 감출 수 없어 장군의 성덕을 송가(頌歌)하는 소리는 지구 일대에 넘치고 있다. 한가한 물레방아가 옛 주인을 기다리는가 하면 폐허에서 건설의 망치소리 요란한 가운데 주택과 점포가 하나씩 돌씩 늘어가고 있다. 여기 있어서도 군단공병대에서는 설계측량 지균(地均)공사 등 진정한 주민의 벗으로서 모든 편의를 돌보아주는 것은 물론이다. 가옥은 지어야 하겠는데 목재가 없다. 군단에서는 괴뢰정권 때에 벌채하여 놓았던 원목을 주민들에게 분담하여 제재소를 설치하고 목재를 생산케 하

였다. 어촌에서는 부서진 뱃조가리를 다시 모아 수리도 하고 새로 건조도 하여 어로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복지구는 하루바빠 대한민국의 기반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면서 밝아가는 내일의 희망을 벽찬건설의 행진보(行進譜)를 아뢰고 있다.

5) 향토를 찾아온 주민들

4284년(1951) 7월 4일 미8군사령부의 합의하에 귀농선(歸農線)이 설정되자, 이곳 원주민들은 풍찬노숙(風餐露宿) 거리에서 해매이다가 고기가 물을 찾은 것처럼 기뻐하며 속속 고향으로 돌아왔다. 비록 폐허가 되었을망정 조상의 분묘가 있지를 아니한가! 남편을! 그리고 아들을, 동생을, 공산도배(共產徒輩)에게 빼앗겼을망정 정든 고토이니 오로지 남은 것은 증산으로 멸공대도(滅共大道)를 매진할 따름. 농지개혁이니 무엇이니 하고 토지를 빼앗겼던 농민들이 잃었던 제 땅을 도로 찾으니 농부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행복감만이 넘쳐흐르고 있다. 주민들에게 있어서 군단장 이장군은 자부와 같은 존경과 신뢰감을 받고 있다. 농토는 모자라지는 않은가? 비료는 얼마나 필요한가? 병이나 나지 않았는가? 전투지휘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서도 장군은 수시로 민생문제를 염려하고 계신다. 녹비(綠肥)를 채취하여 농토를 비옥케하는 한편 군단민사부(軍團民事部)의 알선으로서 금비(金肥)도 구입하여 시비를 하고 풍년가도 드높게 모를 내는 여인들의 얼굴에도 희망의 약동하는 모습이 빛나고 있다.

6) 풍년이다

우리나라는 고래(古來)로 농업국이다. 전주민의 7할 이상이 농민인 만큼 이 나라 백성들은 흙과 더불어 낡고 흙과 더불어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타고난 운명이다. 전방에는 백전백승의 충용무비(忠勇無比)한 우리 장병들이 호군(胡軍)의 침략을 막아내고 있으니 벼개를 높이 베고 잠을 잘 수 있으며, 마음껏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전선 전방불과 4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농사를 짓는 나라가 있을 것이냐? 피땀 흘려 지어논 농사가 올해도 시화연풍(時和年豐)으로 풍작이 되어 추수의 기쁨은 말할 수 없다. 손이 모자라 안타까워하는 농부들은 불패에 쉬고 있는 군단장병들이 내 집일인양 찾아가서 “아저씨! 제가 좀 도와 드릴까요?”하고 농사뒤틀바라지를 도와주는 것도 이곳 지구가 아니면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이다.

7) 어촌의 아침은 밝아온다

해안선 길이를 많이 가지고 있기로 국내 제3위를 차지한 강원도, 그 가운데도 38이북으로 편입되었던, 통천, 고성, 양양은 어획(漁獲)으로서 명성을 날렸던 곳이다. 보고(寶庫)인 바다, 넘실거리는 아침 동해는 대한사람의 마음의 상징인양 한없이 맑고 깨끗하다. 밝아오는 어촌의 아침은 수복지구 어촌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과 동시에 바다와 싸우는 전쟁을 의미하기도 한다. 원양출어는 선박, 어로자

재 관계로서 그 실현이 어렵거니와 근해출어는 한정된 선박과 있는 기재로서 충용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허물어져 가는 옛집을 찾아와서 거처를 수리하고 풍마우(風磨雨)선에 마음대로 허물어진 뱃조각을 모아 황파만리(荒波萬里) 거친 바다와 싸워나가는 이 땅 어민들의 재건상은 괄목할 바가 있다. 특히 여인들이 미역(和布)을 따다가 건조하여 남한 일대에 보내는 양은 실로 방대한 양에 달하고 있다.

8) 바다는 우리의 생명

어민은 바다가 생명이다. 농민이 흙에서 나서 흙에서 살다가 흙에서 죽는다고 하면 어민은 바다에서 나서 바다에서 살다가 바다에서 죽는 것이 어민들의 타고난 운명이라. 속초, 아야진, 문암, 천진 등 대소항구를 기점으로 하고 수복지구 수천 어민들이 바다와 싸우는 용자(勇者)로서 무진장의 보고를 찾아내는 것은 멸공을 위한 증산(增産)부대의 침단을 걷는 것일 것이다. 여명의 이른아침, 효암(曉闇)을 뚫고 용약(勇躍) 바다로 출어하는 것은 둔대에서 새벽출격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배선창 한창 밀은 천길 만길 깊은 심해이다. 질풍노도에 봉착한 일은 없는가? 소련영해로부터 내려 보낸 수초와 부락친 일은 없던가? 죽고사는 것을 초개(草芥)같이 여기고 바다로 출어하는 수복지구 어민들의 씩씩한 모습이야말로 실로 탐스러운 바가 있다. 저녁노을이 붉고 누렇게 물든 무렵 산 같이 쌓인 해초구멍 생어등을 만재하고 돌아오는 어민들의 얼굴에는 어디인가도 무르게 환희에 빛나고 있다. 은린이 찬연한 생어가 꼬리를 치면서 선창에서 뛰는 광경은 이곳 어민들만이 맛볼 수 있는 진지한 관경들이다. 원포귀범(遠浦歸帆)에 흰 돛, 누런 돛을 달고 풍어를 자랑하는 대어의 깃발이 휘날리는 것을 기다리는 바닷가 여인들의 구성진 아리랑도 평화스런 수복지구에서만 맛볼 수 있는 풍경이다. 미역따는 여인들과 명태잡는 어부들의 이중주로 아뢰이는 배따라기는 오늘하루도 바다에서 날아가고 바다에서 날이 저문다.

9) 교육의 재건상

교육은 그 나라 그 사회문화의 척도이다. 배움의 전당이 회진(灰盡)하였다고해서 과공(課工)을 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수복지구에 있어서도 수복지민들이 제일먼저 부르짖은 것은 교육문제이었다. “가르쳐야 한다.”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하고 주민들은 군단장 각하의 절대적인 성원을 얻어 학교를 짓기 시작하였다. 이곳에도 학교, 저곳에도 학교, 닥치는 곳마다 글읽는소리 낭랑하게 들려온다. 4286년(1953) 5월 1일 현재 고등학교 2개교, 중등학교 3개소, 국민학교 14개소 계 19개학교에 남녀생도 아동수가 12,720명에 달하며 교직원 이 233명이라고 한다. 대략 현재 통계로 보면 아래와 같다.

속초고등학교:남141명 여17명 계158명, 양양고등학교:남100명 여9명 계109명, 속초중학교:남268명 여72명 계340명, 양양중학교:남254명 여78명 계332명, 동광중학교:남237명 여46명 계283명, 국민학

교(14개소):남 6,450명 여5,048명 계11,498명, 합계 남7,450명 여5,450명 계12,720명, 직원 남180명
여53명 계233명

동심 그대로 미래를 걸머지고 나갈 무궁화 꽃봉우리, 피난살이 고생에 시달리면서도 인공괴뢰들의 무도한 강제교육도 이제는 모두 악몽처럼 깨어난 어린 학생들이 날마다 다시 또 새는 날마다 교교이 들려오는 합성을 들어가면서 마음조차 가볍게 과공을 연마하고 있다. 각계각층으로부터 학교재건에 대한 물심양면의 적극원조가 있기는 하지마는 교수재료와 비품이 없는 것은 가장 큰 곤란이다. “생도와 아동들이 책상이 없다!” 이 소리를 들으신 이 군단장 각하께서는 미제8군에 연락하여 포탄상자 약 4,000개를 군민정관에게 기증하여 그것으로서 훌륭한 책상과 결상을 만들었다. 자- 이제는 교사(校舍)가 낙성되고 아동들의 책상 결상까지 완비되었으니 대한의 아들딸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배양하여야 하겠다. 1만2천의 총준(聰俊)들이 수복에서 또다시 복진을 기원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는 실로 눈물겨운 바가 있다. 제반 UN교육시찰단 일행이 시찰을 하고 난 뒤에도 수복지구에서 이렇게 훌륭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감탄한 바가 있다. 군단장님의 군정방침가운데 있어서도 둘째로 교육의 재건을 주창한 바 있거니와 이 장군은 교육의 근본정신을 “배워서 우리민족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이 민족의 결점을 보충하기 위하여 꺾기하여야 하며 이로서만 우리민족의 급진하고도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굳은 신념하에 방침을 세우신 것이다.

10) 국가백년지계(國家百年之計)

치산치수(治山治水)는 국가의 백년대계이다. 산림이 울창한 곳에는 경제의 부가 있다. 그러나 수복지구에는 소위 인공(人共) 때에 남벌로 인한 황폐한 산야가 남아있다. 4월 5일의 식수기념일에는 이곳에서도 남한지구에서 묘목 25만 본을 구입하여다가 기념식수를 한 것이다. ‘국토보안은 산림애호로부터’ 라는 표어를 걸고서 군관민 청년단원과 학생들이 수복기념림에 식수를 하는 것이다. 군단장 이 장군께서도 막료들과 더불어 기념림에 손수 기념식수를 하시는 것이니 화기에애한 가운데 군관민은 혼연일체가 되는 것이다.

11) 총후치안(統後治安)은 철벽(鐵壁)의 포진(布陣)

전선의 전투가 치열할수록 총후(統後)의 국민들은 이층(二層) 군센 단결과 전력증강에 매진하여야 한다. 국민의 단결력이 해이(解弛)해질수록 제5열(第五列)은 준동(蠢動)하는 것이다. 수복지구에 있어서도 간혹 교묘하게 양민을 가장하고 이따금 제5열이 잠입하여 염전사상(厭戰思想)을 고취하거나, 또는 정보수집, 모략방화 등을 자행하는 수도 있다. 원주민들은 과거 몇 해 동안에 진절머리가 나도록 공산주의자들에게 속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런 감언이설(甘言利說)로 속이려고 해도 속지를 않는다. 오열분자나 첩자가 잠동하기만 하면 주민들은 군단 헌병대나 치안대에 고발해온다. 때로는 의외로 정치공작반의 거

물이 걸려들기도 한다. 이북괴뢰의 지령을 받고 수복지구의 민심교란을 획책하려다가 발각되어 일망타진이 되는 수도 있다. 군단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주민다수가 집합한 가운데 공개 군법회의를 개최하여, 그들의 죄상을 백일하에 폭로시키고 있다. 치안대에서도 각면 요소에 지대를 설치하고 불면불휴(不眠不休)로써 오열색출에 매진하고 있다. 군단에서는 오열체포에 공로가 있는 이에게는 수시로 표창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군내치안대장은 김진하(金振河)씨로서 항시 진두에 서서 〇백 대원을 지휘통솔하며 치안확보를 위하여 만전의 포진을 하고 있다.



12) 보내는 정성, 받는 마음, 하나로 얽힌 애국의 정

‘가는 말(言語)이 고와야 오는 곱다’는 속언이 있다. 견주어 ‘보내는 정성, 받는마음 하나로 얽힌 동포애의 정’ 이야말로 국제애 인류애의 인생본래의 정의(情誼)인 것이다. 후방에 있는 국민은 전선장병의 노고를 내 몸처럼 여기고 “어떻게 하면 일선장병들의 노고를 덜어줄 수있을까?”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쓰는가! 하면 일선장병들은 “우리 장병을 밀어주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은 얼마나 과중하고 무거운 것인가?”하고 서로 안타깝도록 민족애의 사랑이 얽여지는 것이다. 특히 이 수복지구의 주민들은 군단을 생명의 원천처럼 사고하고 애지중지하는 것이다. 극단을 조직하여 위문을 오는가 하면 농본국 수천 년 전해 내려오는 농악대를 이끌고 위문행각을 오는 때도 있다. 군용도로를 개수할 때면 부인회원들이 자진출역을 하고 부대가 출동할 때면 따뜻한 물 한 모금이라도 데워다가 부어주는 이 땅의 어머니들..., 멀리 후방에서 음식물을 만들어 가지고 위문을 오는 단체가 차를 몰고 찾아온다. 군단에서도 될 수만 있다면 후방국민 특히 수복지구 주민들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줄 수가 있다면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장병들도 여가만 있다면 수복지구 주민들의 농사뒷바라지를 도와주기도 하고 서적을 학생들에게 기증하며 남는 자재를 학교방면에 희사도 하여 이리하여 보내는 정성, 받는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아름다운 동포애의 꽃을 피우고 있다.

13) 신앙의 자유

‘주여 이땅에 평화를 주소서’ 북한괴뢰치하에서는 ‘종교는 아편’이라고 종교인을 잡아서 학살(虐殺) 유형(流刑) 억압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공산치하에서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유명한 빈센트 주교사건 같은 것은 세계를 진감시키지 않았는가? 그러나 대한민국치하에서는 신앙은 절대로 자유이다.



수복지구에 있어서도 물론 적극 포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신앙의 육성을 허여하고 있는 것이다. 군단 내에 진중교회를 설립하고 믿는 장병들은 삼일과 주

일예배를 정성껏 드리고 있다. 때로는 후방에서 교우들이 심방(尋訪)하여와서 군민합동예배를 보는 때도 있다. “민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마태복음 1장 산상보훈)의 치는 복음의 씨가 이 땅위에 천국을 달성할 기초가 되고 있다. 수복지구에서는 과거 6~7년간 교회당이 폐쇄되었는데 우리군단이 수복하면서부터 신앙의 불길은 마침내 낙심했던 교우들에게 커다란 경성(警醒)이 되어 도처에 새로이 교회가 설립되고 있다. 속초에서도 얼마 전에 교우와 일반유지들의 찬동으로써 거대한 교당이 새로 건축되어 군단장 각하 임석 하에 성대한 헌당식이 거행되었다. 교당에는 자유의 종도 건립되어 남북통일을 위한 평화회구의 종소리가 수복지로 하여금 하느님의 나라를 이룩하도록 우렁차게 울리고 있다. “주여! 이 땅에 평화를 주사이다. 아멘”

14) 거리의 천사(天使)

‘집 잃은 거리의 천사’ 전쟁에 따르는 부산물로서 기아와 질병이 발생하는 것은 고래(古來)로 의례이 따르는 일이거나 전쟁고아가 생기는 것도 근대전에 있어서는 자연현상의 하나이다. 부모를 잃고 정든 보금자리를 소실한 후에 거리에 헤매는 가련한 거리의 천사들은 얼마나 될 것인가? 천진난만(天真爛漫)한 이 어린이들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국가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데도 그렇거니와



도의상으로도 이 문제를 등한이 방치할 수 없는 것이다. 수복지구에 있어서도 북한으로부터 흘러내려온 고아가 수백여명에 달한다. 청정무구(淸淨無垢)한 점의 티끌도 없는 이 천사들을 버려둔다고 하면, 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깍쟁이 밖에 될 것이 무엇이나? 양양과 낙산사 두 곳에 고아원이 설립되었다. 특지가들의 회사와 경영자들의 노력으로 근근이 유지되어 가고 있다. 이 아이들 가운데 성장한 후에 영웅걸사(英雄傑士)가 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보냐? 대정치가, 대학자가 아니 난다고도 못하리라. 복된 목숨길에 품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불우한 고아들을 위하여 군단장 이장군은 물론이거나 영부인께서도 수시로 고아원을 방문하고 어린이들을 돌보아주시기도 한다. 군단고문들도 이따금 선물을 가지고 이들을 방문하여 어린이들의 동무가 되어주시기도 한다. 넓고 넓은 동해바다를 바라보며 미래의 파라다이스를 마음에 아로새기면서 어머니 아닌 어머니, 보모의 손에 자라나는 어린 고아들에게 복있기를...

15) 민간인의 구호시설

‘병든자는 무료로 시료(施療)’ 수복지구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는 시료문제이다. 병든자

가 의약이 없어서 앉아서 죽기를 기다린데서는 20세기 현실에 있어 시대역행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민간시료 특히 전염병 예방과 같은 것은 군과 지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수복지구에 있어서는 군단산하에 민간인구조소를 설치하고 무료시료와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있다.

16) 군단장 각하의 민정시찰

날로 늘어가는 수복지구 주민들의 복귀로 말미암아 양양 일원은 완전 도시를 이루고 있다. 집을 태우고 가족을 잃고 그래도 내 고향이니 찾아와야 하겠다고 모여오는 까닭에 인구가 가속도로 늘어가는 것이다. 불타는 염원이 무두 수복에서 복진을 외치고 있다. 이장군께서는 군무의 여가를 타서 수시로 민간인의 생활실정을 시찰하시는 것이다. “얼마나 고생들이 되는? 굶지는 않는가? 주택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녀들 학교입학이나 시키었는가? 병이나 죽지 않았는가?” 하고 일일이 가정방문을 하시며 위로격려를 하는 것이다. 때로는 전담에서 일하는 농부들을 방문하고 “올 농사는 잘되었소? 비료걱정은 안되시요?”하고 농부들을 위로도 하시고 부모(父老)들을 찾아서 건강여부를 타진도 하신다. 그리하여 인정장군의 칭송은 자못 높아가고 있다.

17) 명승과 고적

고래로 인걸(人傑)을 지령(地靈)이라고 산수미려한 동해바다 관동에서는 시인 학자와 재가가인(才子佳人)이 많이 났던 것이다. 울곡 선생같은 대정치가가 낳는가 하면 천하장사인 창해역사 여도령(黎道令)이 이곳에서 낳으며, 홍장(紅粧)같은 경국지색(傾國之色)도 이 땅에서 낳기 때문에 문학사상으로 유명한 송강(정철, 거금 360년 전 선조 때 사람)같은 분은 관동별곡을 지어 이곳을 칭찬하였던 것이다. 그만큼 산자수명한 관동풍경은 팔경(관동팔경=강릉경포대, 통천총석정, 고성삼일포, 간성청간정, 양양낙산사, 삼척죽서루, 울진망양정, 평해월송정)을 가지고 있다. 그 가운데 낙산사와 청간정이 수복지구 안에 있는데 그 중에 낙산사는 6.25이전에 이미 소련군이 나왔을 때 방화를 하였기 때문에 웅대한 묘우(廟宇)가 모두 초토(焦土)로 돌아갔고 청간정 역시 연구세심(年久歲深)하여 기와가 헐어지고 동량이 부후하여 붕괴에 직면하였던 것을 이군단장님이 취임하신 이래로 자비심을 베풀어 군민유지와 상의하여 두 고적을 재건하기로 하고 4285년(1952) 8월 28일에 낙산사를 재건하는 공사를 착수하여 11월 22일에 낙성준공을 보았으며, 청간정은 금년 5월 5일에 복구개수공사를 착수하여 불일성사(不日成事)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니 승지강산(勝地江山)에 금상첨화격(錦上添花格)으로 명승고적을 보존하는 것은 온고지신(溫故知新)의 미풍을 길이 살리는 것이다. 낙산사는 거금 1,300여년전 신라 문무왕(태조무열왕의 원자)때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부속건물로 의상대와 굴암자 사천왕상이 건재하며 극락보전은 소실된 것을 추후에 재건한 것이다. 이대통령 내외분도 친히 시찰하시고 찬사를 베푸셨으며 기념식수까지 하신 바가 있다. 청간정은 거금 350년 전에 군수 박모가 지금 건물을 창건한 것이 그간 수차 개수공사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다. 창건 기원은 신라 때에 영랑 술랑 등 사선이 이곳에 청유(淸遊)하였다는 것으로 정자를 지은 계기가 되었다고 전하여 지고 있다.

18)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

“기쁘구나 오늘날 어린이날은 우리들 어린이의 명절날일세 복된 목숨 길어품고 뛰어노는 날
오늘은 우리들의 날” 이상은 26년 전 어린이날을 제정할 때에 처음 부른 어린이날 노래이다.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이다. 적을 쳐부실 때에는 호랑이같은 무서운 이군단장께서도 어린이를 대할 때에는 언제나 미소를 띄우시게 되며 그 순간에는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어린이날에 미인고문관을 대동하고 어린이들을 위무할 때에는 좋은 아저씨와 아버지가 되어서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이다.

19) 이형근(李亨根) 장군 인상기(김팔봉)

판문점에서 공산단과 휴전협의를 개시한 후 두 번째 인가 한국군 대표로 이형근 각하가 문산(汶山)에 나가 있을 때 마침 나는 일선에 가는 길이라 서울에서 그때 이장군과 보좌관으로 나가 있는 김종문(金宗文) 대령을 만나게 되어 문산으로 찾아가려 하다가 예정을 변경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 후에 이장군은 제1군단장으로 전임되고 나는 1군단에 갈 기회를 얻지 못하였었다. 그러던 중 금년 1월 2일에 제2군단에서 제1군단에 도착하게 되어 처음으로 이장군을 대면하게 되었다. 국군의 군번 제1호를 가진 이장군은 아마 처음 대하는 사람 누구든지 37,8세가량으로 추측하리만치 노숙해보인다. 이마는 약간 벗어지고 회화의 음조가 느리고 하여서, 실상연령보다 노숙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내가 이장군의 연령을 아는 것이 아니다. 판문점에 우리 국군대표로 주재하였을 때, 이제독이 남일(南一)에게 “이 분은 대한민국 군대표 미스터 이”라고 소개하니 이장군은 남일에게 “나는 아무개”라고 인사를 하였으나 남일은 “아, 그러냐”고 하고서 “자, 이제 회의를 시작하자.”고 이장군의 인사에 응대하지도 않는 냉담한 태도를 취하더라는 전문(傳聞)을 들은 일이 있다. 이장군이 인사를 건넨 것은 남북은 수이(殊異)하건만 동족으로서 통할 친절과 아량을 가졌음이라. 이 점에 이장군의 특색이 엿보인다. 그는 은폐할 수 없는 충청도 선비이다. 듣건대 이장군의 고향은 공주이라 한다. 금년 1월 6일에 내가 서울로 향발하고자 1군단장실을 하직할 때 장군은 후방에 전언해주기를, 1은 유산층(有産層)은 군에 대해서 동정위문이 박악하고 오히려 빈



한층 국민에게 동정과 위문심이 많으니 유산층의 반성을 바라는 것과 2는 양양이북의 군정지역 속으로 후방에서 탁류가 흘러들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니 군정지구예 제발 모리(謀利) 간상배(奸商輩)가 들어오지 말아 달라, 이 두 가지의 전언을 나는 부탁받았다. 장군이 이 말을 할 때에 나는 경청하면서 강직(剛直), 엄결(廉潔)한 성격의 소유자인 것을 느끼었다. 고래로 전해 오는 말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기 전에 먼저 근심하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즐거워 한 뒤에 이를 기뻐하는 자는 성인이 나라”는 말이 있다. 진실로 이와 같이 자기인격을 완성해 가려면 심성의 부단한 연마가 필요할 것이다. 국군장성들은 비록 건군이래 연한이 짧다하나 그러나 그들의 경력은 상상을 초월해서 복잡다기하다 할 것이다. 이같은 환경가운데서 3년간 사지(死地)에서 단련된 장성들의 정신은 타의 추종을 허치 아니할 만한 그 무엇이 있을 것도 당연하다. 이장군의 원만해 보이는 품격 속에 갖추인 열일(烈日)같은 강직은 이같은 단련에서 온 것인 줄로 생각한다. 이장군의 원경밖에 모르는 내가 이 이상 더 인상기를 쓰는 것은 부당하다. -8.6-

20) 편집후록

양양군은 북위 38선 위에 위치한다. 과거 8년간 적마(赤魔)의 도량(跳梁)으로 황폐할 때로 황폐했던 곳이었다. 그러나 우리 영웅(英勇)한 군단이 진격해온 이래로 이 고장 향토양양은 새로운 갱생을 보게 된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군단장 이형근 중장각하의 위대한 덕화의 소산이 아닐 수 없다. 밝아가는 모습을 널리 국내외의 소개하고자 이 글줄을 만들든 것임을 밝히어 둔다. 봉의학인 기(鳳儀學人記)

3. 맺음말

한국전쟁 시기 수복지구 양양군의 실정이 담긴 이 책자는 1952년 1월부터 1953년 7월까지 1년 6개월간 수복지구 군정모습을 국내외의 각계에 보여주기 위해 제작된 귀중한 수복지구 전쟁사료다. 이것은 제1군단 창립 3주년 기념호로서 1952년 제1군단장으로 부임한 양양수복지구 군정책임자였던 대한민국 국군 군번 제1호 제1군단장 이형근 중장의 업적을 중심으로 한글, 사진, 지도, 영문 등으로 편집하여 컬러판으로 제작하였다.

전쟁발발과 수복의 혼란시기에 이와 같이 잘 정리된 책자를 내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 양양군수복지구건설위원회와 양양군이 제1군단의 군정시기를 20여 항목으로 나누어 수복지구의 군사, 치안, 산업, 교육, 복지, 종교, 도로, 주택, 의료, 구호사업, 문화재복구 등 다양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기술하였다. 양양군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후 미군정의 지휘를 받았으며, 수복지구였던 관계로 제1군단 군정의 휘하에 놓였었다. 양양지역이 군정에 이르기 까지 당시의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괴뢰의 남침이 있자 임전태세를 갖추기 위하여 편성된 국군 제1군단은 1953년 7월 5일로서 만 3주년을 맞이하였다. 1951년 6월 2일 38선을 두 번째 돌파한 제1군단은 잠정적인 행정조치로 실시한 군정기의 중심 수행부대였다. 당시 수복지구 양양일원은 1951년 7월 4일 미제

8군사령부 행정명령 제34호 부칙에 의거하여 1군단이 군정을 실시하였는데, 속초읍을 포함한 양양군 8개읍면의 7만 명, 고성 간성지구를 제외한 수북지를 총관장하였다.

1951년 7월 5일 1군단 군정 수반은 양양군내 읍면자치위원회, 군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군 관하지구 행정감정규정을 공포하여 각리장과 읍면장 선거를 실시하였다. 또한 군민정 군수를 선출하였는데 초대민정관은 박종승(朴鍾勝)이 뽑혔으며, 각읍면협의원을 선출하였다. 이형근 군정 당시 1군단의 군정(軍政)의 목표는 주민생활 안정과 향상, 교육의 재건, 산업의 진흥 등으로 결정하였다. 양양 수북지구의 주민들은 제1군단을 위해 극단을 조직하여 위문공연을 하고, 마을농악대를 이끌고 와서 농악놀이를 하는 등 장병위문과 군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였다.

이후 1953년 6월 15일 제1군단예하 22사단과 25사단이 창설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미제8군단사령관 테일러장군과 정부요인들을 대동하고 1군단을 방문하였고,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반대 양양군민총궐기대회에도 참석하였다. 1953년 5월 1일 폐허가 된 학교들을 공병대원들이 주민들과 함께 보수하였으며 책상이 없자 이형근 장군은 미군포탄 나무상자 4천여 개로 학생들이 사용하게 하였다. 당시 양양군 학교는 고등학교 2개교, 중등학교 3개소, 국민학교 14개소 계 19개 학교에 남녀학생수가 12,720명에 달하였고 교직원인 233명이었다. 수북지구인 관계로 북한지역 고아가 수백여명에 달함에 따라 양양과 낙산사 두 곳에 고아원이 설립하여 이들을 수용하였다

또한 6.25이전 소련군이 방화를 한 낙산사를 1군단 공병대에서 1952년 8월 28일 낙산사 재건공사에 착수하여 11월 22일에 낙성준공을 보았고, 청간정도 붕괴에 직면하였던 것을 1953년 5월 5일에 복구개수공사를 착수하여 그 공사를 완료하는 등 문화유산의 복구에 노력하였다. 그리고 수북지구에서는 과거 공산치하에서 6~7년간 교회당이 폐쇄되었는데 제1군단이 이 지역을 수복하면서 양양교회가 설립되고, 4월 5일 식목일에는 25만개 묘목으로 수복기념림을 조성하는 등 치산녹화에도 힘썼다. 이때는 전쟁시기인지라 물자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빈한층 국민들이 오히려 국군에게 위문과 동정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재산이 많은 유산층의 반성을 촉구하고, 양양이북의 군정지역 속으로 후방에서 불순분자와 같은 탁류가 유입되는 것에 대하여 군정수뇌부는 우려하였던 것이 나타난다. 소설가 김팔봉 작가가 이형근 장군에 대한 인상기를 썼으며, 봉의학인(鳳儀學人:이름불명)이 책자 편집인임을 알 수 있다.

박종승 민정관은『양양군지』에 의하면, “밀양인으로 호는 기재(杞齋)이며 명문의 집에서 태어났다. 한문에 조예가 깊고 일제강점기에는 운수사업에 종사하였고, 해방후 인공(人共)의 불우(不遇)를 받고 세상을 한(恨)하며 생활고에 신음하였다. 수복후 중의(衆議)로 민정관(民政官)에 선출되어 양양군 민정관으로 수년간 군 행정을 맡아보았다. 그러나 운수불길하여 반신불수가 되어 수년 동안 고생하다가 1973년 83세로 사천리(仕川里) 자택에서 운명하였다.”고 하였다.

김팔봉(金八峰, 1903~1985)은 본명이 기진(基鎭)이며 문학평론가로서 1919년 배재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도일하여 1920년 일본 릿쿄대학 영문학부를 중퇴하였다. 1923년부터 매일신보 등 17년간 기사생활을 하였으며, 6.25사변당시 공산군에 체포되어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등 수난을 겪었다. 김팔봉이 이형근 장군 인상기를 쓰게된 사유는 파악할 수 없다.

속초시 장사동에는 이형근 장군 덕정비(德政碑)가 있는데 1952년 8월 15일 이형근 장군의 공을 기리기 위해서 세웠다. 1952년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313-1의 통천군 순국동지 충혼비 옆에 세웠는데 현재 동명동 영랑호 동남쪽 가에 위치하고 있다. 1952년 8월 15일 제1군단 전투지구 민중대표 13인의 발기로 당시 양양군 민정관 박종승(朴鍾勝)이 주도하였다. 본래 이 지역은 북한공산 치하에 있었으나 제1군단장 이형근 중장이 부임하여 수복지구 재건에 공적을 쌓았기에 이를 기린 것이다. 또한 1954년 5월 10일 속초시 동명동 입구에 수복기념탑이 세워졌는데 동년 3월 속초읍장 김근식 등이 당시 1군단 민사처보좌관 전형윤 소령에게 건의하여 군정당시 1군단장 이형근 장군의 승낙을 얻어 수복을 기념하고 피난민의 향수를 달래기 위해 세운 것이다. 이장에서 발굴 소개한 수복지구 양양군정관련 자료를 통해서 양양군 발전사의 한 일면을 살펴보게 된 것을 필자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白凡先生님과 漢詩 이야기

양양문화원장 양동창

白凡先生님의 漢詩이야기를 하기 전에 선생님의 약력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선생께서는 대한제국의 교육자이자 종교인이며 독립운동가 이시며 1876년 8월 29일 黃海道 海州府의 벽지인 백운방 텃골(基洞)에서 태어나셨다.

본관은 安東이며 字는 蓮下이고 號는 白凡이다.

미천한 백성을 상징하는 白丁의 “白” 字와 보통사람이라는 凡夫의 “凡” 字를 따서 지었다고 전한다.

처음 이름은 昌巖이고 19세 때에 昌洙로 바꾸었다가 37세 때 거북 “龜”였던 이름을 아홉 “九”로 바꾸었다고 한다. 백범 선생은 위기의 양반집안 외아들로 태어나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벼슬자리를 팔고 사는 매관매직의 부패된 세태에 울분을 참지 못하여 과거를 포기하고 18세에 동학농민 운동에 참가하였고 그 후 불교에 귀의하여 범명 원종을 얻은 승려였으며, 신민회에서 활동한 개신교 신자였고, 후에 천주교 신자가 되어 받은 세례명은 베드로이다.

1919년 이후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등을 지내셨다.

만주사변 이후에는 일본의 중국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중국 관내 여러 지역으로 임시정부를 옮겨 다니는 수난을



겪기도 하셨다.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여 이봉창의 동경의거, 윤봉길의 홍커우 의거 등을 지휘하였으며 1940년 3월부터 1947년 3월 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회 주석으로 항일투쟁을 주도하셨다.

1945년 광복 이후에는 임시정부 법통운동을 주창하시고 이승만 김성수 등과 함께 신탁통치 반대운동과 미소공동위원회 반대운동을 추진하였으며, 1948년 1월부터 남북협상을 주도하였다.

그동안 일본경찰에 연행되기도 하셨고 각종 暗殺事件 背後로 지목되어 재판정에 서시기도 하셨다.

1949년 6월 26일 윤남 이승만의 남한단독정부 수립에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 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위하여 단독정부를 수립하는데 협력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반대하고 남북협상을 통한 통일정부 수립을 추진하다 좌절한 뒤 陸軍砲兵 將校였던 安斗熙의 狙擊으로 경고장에서 총을 맞고 逝去하였으며 장례는 1949년 7월 5일 한평생 조국의 독립과 하나 된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선생님의 충정을 생각하는 온 국민의 애도 속에 국민장으로 엄수되었다.

“白凡日誌”에 나타난 선생님의 의지를 보면

“사람의 한 평생이란 참으로 짧다. 그렇지만 꼭 한번 밖에 없는 인생이다.

뒷날 남의 손가락질 안 받게 언제나 양심에 비추어 부끄러움이 없도록 처신하는 것을 좌우명으로 삼아 이 西山大師의 시를 나는 애송해 왔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西山大師는 묘향산에서 오래 머문 까닭에 西山大師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지만 법명은 淸虛 休靜(1520 ~ 1604)이다. 禪詩를 소개하면

“踏雪”(눈을 밟으며) 西山大師

踏雪野中去 눈을 밟으며 들판을 걸을 때는

不須胡亂行 모름지기 걸음걸이를 어지럽게 하지 말라.

今日我行跡 오늘 내가 남겨놓은 이 발자국은

遂作後人程 마침내 뒷사람들의 이정표가 되리니.

이 선시가 유명해진 결정적인 요인은 白凡 金九선생의 座右銘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詩 자체가 누구나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해주는 명문인 까닭이다.

인천 대공원 백범광장에는 이 선시를 돌에 커다랗게 새겨놓고 <그림1>오가는 이들에게 무언의 가르침을 내리고 있다.



<그림1>



<그림2>



또한 이시는 백범이 만년에 즐겨 썼던 시<그림2>로 1946년 10월 26일 안중근 의거 기념일에 쓴 것이다.

백범이 이 시로서 조국이 눈보라치는 위기에 당면 할 때 일신의 안위나 이해관계보다는 후손들에게 남겨 줄 역사를 강조하셨다.

너무나 감동적인 김구선생의 어록을 소개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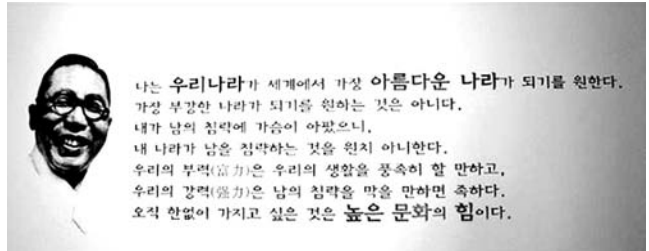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強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만이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 인류가 현재 불행한 근본원인은 仁義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 인류의 정신을 배워야 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특히 선생께서 대한민국의 독립에 강한의지를 천명하신 것을 입증하는 어록을 소개하면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느님께서 물으신다면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오.”라고 말할 것이다.

“그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나라의 독립이오.”

“또 그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면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오.”라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우리민족의 사업은 결코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거나 경제적으로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살고 인류전체가 의롭게 즐겁게 살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음은 自由中國 蔣介石 總統이 白凡 선생님의 서거를 추모하면서 영전에 보낸 輓詩를 소개하고자 한다.

〈輓詩란? 상여를 끌 다라는 뜻의 끌만(輓)자로 사람이 죽으면 상여를 끌 때 하도 서러워서 詩로서 죽은 자를 애도하며 쓴 시를 말한다.〉

輓白凡金九先生

樞星一夜落江山	추성이 하룻밤에 떨어진 강산
天動地悲水自鳴	하늘과 땅이 놀라 슬퍼하니 물도 우는 도다.
血淚溱溱滄海潤	피눈물 많고 많아 창해를 적시고
憤心疊疊泰山輕	분한 마음 겹치니 태산도 가벼우이.
堂堂義氣生前業	당당한 의기는 생전에 업적을 쌓았고
烈烈精神死後名	열렬한 정신은 사후에 이름을 더하네.
千秋冤恨憑誰問	천추의 원한을 누구에게 물어 볼까
寂寞皇陵白日明	적막한 황릉에 백일 만이 밝았더라.

※ 樞星：北斗七星의 첫째별

2002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255번지에 건립 개관한 백범김구기념관은 백범선생의 유업을 계승하고 추모 사업을 봉행하는 한편 완전 자주통일 독립정신을 수련하고 실천하는 도장이고 통일 조국을 실현하고 애국애족정신과 민족정기를 선양하여 다음세대에 민족적인 이상을 추구하는 정신적 모태가 되도록 건립된 것이다.

백범선생은 파란만장한 일생을 오직 조국과 조국의 백성들을 위하여 살다가 끝내 통일 조국을 보지 못하고 흉탄에 서거하셨다.

우리는 선생님의 독립애국 사상과 행동 그리고 동일의지를 새기면서 우리가 무엇을 진정 생각하고 실천할지를 마음으로 다짐하여야 할 것이다.

五色嶺 地名에 관한 考察

이종우, 이규환

I. 問題의 提起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조상대대(祖上代代)로 지켜온 역사와 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자연문화(自然文化)의 유산(遺産)일 뿐 아니라 자자손손 길이 대물림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므로 이 논의(論意)의 시작과 끝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논의의 장(場)을 마련함으로써 과거의 잘못 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올바른 길임을 밝혀둔다. 왜냐하면 역사는 되풀이 될 것이며 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후대에 남기는 교육적인 일만큼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양양군의 개략적 지리환경은 북쪽으로는 속초에 연결되고, 남쪽으로는 강릉과 접해 있다. 서쪽인 내륙으로는 인제군이 있지만, 양양과 내륙의 사이에는 분수령(分水嶺)이 되는 험준한 백두대간이 놓여 있어서 원래부터 내륙과의 교통이 불편하였다. 다만 남북으로는 교통이 수월하게 이루어졌다. 지명은 일반 어휘(語彙)에 비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성격이 있어서 인문학적 유물로 취급된다. 정치체제가 바뀌거나, 또는 외부의 침입에 의하여 통치세력이 바뀌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이동하지 않는 것이 상례(常例)이므로 이들 토착주민에 의해 사용되는 지명이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다.

역사적으로 영(嶺)의 기능은 귀향(歸鄉)보다는 상경(上京)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당시의 인제현(麟蹄縣)과 양양부(襄陽府)의 관점에서 볼 때, 인제현에 속한 한계리와 양양부에 속한 오색리에서 영(嶺)의 기능과 관련된 지역은 출발점인 오색리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이래로 오색령이라 이름 하였던 것은 타당한 이름의 부여인 것이다. 조선시대에 양양부에서 내륙인 경사(京師)서울로 통하는 길은 오색령(五色嶺)과 소동라령(所冬羅嶺)이 있었다.

조선 후기에 나온 지도를 보면 오색령은 지금의 한계령(寒溪嶺)에 해당한다. 그리고 소동라령(所冬羅嶺)은 춘천부(春川府) 기린계(旗麟界)로 통하던 길이었으나 도로 기능을 잃었다. 사람에게 이름이 중요하듯, 지명(地名)은 나라와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의 유산을 상징하고, 사회 구성원의 얼이자 정신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본 논의(論意)의 목적은 오색령(양양군 서면)과 인제군 북면을 연결하는 고개, 해발 920m)의 실체(實體)를 바로

찾기 위해서 고문헌(古文獻)·고지지(古地誌)·고지도(古地圖)를 토대로 조사 한 결과 일제강점기에 한계령으로 왜곡(歪曲) 기록된 것이 명백하여 이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바로잡고자한다.

Ⅱ. 五色嶺 地名에 관한 考察

1. 五色嶺의 歷史的 記錄

1) 고문헌에 나타나는 오색령

(1)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

추강 남효온〔秋江 南孝溫〕 1454~1492년의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 서두에 “한 줄기가 남쪽으로 200여 리를 뻗어 가다가 산 모양이 우뚝 솟고 험준함이 대략 금강산과 같은 것이 설악산(雪嶽山)이다. 그 남쪽에 소솔령(所率嶺)이 있다. 설악산 동쪽 한 줄기가 또 하나의 작은 악(岳)을 이룬 것이 천보산(天寶山)이니 하늘이 눈비 내리려고 하면 산(山)이 저절로 울기 때문에 혹(或) 울산이라고도 한다.” 라고 적었다.

一枝南延於二百餘里。山形竦峭。略如金剛本岳者曰雪岳。其南有所率嶺。
岳東一枝又成一小嶽。曰天寶山。天將雨雪。山自鳴。故或曰鳴山。

조선 성종 16년(1485년) 윤4월 15일 (을미) “오색역(五色驛)을 출발하여 소솔령(所率嶺)을 올라 여기를 소금강산이라 부르는 것이 빈말이 아니구나. 하고서 영(嶺)위에서 동해를 하직하고 원통을 지나 인제현(麟蹄縣)에서 묵었다.”라는 기록이 있으니 그 당시에 지금의 오색령(五色嶺)을 소솔령(所率嶺)이라고 부른 것이 아닌가 한다.

乙未。發五色驛。度所率嶺。雪岳亂嶂。無慮數十餘。峯皆頭白。溪邊石木亦白。
俗號小金剛山。非虛語矣...余於嶺上辭東海...自元通履平地...宿麟蹄縣。

(2)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1530년에 편찬(編纂)된 양양도호부 산천조(山川條)에는 소동라령(所冬羅嶺)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在府西六十里重巒疊嶂地勢險阻舊有路通京師今廢。

양양에 대한 기록에서 영(嶺)은 오직 소동라령(所冬羅嶺)만 있으므로, 이것이 후대의 기록에 나오는 오색령(五色嶺)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나, 그 이후 자료로 보아 소동라령과 오색령은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제현(麟蹄縣)의 산천조(山川條)에도 한계산(寒溪山)의 다음 항목으로 소동라령(所冬羅嶺)이 기록 되어 있으며, 인제현의 북쪽에 있는 영(嶺)으로는 소파령(所波嶺), 미시파령(彌時坡嶺) 등이 있다고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오색령(五色嶺)에 대한 기록은 없다.

(3) 팔곡집(八谷集)

1589년 강원도 관찰사를 역임한 팔곡 구사맹(八谷 具思孟)의 팔곡집(八谷集)에 한계산(寒溪山) 시(詩)의 주석(註釋)을 살펴보면 “양양에서 소솔령(所率嶺)을 넘어 인제로 이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한계사(寒溪寺) 지금의 인제군 북면 한계리 장수대 인근에 위치한 절]에서 투숙함으로 이들을 접대하기 힘들고 감내할 수 없어 스님들이 절을 버려두고 떠나 절은 허물어져 빈터만 남아있다……”라고 적고 있다.

古寺卽寒溪寺自襄陽所率嶺抵麟蹄舊路經由寺下往來人必投宿于寺寺僧不堪迎接之苦不肯居住遂致空廢今則頽圯已久只有舊基礎宛然是巨刹也此山在麟蹄爲寒溪其在襄陽者曰雪岳實一山也。

(4)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세조 8년 임오(1462년) 8월 5일(정묘) 병조의 건의로 각도의 역·참을 파하고 역로를 정비하여 찰방과 역승을 두다. 기록에 상운역(祥雲驛)·연창역(連蒼驛)·오색역(五色驛)·강선역(降仙驛)·인구역(麟丘驛)·청간역(淸澗驛)·죽포역(竹泡驛)·운근역(雲根驛)·명파역(明波驛)·대강역(大江驛)·고잠역(高岑驛)·양잔역(養珍驛)·조진역(朝珍驛)·등로역(登路驛)·거풍역(巨豐驛)·정덕역(貞德驛) 이상 16역은 상운도 역승(祥雲道驛丞)으로 일컬을 것.

祥雲驛, 連蒼驛, 五色驛, 降仙驛, 麟丘驛, 淸澗驛, 竹泡驛, 雲根驛, 明波驛, 大江驛, 高岑驛, 養珍驛, 朝珍驛, 登路驛, 巨豐驛, 貞德驛已上十六驛, 稱祥雲道驛丞。

성종 8년 정유(1477년) 1월 24일(계해) 이극증의 계본에 따라 강릉·양양·인제의 공수 위전을 대로의 예에 따르게 하다. 기록에 호조(戶曹)에서 양전 순찰사(量田巡察使) 이극증(李克增)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강릉(江陵)의 진부역(珍富驛)·횡계역(橫溪驛)·대화역(大和驛)·임계역(臨溪驛)과, 양양(襄陽)의 오색역(五色驛)과, 인제(麟蹄)의 부림역(富林驛)은 극심하게 잔폐(殘敝)하여 모든 공급(供給)을 지탱할 수 없을 것이니, 청컨대 공수위전(公須位田)을 대로(大路)의 예(例)에 따라 20결(結)을 주어서 회복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戶曹據量田巡察使李克增啓本啓：“江陵珍富驛·橫溪驛·大和驛·臨溪驛，襄陽五色驛，麟蹄富林驛殘敝莫甚，凡供給必不能支，請公須位田，依大路例給二十結，使之蘇復。”從之。

위의 세조실록, 성종실록에 오색역(五色驛)의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오색령(五色嶺)이라고 지칭한 기록은 없으나 오색(五色)을 경유하는 대로(大路)인 영로(嶺路)가 있었음은 분명하다.

문헌에 오색령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朝鮮王朝實錄』에서 찾을 수 있다. 『선조실록 권72(宣祖實錄卷七十二)』 1596년 2월 1일(戊戌)에 비변사(備邊司)가 아뢰기를 “적병이 경상도의 영해(寧海) 연해를 따라 북상하게 되면, 평해와 울진이 가장 먼저 적을 받을 것입니다. 이곳을 만약 지키지 못하여 적병이 깊숙이 영동(嶺東)으로 침입하면, 추지령(楸池嶺)·미수과(彌水坡)·오색령(五色嶺)·백봉령(白鳳嶺) 등의 곳은 모두 영(嶺)을 넘는 길이 될 것이니, 방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備邊司【去正月三十日，備忘記回啓也】啓曰：……賊兵由慶尙道寧海，沿海以北，則平海蔚珍，當先受敵。此處若失，而賊兵深入於嶺東，則楸池嶺，彌水坡，五色嶺，白鳳嶺等處，皆爲踰嶺之路，不可不備也。……

(5) 양서 이광운 선생년보(襄西 李光胤 先生年譜)

양서 이광운(襄西 李光胤 1564~1637년)선생년보(先生年譜)에 “1602년(壬寅) 4월 관동을 두루 돌아 한계산(寒溪山)의 승상이 빼어난 오색령(五色嶺)을 두루 다니면서 전직 재상 절도사들과 시를 지어 읊조리며 술자리를 베풀었다.”라고 적었다.

四月。還關東。歷討寒溪山五色嶺勝狀。與使相。有唱酬諸作。

(6) 곡운집 권지4(谷雲集 卷之四)

김수증(金壽增) 1624~1701년의 『한계산기(寒溪山記)』 1691년(辛未) 5월 9일(甲午)의 기문(記文) 중에 “살피고 나서 수백 보를 나아가, 개울가 돌 위에서 점심을 먹고서, 지나가는 스님을 만나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니 곧 대답하기를 오색령(五色嶺)을 경유하여 양양(襄陽)으로 가는데 거리는 약 80리가 된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考按既訖 起行數百步 至溪邊石上午飯 逢過去僧 問其何向 則曰 由五色嶺至襄陽 蓋此距海路八十里云。

유곡연기(遊曲淵記) 1698년(戊寅) 2월 27일의 기문 중에 “각형에게 물으니 지한이 설악 위를 가리키며 봉정암(鳳頂庵) 동쪽 모퉁이에 있고, 동북쪽에 있는 백연(百淵)은 남기와 아지랑이 그윽하고 어두우니 가히 말 할 수 없으며, 필여봉(筆如峯) 위의 오색령(五色嶺)은 동남쪽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問於覺炯 池漢 而指點上雪嶽鳳頂庵在東曲 百淵在東北 而嵐靄杳冥不可辨 五色嶺上筆如峯 在東南.

(7) 명암집(鳴巖集)

명암 이해조(鳴巖 李海朝) 1660 ~ 1711년)가 1709년 양양부사 재임 시 현산삼십경(峴山三十景)을 삼연 김창흡(三淵 金昌翕)과 읊은 현산삼십영(峴山三十詠)시(詩)에 “오색령(五色嶺)은 양양부(襄陽府) 서쪽에 있는데 고비고 사리가 많이 난다.” 라고 설명하였다.

五色嶺 在府西多生 薇蕨.

(8) 양와집(養窩集)

양와 이세구(養窩 李世龜) 1646~1700년)의 양와집(養窩集)에 1691년(辛未) 10월 3일(甲申) 동유록(東遊錄)에 “조침령의 북쪽은 오색령이고 그 동쪽은 양양(襄陽)이고 서쪽은 인제(麟蹄)이며 오색령 북쪽에 미시과령을 이룬다.”라고 적었다.

曹砧之北爲五色嶺。其東則襄陽。西則麟蹄。五色之北爲彌時坡嶺。

1693년(癸酉) 6월 그믐날 양와(養窩)가 자익 김창흡(子益 金昌翕)과 더불어 글을 쓰다. 라는 제하의 글 속에 “호수와 바다를 탐승하며 낙산사(洛山寺)에 이르니 스님이 설악산(雪嶽山) 북쪽의 가지를 가리키면서 저것이 오색령(五色嶺)이다. 라고 말하였다.”고 적었다.

探湖海到洛山。居僧指雪岳北枝曰是五色嶺也。

(9) 풍악록(楓嶽錄)

저촌 심욱(樗村 沈錫) 1685~1753년)이 1713년(癸巳)에 쓴 일기 풍악록(楓嶽錄)에 투촌 사람 집에 유숙하니 역시 회양 땅이다. 주인의 이름은 손일성이며, 그 아들 순흥이 말하기를 일성은 오색령(五色嶺)에 사는 한승운의 매제라 하였다.

投村人家留宿。亦淮陽地。主人姓名 孫一成。其子順興云。一成。卽五色嶺 韓承雲之妹婿云。

(10) 연려실기술별집 제16권(燃藜室記述別集 第16卷)

이금익(李肯翊) 1736~1806년)의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별집 제16권 지리전고(地理典故) 총지리(摠地理)에 “동쪽에서 일어나 철령(鐵嶺)이 되고, 동북쪽으로는 황룡산(黃龍山)이 되었으며, 남쪽으로 뻗어서 유관령·추지

령·금강산·회전령·진부령·흘리령·석파령·설악 한계산이 되고, 오색령·연수파로 이어지고, 오대산·대관령 두타산·백복령이 되었다.”라고 적었다.

東起爲鐵嶺. 東北爲黃龍山. 南走爲杻串嶺. 爲楸池嶺. 爲金剛山. 爲檜田嶺珍富嶺 屹里嶺石波嶺. 爲雪岳寒溪山. 爲五色嶺連水波. 爲五臺山. 爲大關嶺. 爲頭陀山. 爲百福嶺.

(11) 택리지(擇里志)

조선후기 실학자 이중환(李重煥)이 영조 27년(1751년)에 저서 『택리지(擇里志)』에서 산천 산수를 논 하며, 백두산은 여진과 조선의 경계에 있으며, 한 나라에 북두칠성을 둘러싼 별처럼 되어 있는 그 위에는 돌레가 80 리나 되는 큰 못이 있는데, 서쪽으로 흐르는 것은 압록강이고, 동으로 흐르는 것은 두만강이고, 북으로 흐르는 것은 송화강이며 두만강과 압록강의 안쪽이 곧 우리나라이다. 백두산에서 산맥은 가운데로 뻗어 함흥에 이르고, 동쪽 가지를 따라 뻗은 두만강 남쪽, 서쪽 가지를 따라 뻗은 압록강의 남쪽이다.

함흥에서부터 산등성이가 동해에 좁게 치우쳐 서쪽 가지는 칠팔백 리에 달하고, 동쪽가지는 백 리 미만의 대간은 남으로 내려가 수천 리를 끊이지 않고 옆으로 골짜기를 이루고 경상도에 이르러서 태백산과 통하였다. 한줄기 영이 함경도와 강원도가 만나는 곳에 철령(鐵嶺)이 되었으며 이 영(嶺)을 통해 북쪽은 대로다.

그 아래로 내려와 추지령(湫池嶺)·금강산(金剛山)·연수령(延壽嶺)·오색령(五色嶺)·설악한계산(雪嶽寒溪山)·오대산(五臺山)·대관령(大關嶺)·백봉령(白鳳嶺)에 이어 태백산(太白山)으로 이어졌다. 여기저기 솟은 고저가 고르지 않는 산은 모두 골이 깊고 높은 산봉우리가 중첩되어 있다. 영(嶺)을 이르기를 영의 등성이 점점 낮아져 평평한 곳을 열어 길을 내어 영동과 통하게 하였으며 그 나머지 모두 이름 있는 산이라 부른다.

山水

何以論山水白頭山在女眞朝鮮之界爲一國華蓋上有大澤周廻八十里西流爲鴨綠江東流爲豆滿江北流爲混同江豆滿鴨綠之內卽我國也自白頭至咸興山脈中行東枝行於豆滿之南西枝行於鴨綠之南自咸興山脊偏薄東海西枝長亘七八百里東枝未滿百里大幹則不斷峽橫亘南下數千里至慶尙太白山通爲一派嶺而咸鏡江原之交爲鐵嶺是爲通北大路其下爲湫池嶺爲金剛山爲延壽嶺爲五色嶺爲雪岳寒溪山爲五臺山爲大關嶺爲白鳳嶺仍作太白山焉皆亂山深峽危嶂疊嶂耳謂之嶺者仍嶺脊稍低平處開路通嶺東其餘皆以名山稱者也

(12) 다산시문집 제7권 (茶山詩文集 第7卷)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1762~1836년 시(詩) 소양강을 건너서 두보의 수회도시에 화답하다(昭陽渡和水廻渡) 시(詩) “寤寐五色泉 何由得一餐(자나 깨나 바라나니 오색의 샘물을 어떻게 해서 한번 마셔 볼거나)” 라고 읊고, “설악산 동쪽이 곧 양양의 오색령(五色嶺)인데 여기에 영천(靈泉)이 있다.”라고 적었다.

雪嶽之東 卽襄陽 五色嶺 有靈泉.

(13) 해좌선생문집(海左先生文集)

해좌 정범조(海左 鄭範祖)1723년~1801년의 시문(詩文) 상운역승을 만나러 오색령에 갔으나 영천(靈泉)만 마시고 만나지 못했다. 에서 “길을 찾아가니 오색령(五色嶺)의 경치는 참으로 아름답다.” 라고 읊었다.

訪祥雲丞 值入五色嶺 飲靈泉不遇
停蓋雲松下 虛樓不見君 徑尋五色勝 剩作四仙羣
飛鳥還居後 靈漿尙許分 依依沿浦返 遙海欲斜曛.

1779년 설악기(雪嶽記)에 “동남방은 숲과 골짜기 아주 아름답다. 동쪽은 오색령인데 영천(靈泉)이 있어서 체중에 좋다고 한다.”라고 적었다.

東南林壑絕美。東爲五色嶺。有靈泉。宜瘠積。

(14) 기관동산수(記關東山水)

연경제 성해응(研經齋 成海應 1760~1839년)의 기관동산수(記關東山水)에 설악산에 관한 기록 가운데 “설악산은 눈같이 교결(皎潔)하여 설악산이라 칭하는 바, 오색령으로 이어졌다.”라고 적었다.

山皎潔如雪 乃雪嶽之所稱也 自青峯走東南 連亘五色嶺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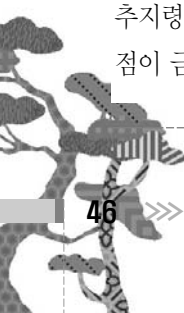
(15)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 4(軍政編四) 관방(關防) 강원도[조선 순조 8년(1808년)경에 시임(時任) 호조판서(戶曹判書) 서영보(徐榮輔)와 부제학(副提學) 심상규(沈象奎)가 같이 비국유사당상(備局有司堂上)으로 있으면서 왕명을 받들어 찬진(撰進) 한 것이다.]에 “양양영로(襄陽嶺路)는 오색령·필여령. 기린(麒麟)통로는 소동라령·조침령. 구룡령은 강릉과의 경계. 형제현(兄弟峴)·양한치(兩寒峙) 모두서쪽 통로다.”라 기록되어있다.

襄陽嶺路 五色嶺 弼如嶺 麒麟路 所冬羅嶺 阻沈嶺 九龍嶺 江陵界 兄弟峴 兩寒峙 并西路。

(16) 금강산총기(金剛山總記)

식산 이만부(息山 李滿敷) 1664~1732년의 금강산총기 서두에 대체로 우리나라의 산은 백두산에서 비롯되었으며 백두산(白頭山)의 낙맥(落脈)이 남으로 흘러 철령에 이르며 남북의 경계를 이룬다. 이곳에서 동으로 흘러서 추지령·쇄령·온정령 등 세 고개가 되고 이것이 팔백리를 관통하여 온정령에 이르고 다시 남쪽으로 삼십리 지점이 금강산이다. 금강산은 동해 바다를 따라 백리를 내려가 진보령(진부령)이 되며 진보령에서 오십리를 더 가



면 석파령, 그곳에서 삼십리를 더 가면 미치령, 다시 육십리를 가면 한계산이 되고, 다시 삼십리를 가면 오색령에 이르며, 이곳에서 구십리를 가면, 오대산에 이르고, 삼십리 거리에 대관령이 되고, 사십리 거리에 백복령이 되고, 백리 거리에 태백산과 황지가 된다. 이것이 금강산을 중심으로 한 그 위아래의 형승이 막히고 험준한 모습의 대략이다.

大抵我東之山 起自白頭 白頭之脉 南流至鐵嶺 限南北界 東迤爲楸池 鎮 溫定三 大嶺 通八百里 溫定南三十里 爲金剛 金剛東邊海百里爲眞寶嶺 五十里爲石坡嶺 三十里爲 彌峙嶺 六十里爲寒溪山 三十里爲五色嶺 九十里爲五臺山 三十里爲大 關嶺四十里爲百複嶺 百里爲太白·黃池. 此其上下形勝阻阨大體也.

(17) 산경표(山經表)

조선후기의 실학자 여암 신경준(旅菴 申景濬) 1712~1781년)이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山經表』는 우리나라의 산줄기와 산의 갈래, 산의 위치를 일목요연하게 표로 나타낸 지리서이다. 우리나라 산들의 족보인 셈이다. 책의 윗부분에 대간(大幹)·정맥(正脈) 등의 명칭을 가로로 표시하고, 그 아래에 세로로 산·봉우리·고개 등의 연결 관계, 산들의 갈래를 기록하였다. 표 밖의 상단에는 그 산이 속한 군현 이름을 표시하여 행정구역상의 위치를 나타냈다. 1910년에 설립된 조선광문회(朝鮮光文會)는 빼앗긴 국토와 역사의 줄기를 되찾으려는 하나의 방법으로 “조선 구래의 문헌 도서 중 중대하고 긴요한 자료를 수집, 편찬, 개간하여 귀중한 도서를 보존, 전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조선광문회에서 『택리지』 『도리표』에 이어서 지리서로서 세 번째로 1913년에 간행한 책이 『山經表』인데 산경표에 나타난 지명은 총124개소 중 山57개소, 嶺48개소, 峙8개소, 峴7개소, 峰4개소이며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산경표에 나타난 백두대간

총124개소	山-57개소 · 嶺-48개소 · 峙-8개소 · 峴-7개소 · 峰-4개소
백두산→연지봉→허항령→보다회산→사이봉→완항령→어은령→원산→마등령→ 괘산령→황토령→천수령→조가령→후치령→항령→태백산→부전령→대백역산→ 황초령→사향산→설한령→낭림산→상검산→마유산→횡천령→두무산→애전산→철용산→오강산→운령→무라발산→거차산→토령→장좌령→대아치→죽전령→기린령→재령산→화여산→두류산→노동현→반룡산→마은산→노인치→박달령→백한산에운령→설탄령→분수령→청하령→추포령→풍류산→철령→판기령→기죽령→저유령→추지령→판막령→선령→온정령→금강산→회전령→진부령→마기라산→흘리령→미시파령→설악→오색령→연수령→조침령→구룡령→오대산→대관령→삽당령→백봉령→두타산→총옥산→죽현→건이령→대박산→태택산→수다산→백병산→마아산→꽃적산→소백산→죽령→도술산→작성산→대미산→계림산→조령→이화현→희양산→주현→대야산→불일산→화산→속리산→구봉산→봉황산→웅현→웅이산→ 고산→흑운산→추풍령→계방산→황악산→삼성산→우두산→삼도봉→대덕산→덕유산→백암봉→봉황산→육십치→장안치→본월치→백운산→기치→유치→여원치→ 지리산	

(18) 관동창의록(關東倡義錄)

1896년 2월 16일(丙申 建陽元年·開國五〇五年) 의병군(義兵軍)을 이끌고 오색령(五色嶺)을 넘어 양양으로 진군했다. (襄陽進軍 引軍踰五色嶺) “3월에 이석범을 논죄하고 제왕의 군사가 경계에 이르렀을 때 서울의 병력이 낮에는 매복하고 밤에 행군하여 춘천에서 출발하여 오색령을 넘어 양양으로 들어 닳쳤다.”라는 기사가 있다.

三月京兵曉諭文 兄弟彎弓 致書觀察使 徐廷圭 史筆公論 李錫範論罪 王師到境 時京兵晝伏夜行, 自春川反踰五色嶺抵襄陽.

(19) 증보문헌비고 권28(增補文獻備考 卷二十八)

양양 산천편(襄陽山川編)에 오색령은 서쪽 50 리에 있다. 모든 산의 총설에 나타나 있다. 양양 영로(襄陽嶺路)는 오색령·필여령·소동라령·조침령·구룡령·형제령·양한치이며, 인제 영로(麟蹄嶺路)는 미시령·흘이령·탄둔령·두모치·건리치·오색령·서파령·가노치·진보령으로 기록되어 있다.

襄陽 五色嶺在西五十里右諸山見總說

嶺路五色嶺見襄陽嶺路 彌如嶺並西路 所冬羅嶺 阻沈嶺 九龍嶺江陵路 兄弟峴 兩 寒峙並西路麟蹄 嶺路味施嶺……屹伊嶺 炭屯嶺……頭毛峙……建里峙……五色嶺 見襄陽嶺路 西坡嶺並東路 加奴峙南路 眞寶嶺北路

2) 고지지(古地誌)에 나타나는 오색령

(1) 여지도서(輿地圖書)

1757년 양양부(襄陽府) 지도에는 북쪽에 있는 영(嶺)으로서 오색령(五色嶺)·필여령(彌如嶺)·조침령(阻沈嶺)·소동라령(所冬羅嶺)·구룡령(九龍嶺) 등의 다섯 개의 영이 북에서 남으로 차례로 열거되어 있으며, 북쪽의 오색령이 설악산의 주봉에 가장 가깝다. 이로써 보면 오색령(五色嶺)과 소동라령(所冬羅嶺)의 거리는 상당히 떨어져 있으며, 소동라령(所冬羅嶺)은 오히려 구룡령(九龍嶺)에 인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도상에서 도로의 표시는 유일하게 소동라령(所冬羅嶺)의 기능이 우선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설악산의 주봉에 근접한 오색령의 위치로 볼 때 지도상의 오색령은 현재의 한계령임이 분명하다. 『輿地圖書』의 관애조(關阿條)에는 오색령·필여령·소동라령·구룡령·형제현·양한치 등의 여섯 항목이 나열되어 있다. 여기에서 오색령·필여령·소동라령의 세 기록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五色嶺 在府西五十里卽是雪嶽南枝接麟蹄界

彌如嶺 在府西四十里卽五色嶺南枝接春川嶺界

所冬羅嶺 在府西六十里卽彌如嶺南枝接俱麟界

이러한 기록을 참조하면 양양부(襄陽府)에서 인제현(麟蹄縣)으로 이르는 관애(關?)는 북단의 오색령(五色嶺)에서 남단의 소동라령(所冬羅嶺)에 이르는 다양한 경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대동지지(大東地志)

1866년 양양 영로조(襄陽嶺路條)에는 연수파령·오색령·필여령·박달령·소동라령·구룡령·양한치·소랑치 등의 모두 여덟 개의 항목이 열거되어 있다. 여기에서 오색령(五色嶺)에 대한 설명은 필노령·박달영 등과 함께 되어 있고, 아울러 소동라령(所冬羅嶺)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五色嶺 彌奴嶺 朴達嶺 俱西五十里麟蹄界.

所冬羅嶺 西六十里絕險舊有通京大路麟蹄界.

옛날의 소동라령(所冬羅嶺)에는 경사(京師)서울로 통하는 대로(大路)가 있었다. 그런데 『대동지지(大東地志)』의 인제(麟蹄)의 영로조(嶺路條)에는 연수파령·오색령·필노령·박달령·진부령·선유령·흘이령·소파령·회전령·응봉령·탄령·건이령·두모현·사라치 등이 열거되어 있는데, 양양(襄陽)과 연결되는 것은 오색령·필노령·박달령 등의 세 영(嶺)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대동지지』의 기록을 보면 당시에는 소동라령(所冬羅嶺)보다는 오색령(五色嶺)이 인제와 양양을 잇는 주요 통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대동지지 권27(大東地志 卷二十七)의 정리고(程里考)에 “경도(京都)를 기점으로 전국으로 통하는 십대로(十大路) 중 동남쪽 평해까지 대로(東南至平海大路)의 기록을 보면 홍천(洪川)의 가노진(加奴津)에서 인제(麟蹄)는 10리, 인제에서 서울까지는 360리요, 인제에서 동쪽 오색령(五色嶺)까지는 70리, 오색령에서 양양(襄陽)까지는 50리로 구대로(舊大路)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당시의 오색령은 경도(京都)에서 출발하여 평해에 이르는 주요대로(主要大路)였다는 것이 명확히 밝혀졌다.

加奴津十里 麟蹄十里京三百六十里 ○東五色嶺七十里襄陽五十里舊大路

(3) 관동읍지(關東邑誌)

관동지의 편찬 시기는 명기되어 있지 않아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관동읍지(關東邑誌) 1871년의 선생안(先生案)에 군수의 도이임(到移任) 년월이 기록된 읍지가 14개나 있다. 이를 토대로 비교해 보면 각 읍지를 종합하여 성책(成冊)한 것은 1829년에서 1831년 사이로 추정된다. 관동지는 총1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13권에 양양(襄陽)과 간성(杆城)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영로(嶺路) 연수파령은 서북쪽 75 리에 있으며 오색령·필노령·박달령은 모두 서쪽 50 리에 있는 인제계(麟蹄界)이다. 소동라령(所冬羅嶺)은 서쪽 60 리에 있는 험한 절벽지로 경성으로 통하던 대로로 인제계(麟蹄界)이

다. 구룡령(九龍嶺)은 서남쪽 60 리에 있으며 강릉계(江陵界)이다

嶺路連水坡嶺西北七十五里五色嶺彌奴嶺朴達嶺俱西五十里麟蹄界所冬羅嶺西六十 里絕險舊有通京大路
麟蹄界九龍嶺西南六十五里江陵界.

(4) 양주읍지(襄州邑誌)

1823년 양주읍지(襄陽邑誌)에 “오색령(五色嶺)은 부(府) 서쪽 70 리에 있으며 이를 경유하여 서울로 들어간다. 이는 미시령 길에 비해 50 리나 단축되는데 영(嶺) 아래에 예전에 역(驛)이 있었으나 관터는 비어있다. 골짜기와 냇물이 험하여 간성의 원암(元巖)으로 역을 옮겼다. 영의 북쪽에 온천이 있는데 우윤 박필정(조선 영조때의 인물로 양양부사와 한성부 우윤을 역임)이 이르기를 고성의 온정 온천수보다 못지않다고 하였다.” 라고 기록되어있다.

五色嶺在府西七十里由此入京則比彌坡路短五十里嶺下舊有驛基館墟移峽川之
險移驛於杆城之元巖嶺之稍北有溫泉朴右尹弼正以爲湯水之效無減於高城井云.

(5) 강원도지(江原道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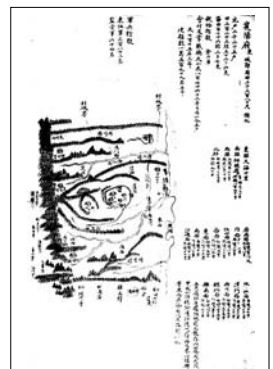
1940년 강원도지에 “오색령(五色嶺)은 부(府) 서쪽 70 리에 있으며 이를 경유하여 서울로 간다.”……라고 적었다.

五色嶺在郡西七里由此入京則比彌坡路短五里嶺舊有驛基館.墟以峽川之險移驛于杆城元岩嶺之稍北有溫泉
諺傳古有此嶺一木開五色花見之者長生不老近世此花潛影不見只有藥水湧出飲者得效大正己卯郡守全在
禹使人探查得一木開青黃赤三色花移植則枯死故於本生地培養繁殖而方探五色花木也

3) 고지도(古地圖)에 나타나는 五色嶺

(1) 해동지도(海東地圖)

1750년대 초에 제작된 회화식 군현지도집이다. 해동지도에 있는 문장들을 풀어보면 조선 태조 6년(1397년)에 양양부로 승격되었으며 태종 16년(1416년)에 양양으로 개칭되었다. 현재의 강원도 양양군 일대와 속초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양양읍 군향리가 그 중심지가 된다. 지도 위쪽의 소천면(所川面)과 도문면(道門面)이 현재의 속초시(東草市)에 해당하며 지도 아래쪽의 동산현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양양에 포함된 땅으로 양양군 현북면 지역이다. 청초호(靑草湖), 쌍호(雙湖) 등의 석호(濕湖)가 발달한 지역으로 지도에 표시되어 있다. 지도 왼쪽 위는 설악산 일대이며 오색령·박달령·조침령·구룡령 등의 고개는 양구·인제·춘천과 통하는 통로가 된다. 동해모(東海廟)동해신



사, 양양읍 조산리는 나라에서 봄가을에 향과 축을 내리어 동해신(東海神)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낙산사를 비롯하여 신흥사·영혈사·개운사·명주암 등의 사찰이 있었다. 양양을 중심으로 표기된 영(嶺)을 보면 오색령(인제계)·박달령(춘천계)·조침령(춘천계)·구룡령(강릉계)순으로 기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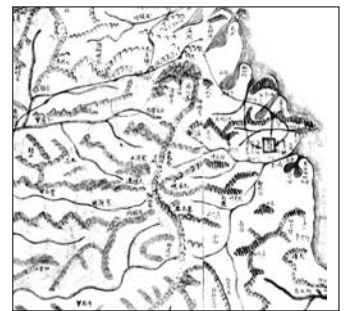
(2) 광여도(廣輿圖)

양양부(襄陽府)는 양양군과 영랑호 남쪽의 속초시에 해당하며 읍치(邑治)는 양양읍 군향리·성내리 일대이다. 고을의 진산(鎭山)은 읍치의 서북쪽에 있는 설악산(雪嶽山)인데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오색약수로 유명한 오색령(五色嶺)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읍치에는 토축(土築)과 석축(石築)이 섞여 있었던 읍성이 있었음이 지도에도 보인다. 읍성의 오른쪽에는 동해묘(東海廟)가 표시되어 있는데 동해신에게 제사 지내던 곳으로서 사전(祀典)에는 중사(中祀)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 위쪽에는 신라의 의상(義湘)625-702년에 의해 창건되었다는 낙산사(洛山寺)가 있고, 150m 아래쪽 절벽 위에 지어졌다는 의상대(義相臺) 등이 표시되어 있다. 또한 서쪽의 백두대간 부근에도 신라 신문왕 9년(689년)에 원효대사가 창건하였다는 영혈사(靈穴寺)를 비롯한 사찰의 표시가 있다. 읍치 아래쪽에 있는 상운역(祥雲驛)은 15개의 속역(屬驛)을 거느린 찰방역이며 해안가에는 석호(濕湖)에 해당하는 청초호·쌍호·포마호(靑草湖·雙湖·浦麻湖) 등이 보이고 있다. 지도 아래쪽의 동산현(洞山縣)은 고려 초에 병합된 폐현을 가리킨다. 양양을 중심으로 지도에 표기된 영(嶺)을 살펴보면 오색령(인제계)·박달령(춘천계)·조침령(춘천계)·구룡령(강릉계)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3) 청구도(靑邱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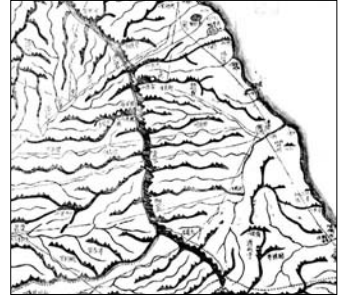
조선순조 34년(1834년) 고산자 김정호가 제작한 조선 지도책이다. 전국을 남북 29층, 동서 22관으로 나눈 방안지도(方眼地圖)로서, 방안의 실제거리는 남북이 100 리, 동서가 70 리이다. 지도의 내용으로 읍치 산천 군현경계 도로 면 창고 서원 향교 누정 역 고개 교량 봉수 도서 진 시장 등이 그려져 있는 전국지도로서 대동여지도 제작의 바탕이 된 지도라는 데 의의가 있다.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양양을 중심으로 한 지도에 표기된 영(嶺)을 살펴보면, 오색령·형제현·연수령 조침령·소동라령(險阻而廢)·구룡령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4)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고산자 김정호(金正浩)가 철종 12년(1861년)에 제작한 우리나라의 대축적지도이다. 대동여지도는 순조 34년(1834년)에 김정호 자신이 제작한 『청구도』를 27년 후에 증보 수정한 대축적지도로 분첩 절첩식 지도첩이다. 우

리나라의 남북을 120리 간격으로 22층으로 구분하고, 동서를 80리 간격으로 끊어 19판으로 구분했다. 동서방향은 구획된 판을 접어서 연결시켜 1첩으로 만들어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남북은 동서의 방향을 연결시킨 각 첩을 펼쳐서 순서대로 이어 대면 연속된 남북을 볼 수 있도록 한 전국지도이다. 양양을 중심으로 일부분의 영(嶺)을 살펴보면 오색령·필여령·구룡령 세 개의 영(嶺)이 북에서 남으로 차례로 열거되어 있다.



(5) 양양읍지도(襄陽邑地圖)

1872년의 지방지도(총459매)는 병인 신미 두 차례의 양요를 겪은 후 국방을 강화하고 사회 경제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작되었다. 읍치의 관청 건물과 각면의 소속 동리와 같은 행정적 요소 창고 장시 역원 도로와 같은 사회경제적 요소 제단 누정 서원 고적과 같은 문화적 요소 등이 망라되어 지방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동해신묘의 규모와 낙산사 관음굴 의상대가 두드러지게 표현된 것이 특징이다. 양양읍 지도에는 북쪽에 오색령·필여령·조침령·구룡령 등의 네 개의 영(嶺)이 기록되어 있으며, 인제현(麟蹄縣) 지도에는 동쪽으로 오색령(五色嶺) 양양계(襄陽界)라 하여 오색령(五色嶺)이 양양에 이르는 주요 통로임을 기록하고 있다.



(6) 其他地圖

조선중기 이후 한결같이 오색령으로 표기된 지도는 총43개로 조사 되었다. 이 중 앞에 기록된 해동지도 광여도 청구도 대동여지도 양양읍지도 등 5개지도 외에 38개 지도를 열거하면 관동지도(1712년, 古4709-35) 여지도(1736~1767년, 古4709-68, 양양부, 인제현) 비변사인방안지도(1745~1765년) 해동지도(1750년, 강원도, 인제현) 조선지도(1750~1768년, 奎16030)선역도(1760년대) 팔도분도(1758~1767년) 팔도지도(1758~1767년, 古4709-23) 팔도지도(1767~1778년, 古4709-14) 동역도(1767년, 古4709-27)지승(1776년, 奎15423, 강원도, 양양부, 인제현) 조선팔도지도(古屏912.51-J773-강원도.황해도) 조선팔도지도(1776~1785년, 古4709-54, 강원도) 좌해분도(古4709-99) 팔도지도(1790년, 古軸4709-48)여지도(1789~1795년, 古4709-78)여지도(1795~1822년, 古4709-37) 해동지도(1800~1822년, 古4709-61, 강원도) 광여도(1800년, 古4790-58, 관동도, 인제현) 좌해지도(1830년, 奎12229) 청구도(3책제15층9판) 청구요람(1834년) 청구요람(1책제15층9판) 대동방여전도(12첩2면, 강원도) 동여도(1857년) 1872년 지방도(인제현) 지도(古4709-92, 강원도) 해좌전도(1849~1863년) 조선여지도(1894년) 조선전도(1894년) 대한전도(1899년) 대한지지(1906년) 대한신지지부지도(미상)등이다.

4) 일제강점기 신문 및 관보 등(日帝強占期 新聞官報 等)

(1) 동아일보 기사

1932년 3월 15일[소화(昭和) 7년 3월 15일] 동아일보 기사에 “인양선도로문제(麟襄線道路問題)로 동민, 당국(洞民當局)에 진정 오색령으로 고쳐달라고 800명 동민연서(洞民連書)로”란 제목으로 대서 보도되었다. 기사내용은 인제군 주민 800명이 연서하여 인제군 북면 원통리를 중심으로 오색령을 관통해 달라고 인제군과 강원도당국에 진정서를 제기하였다.

(2) 조선총독부 관보

조선총독부관보에 1913. 1. 15.자로 강원도의 3등 도로(道路)를 다음과 같이 정하다. 울진~죽변 간, 강릉~견소진 간, 양양~인제 간(藥水里 五色嶺 魚頭里 經由)… 라 게재하여 있다.

(3) 개벽

개벽 제42호 1923년 12월 1일 기사제목 조선의 처녀지(處女地)인 관동지역 란에 인정, 풍속, 언어 상술함과 여히 영동, 영서는 지세 급(及) 기후가 상이할 뿐 아니라 교통이 전혀 격절상태(隔絕狀態)에 재 하얏슴으로 인정, 풍속, 언어 등이 또한 상이하다. 즉 영동의 울진, 삼척, 강릉은 대개 경상도와 갖고, 양양, 고성(杆城合郡)은 영서와 갖고 [고대(古代)로 오색령을 통하여 영서의 교통이 빈빈(頻頻 : 잦은)한 소이(所以 : 모양) 통천은 함경남도과 갖고 영서의 이천 평강은 황해도와 비스나고 기타 제군(諸郡)은 경기, 충청도와 비스나다 총괄하여 말하자면 강원도의 인정, 풍속, 언어는 무슨 특색이 업다.

개벽 제42호 1923년 12월 1일 기사제목 관동의 흑산국 양양군(關東의 黑山國 襄陽郡) 란에 시사문제는 오색령 도로문제(五色嶺道路問題)와 송계문제(松稷問題)가 최중요(最重要)하나 오색령문제는 대개(大槩) 민간요구와 여히 귀착(歸着)되야 현재 측량에 착수중이오 송계문제(松稷問題)도 관민간 다소충돌(多少衝突)되나 미구(未久)에 원만해결(圓滿解決)될 것이다.

개벽 제62호 1925년 8월 11일 기사 내용을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몇 마디만 적어보자. 만호(萬戶) 미만인 양양 주민 부담으로 20만원 거금을 판출(辦出)하야 五色嶺을 2等 道路로수축(修築)하야 양양의 교통과 발전을 도모(圖謀)한다는 절대불가능의 미명하(美名下)에서 소위 유지기인(有志幾人)이 기성회(期成會)를 조직하고 총독부당국(總督府當局)에 허가를 얻는다고 하야……오색령도로반대(五色嶺道路反對)를 결의하고 도당국과 총독부(總督府) 당국에 진정서까지 제출하야서 대소동(大騷動)을 일으키든 것이……

2. 한계령으로 地名 變更記錄

1) 日帝强占期 寒溪嶺으로 歪曲

한계령(寒溪嶺)은 일제(日帝)가 멋대로 땅이름을 바꿔놓은 왜곡의 표본사례이다. 1914년 이전 일제 강점기 조

선충독부에서 발행한 전국의 지명과 지지사항(地誌事項)중 양양군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양양군 서면 오색령을 인제군 북면 지역에 표기하고, 한계령은 양양군 서면지역으로 변경 표기함으로써 우리 전통고유 지명인 오색령을 한계령으로 뒤바꿔 놓은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로는 신종원(한국학중앙연구원교수)의 강원도 땅이름의 참모습-《朝鮮地誌資料》강원도편-(경인문화사) 420쪽 인제지도 북면 동쪽으로 오색령이 표기되어있다. 양양지도에는 오색령이 없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형제현(兄弟峴), 연수파령(連水坡嶺), 조침령(阻沉嶺), 구룡령(九龍嶺)으로 표기되어있다. 『朝鮮地誌資料』 강원도편 421쪽에 수록된 지명은 인제군 북면 강천계간명(江川溪澗名)에 오색천(諺文:오식이니)이 한계리 자양곡(紫陽谷)에 속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표 2>참조. 423쪽의 인제군 북면 영치현명(嶺峙峴名)에 오색령(諺文:오식이영)이 한계동(寒溪洞) 자양동(紫陽洞)에 속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840쪽의 양양군 서면 영치현명(嶺峙峴名)에 한계령(諺文:한계영)으로 적고, 비고란에 서면 오색리로 기록하였다<표 4>참조. 조선지리지(朝鮮地誌資料)의 각 쪽별의 세부 자료는 중·하략(中下略)하였다.

〈표 2〉 조선지리지자료(인제 421쪽)

面別	種別	地名	諺文	備考
北面	江川溪澗名	魚隱川	어 은 니	寒溪洞瓦川
		牛足川	쇠 발 골 니	寒溪洞牛臥里
		玉女川	옥 여 니	寒溪里紫陽谷
		五色川	오 식 이 니	寒溪洞紫陽谷
		鰲川江	연 천 강	魚頭里
		紅峰沼	홍 봉 소	嵐橋里

〈표 3〉 조선지리지자료(인제 423쪽)瓦川酒幕寒溪洞

面別	種別	地名	諺文	備考
北面	酒幕名	瓦川酒幕	지 니 주 막	寒溪洞
		鳥谷峴	시 골 고 기	元通里
		大勝嶺	디 승 영	寒溪洞紫陽谷
		五色嶺	오 식 이 영	寒溪洞紫陽谷
		加里嶺	가 리 산 영	寒溪洞牛足洞
		麻田峴	삼 밧 치 고 기	寒溪洞魚隱洞

〈표 4〉 조선지리지자료(양양 840쪽)

面別	種別	地名	諺文	備考
降仙面	峯峙峴名	塩 峙	소 금 지	降仙面 中福里
西 面		三 發 峙	삼 발 리 지	西面 内峴里
		寒 溪 峯	한 게 영	西面 五色里
		弼 如 峯	필 여 영	西面 五色里
		朴 達 嶺	박 달 영	西面 五色里
		兄 弟 峙	형 제 고 지	西面 五色里

2) 일제강점기 한계령으로 變更

지도상에 한계령으로 단독표기 된 것은 1915년 발행된 조선총독부지도가 최초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930년(昭和 5年 4月)에 발행한 한국근대지리지자료(韓國近代地誌資料)의 인제군세 일반(麟蹄郡勢一斑) 지도[(地圖)1/200,000]에는 설악산과 그 아래 영로는 한계령(寒溪嶺)·단목령(檀木嶺)·조침령(鳥砮嶺)순으로 표기되어 있다. 위의 자료를 통해 볼 때 오색령이 지도상에서 완전 삭제되고 한계령으로 표기한 시점은 이때부터 임을 알 수 있다.

3) 일제강점기 오색령 명칭 계속사용

조선총독부는 조선지리지자료(1914년 이전)·조선총독부발행지도(1915년)·한국근대지리지자료(1930년)에 한계령으로 변경표기 한 것과는 관계없이, 총독부관보, 개벽(월간종합지), 동아일보 신문기사, 강원도지 등에 오색령 명칭을 통상적(通常的)으로 사용해 왔다. 그 실례를 보면 “조선총독부관보(1913년 1월 15일)에 강원도 3등 도로를 다음과 같이 정하다 에서 양양·인제 간(약수리 오색령 어두리 경유)……” “동아일보기사(1932년 3월 15일)인 양선도로문제에 동민, 당국에 진정 오색령으로 고쳐달라고……” “개벽 제42호(1923년 12월 1일)기사제목 조선의 처녀지인 관동지역 란에……(古代로 五色嶺을 통하야 嶺西의 교통이 頻頻한 所以)……” “개벽 제42호(1923년 12월 1일)관동의 흑산국 양양군(關東의 黑山國 襄陽郡) 란에 시사문제는 오색령도로문제와 송계문제(松嶺問題)가 최중요하나 오색령문제는……” “개벽 제62호(1925년 8월 11일) 만호(萬戶) 미만인 양양주민 부담으로 20만원 거금을 판출(辦出)하야 오색령을 2등 도로로 수축(修築)하야……” “강원도지(1940년)에 오색령은 부 서쪽70리에 있으며 이를 경유하여 서울로 간다.”라고 적었다. 등이다.

4) 정부수립이후 한계령으로 命名한 誤解

정부수립이후(政府樹立以後) 공식적(公式的)으로 한계령 명칭을 사용한 것은 1961년 4월부터이다.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에 소장(所藏)된 한계령(寒溪嶺) 지명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인제군은 1959년 3월에 지명조사 실시하여, 동년 3월 27일 지명제정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동년 4월 1일 지명승인 신청 한 것으로 기록되었

다. 한계령 지명의 유래는 “영동과 통하는 오색이영의 낮은 영으로서 한계지역에 있다하여 한계령(寒溪嶺)이라고 하나 오색이영 이라고도 함”이라고 보고 하였다. 국무원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구역이외의 표준지명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이를 사용한다.”라고 국무원고시 제16호(1961년 4월 22일)로 전국의 지명을 고시 할 때 한계령(寒溪嶺)도 함께 표기되었다.

설악산 횡단도로 개축공사(改築工事)는 육군공병부대가 2차에 걸쳐 실시한 바 있다. 1차 공사는 육군 제3군단에 의해 1963년에 완공하였고, 2차 공사는 육군 제5289부대에서 1971년에 각각 완공하였다. 군부대에서 공사를 완공한 이후 당시 일반사회에서 전반적으로 통용되던 오색령을 갑자기 한계령이라 부르게 되니, 일반사회에서는 군부대와 관련된 것이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일제가 임의로 지도상에 오색령(五色嶺)을 한계령(寒溪嶺)이라 바꿔 표기했던 것을 바르게 고치지 않고 비판 없이 그대로 표기한데서 온 오해(誤解)이다.

3. 오색령 · 한계령 考證 比較

앞에서 오색령에 관하여 고문헌(古文獻) · 고지지(古地誌) · 고지도(古地圖) 등 역사적으로 고증(考證) 된 기록들과 일제강점기(日帝強占期) 및 정부수립(政府樹立)이후 오색령(五色嶺)이 한계령(寒溪嶺)으로 지명(地名)이 변경된 기록을 각각 살펴보았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비교하기 위한 표는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표 2〉 오색령 · 한계령 考證 比較

五色嶺			寒溪嶺		
年 代	地名表記根據	地 名	年 代	地名表記根據	地 名
古 文 獻			日帝強占期		
1596	宣祖實錄	五色嶺	1915	朝鮮總督府發行地圖	寒溪嶺
1602	李光胤先生年譜	〃	1930	韓國近代地誌資料(地圖)	〃
1691	谷雲集權之四	〃	政府樹立以後		
1691	養窩集	〃	1950	美軍事地圖	〃
1712-1781	山經表	〃	1961	國務院告示	〃
1713	沈鎔의 楓嶽錄	〃	1966	國土情報地理院地圖	〃
1709	峴山三十詠	〃	1967	國防部測地部隊地圖	〃
1664-1732	金剛山總記	〃			
1723-1801	海左鄭範祖詩文	〃			
1776	燃藜室記述別集	〃			
1751	擇里志	〃			
1760-1839	記關東山水	〃			
1762-1836	茶山詩文集	〃			
1808	萬機要覽	〃			

五色嶺			寒溪嶺		
1896	關東倡義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古文獻에 나타난 五色嶺 以前은 所率嶺으로 부른 것으로 推定됨. ○ 조선 철종 8년(1857년) 大東輿地圖를 만들기 전에 底本地圖인 東輿圖에 한 차례 五色嶺 위 북쪽지점에 寒溪嶺 이라 표기된 바 있으나 양양군 소천면은 현재의 속초구역임 지금의 한계령과는 거리가 멀다. ○ 1913년 조선총독부관보 오색령 기록 ○ 1923년 개벽 42호 오색령 “ ○ 1932년 동아일보기사 오색령 		
1908	增補文獻備考	〃			
地誌資料					
1757	輿地圖書	〃			
1866	大東地志	〃			
1823	襄陽邑誌	〃			
1871	關東邑誌	〃			
地圖資料					
1730년대	輿地圖	〃			
1747	關東地圖	〃			
1750	廣輿圖	〃			
1750	海東地圖	〃			
1758-1793	東域圖	〃			
1767-1778	八道地圖	〃			
1787-1795	左海分圖	〃			
1830	左海地圖	〃			
1834	靑邱圖	〃			
1857	東輿圖	〃			
1861	大東輿地圖	〃			
1872	襄陽邑地圖	〃			
1894	朝鮮輿地圖	〃			
19세기제작	大東方輿全圖	〃			
위의 지도 외에 29개 더 있음			〃		

Ⅲ. 오색령 地名 復元의 當爲性과 復元節次

1. 오색령 지명 복원의 당위성

지금의 한계령(寒溪嶺)은 오색령(五色嶺)이다. 오색령이란 지명의 효시(嚆矢)는 조선 선조실록(1596년)에 처음 등장하여, 이때부터 계속 오색령으로 불리어 왔다. 이곳은 행정구역상으로 양양군에 속해있다.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24번지) “오색령(五色嶺)은 강원도 양양군 서쪽 23km지점에 있는 고개, 이 고개를 넘으면 인제군에 이른다. 고개아래에는 옛날의 역원(驛院)이 있었다. 한편 협천(峽川)이 협하여 역(驛)을 간성(杆城)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 고개의 조금 북쪽에는 온천(溫泉)이 있다.”라고 기록되었다. ((김익달(金益達)『대백과사전(大百科事典)』, 4권 783쪽 참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문헌·지지자료·지도에 한결같이 오색령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양양에서 인제로 넘어가는 영로(嶺路)는 각종문헌을 통해서 볼 때 대표적으로는 소동라령(所冬羅嶺)과 오색

령(五色嶺)이 있었다고 하겠으며, 동여도(東輿圖)에 오색령(五色嶺)은 고대로(古大路)라 병기(併記)되어 있다.

오색령은 “양양사람들이 설악산을 넘어서 인제군이나 서울로 갈 때 주로 이용되던 험한 산길이었다. 조선시대 까지만 해도 이곳에는 산 도둑이 들끓어 해가지면 이 고개를 넘지 말라는 뜻으로 양양군 서면 오가리(오색리)의 길 옆 바위에 금표(禁標)라고 새겨두었다. 지금도 그 바위가 있으며 한계령에 오르는 길에는 금표교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음 백과사전 참조> 현행사용 되는 지도상에 양양군과 인제군의 경계는 영(嶺)마루 선이 아닌 인제군의 한계천(寒溪川) 마지막 지계곡인 도둑바위 골로 100여m내려간 곳이다. 도둑바위 골에 대한 유래는 알 수 없으나, 금표암과 도둑바위 골이 현재까지 상존하는 것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동·서 영로(嶺路)임을 입증하는데 또 하나의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조선중기를 전후하여 소동라령(所冬羅嶺)이 도로(道路)의 기능을 상실하자, 오색령은 새로 개척한 도로상에 위치한 영(嶺)으로 분명히 소동라령(所冬羅嶺)과는 별개의 지명이다. 후자는 소동라령이 현재의 한계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지도(輿地圖1736-1767년)·해동지도(海東地圖1678-1752년)·팔도지도(八道地圖1767-1778년)·좌해분도(左海分圖1787-1795년)·청구도(靑邱圖1834년)·좌해지도(左海地圖1830년) 등에는 오색령과 소동라령은 전혀 다른 위치에 표기 되어있다. 북쪽의 오색령(五色嶺)은 설악산의 주봉에 가장 가깝다. 이로써 보면 오색령(五色嶺)과 소동라령(所冬羅嶺)의 거리는 상당히 떨어져 있으며, 소동라령(所冬羅嶺)은 오히려 구룡령(九龍嶺)에 인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악산의 주봉에 근접한 오색령의 위치로 볼 때 지도상의 오색령은 현재의 한계령임을 분명하다.

반면 한계령이란 명칭이 한 때 동여도에 표기 되었다가 대동여지도에서는 삭제된 지명이었지만, 동여도(東輿圖)상에 표기 된 한계령로(寒溪嶺路)는 양양군 소천면(所川面)지금의 속초시지역)의 소양치 위쪽을 지나 인제군 북면 백담사를 경유하여 남교리(嵐校里)로 연결 된 도로로 현재의 한계령 도로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계령 명칭으로 표기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일제는 조선지리지(1914년 이전)에 오색령(五色嶺)은 인제군 북면 자양동에 속한 것으로 기록하고, 한계령(寒溪嶺)은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 속한 것으로 뒤바뀌 놓았다. 조선총독부발행지도(1915년)에 한계령으로 단독 표기하였다. 한국근대지리지(1930년 4월)인제군세일반(麟蹄郡勢一斑)지도에는 오색령(五色嶺)은 완전히 삭제되고 한계령(寒溪嶺)으로 일원화(一元化)하였다. 한편 조선총독부는 지도상에 표기된 한계령 명칭과는 관계없이 오색령이란 지명을 통상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대다수의 주민들은 일제가 지도상에 한계령으로 표기한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강점기에 오색령 명칭을 사용한 자료를 보면, 조선총독부관보(1913년), 개벽 42호(1923년), 개벽 제62호(1925년 8월 11일), 동아일보기사(1932년) 강원도지(1940년)등이다.

정부수립이후 1959년도 국무원에서 전국의 지명조사 당시 군(郡)에서 보고 된 조사서식을 보면 지도상 기재 된 지명, 경위도, 좌표, 지명유래 순으로 기록토록 되어 있다. 이 보고서식으로 보아 이미 지도상에 표기된 지명 외에는 기초조사 기관의 재량권이 결여 된 것이 아닌가 본다. 따라서 한계령지명이 현재까지 기록유지 된 소이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왜곡된 지명이 복원되지 못한 상황에서 6·25한국전쟁을 맞게 되자 1950년도 미군 사지도 제작 시 일본총독부의 지도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전쟁과정에서 지도제작은 불가하기 때문이다. 또 1959년도에 한국 지명조사 실시 당시 조사서에 첨부된 지도 역시 제작 근거자료가 없는 점으로 보아 1950년대 미 군사지도를 참작하여 정부(국방부)에서 제작된 지도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유추해 본다. 이상을 종합 할 때 소동라령(所冬羅嶺)과 오색령(五色嶺)은 별개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과, 일제 강점기 이후에 오색령을 한계령으로 표기하였다는데, 이의가 없을 것으로 본다. 지명은 옛 문화를 간직한 인문학적 유산임을 감안 할 때, 역사적으로 고증된 자료를 토대로 잘못 기록된 것을 바로잡아서 후손들에 물려주는 작업은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2. 現行法上 地名 復元節次

자연지명은 개별법에서 정한 이외의 마을·산·고개·나루터·폭포·굴·섬 등으로 국토해양부의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9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자연지명이라 하더라도 하천은 하천법, 국립공원에 관한 명칭은 자연공원법, 관광지 등은 관광진흥법에서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 되어 있다.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단체, 개인 또는 일반법인 이 지명제정·변경·폐지 등에 대하여 지명의 유래, 지형 특징, 역사적 사실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제안 또는 발의 가능하며, 절차상으로 당해 지명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도 지방지명위원회에서 조정, 심의 후 최종적으로 국토해양부의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고 지도에 표기 또는 수정 된다.(국토지리정보원)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5>참조.

〈표 5〉 지명 복원 절차법 요약

제안·발의	1차 심의	2차 심의	최종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 시민단체 ○ 개인·법인 	시·군·구 지명위원회	시·도지명위원회	국토해양부의 국가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고 지도에 표기 또는 수정.

IV. 맺는 말

이상 앞에서 논의 한 바와 같이 현재의 한계령은 고문헌·지지자료·지도에 한결같이 오색령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민족혼 말살에 혈안이 되었던 일제는 오색령을 한계령으로 멋대로 땅이름을 바꿔놓은 이른바 창지개명(創地改名)사례라 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는 1914년 이전에 조선총독부에서 발행된 조선지지자료 내용을 살펴보면 양양군 서면의 오색령은 인제군 북면 자양동 자양곡에 소재 지명으로 표기하고, 한계령은 양양군 서면 오색리 소재 지명으로 변경하여 표기하였다.

조선 중기이후 발행된 43개의 고지도에 표기된 영(嶺)의 명칭 중 변천된 내용을 양양을 중심으로 몇 개소 살펴보면, 진부령이 진보령으로 미시령이 미시파령으로 필여령이 필노령으로 지명이 일시 변경되었다가 복원된 사례와, 소동라령, 한계산 처럼 당시의 사정에 의하여 없어진 예는 있었지만, 오색령과 같이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유지되어온 지명이 일제 강점기에 인제군 지역으로 속하였다가 사라진 예는 극히 찾아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왜곡행태의 예라 할 수 있다.

1930년(昭和 5年 4月)에 발행된 한국근대지지자료(韓國近代地誌資料)의 인제군세 일반(麟蹄郡勢一斑)지도에는 설악산과 그 아래 영로로 한계령·단목령·조침령으로 표기되어있었고, 오색령은 완전히 지도상에서 삭제된 채 한계령으로 일원화 된 것을 볼 수 있다.

정부수립이후 공식적으로 한계령 명칭이 사용된 것은 1961년 4월 22일 국무원고시 제16호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구역이외의 표준지명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이를 사용한다.”라 고시 할 때 한계령명칭이 함께 고시(告示)되었다.

우리가 용인(容認)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점이다. 오색화(五色花)에서 유래하여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 아름다운 오색령은 기암절벽과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반면 몹시 추웠던 것을 되새겨 한계(寒溪)란 명칭을 가졌다고 전해지는 한계령은 우리 지역 정서와는 상관없는 지명이다.

강점기에서 해방 된지 올해가 66년이다. 일제가 자기들의 통치 상 편의에 맞춰 왜곡시킨 지명을 현재까지 고치지 못하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지명은 옛 문화를 간직한 인문학적 유산임을 감안할 때, 우리 윗대가 광복이 되자 일본식 이름을 버리고 본디 이름을 찾았듯이 강점기에 창지개명 된 한계령을 우리의 고유지명인 오색령으로 바로 고쳐서 후손에 물려주어야 한다. 이 작업(作業)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과제(課題)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팔곡집(八谷集)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 양서 이광윤 선생년보(襄西 李光胤 先生年譜)
- 곡운집 권지4(谷雲集 卷之四)
- 명암집(鳴巖集)
- 양와집(養窩集)
- 풍악록(楓嶽錄)
- 연려실기술별집 제16권(燃藜室記述別集 第16卷)
- 택리지(擇里志)
- 다산시문집 제7권(茶山詩文集 第7卷)
- 해좌선생문집(海左先生文集)
- 기관동산수(記關東山水)
- 만기요람(萬機要覽)
- 금강산총기(金剛山總記)
- 산경표(山經表)(1996.3월 산림청발간 백두대간 문헌정리요약)
- 관동창의록(關東倡義錄)
- 증보문헌비고 권28(增補文獻備考 卷二十八)
- 여지도서(輿地圖書)
- 대동지지(大東地志)
- 관동읍지(關東邑誌)
- 양주읍지(襄州邑誌)
- 강원도지(江原道誌)
- 동아일보 기사(1932년3월15일)
- 조선총독부 관보(1913년1월15일)
- 개벽 제42호(1923년12월1일)
- 개벽 제62호(1925년8월11일)
- 조선지지자료

「양양지방의 유희요(遊戱謠)와 조화율동(調和律動)」



이재풍 | 양양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연구원

1. 여는 글

1. 취지와 목적

인류는 역사가 시작되면서 생존방법의 일환으로 최초 수집·채집활동을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생필품을 해결하여오다가 어느 시기에 일정한 곳에 정착된 환경 속에서 농경문화권 형성으로 定住生活을 하여 왔음이

역사의 한장인 것입니다.

이때 고단한 심신을 잠시나마 장막에 앉아 한날 한날을 열고 펴며 정리하면서 내일을 기약하게 되겠는데 즉 희·노·애·락의 조화로움에서 새 힘을 얻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응얼땀, 흥얼땀, 어울림, 두드림 속에서 입 밖으로 튀어나온 언어의 高低長端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흐르는 세월따라 소위 口碑文學(노랫말=가사)에 민속음악(곡조)으로 남게 된 것이 民謠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민요는 민간에 의하여 구전되어 오는 동안 저마다의 독창적 특징으로 씨족, 부족, 민족 그리고 국가에서 거둬하는 동안 양면성을 가지고 입에서 입으로 또는 몸에서 몸으로 계승된 하나의 '구비전승' 이란 이름을 남게 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어떤 정연한 형식의 것도 기록문명, 찬란한 문화의 차원도 아닌 오직 생활의 연장선상에서 고을마다 어떤 특징도 함께 품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성은 분명 있겠으나 성별, 연령, 장면따라 각기 다른 점 또한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인류역사와 때를 같이 한 자기 표현적 본능에서 출발하여 언어예술로 상상의 세계에 몰입하여 사상과 정서의 표현을 가져왔겠으며 그 기능면에서는 敎示의 快樂의이었으며 그야말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침 없는 종합적이면서도 미적정서와 생활리듬의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만 오늘에 와서는 고도의 산업사회의 문화권에서 잊고 잃고 하는 경향도 분명 있다하겠습니다.

이에 우리네 정신문화의 遺産的 가치성을 한번쯤 생각하는 기회를 갖고 꾸준한 발굴과 정리 그리고 전승의 균형을 잡고 계속 정진하여 우리 양양인의 긍지와 자존의식 자료로 손색없게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이에 펴 나가려 하겠습니다.

1) 謠의 형태

세분하면 200여종이 된다 하겠는데 여기에 크게 분류하여 몇몇만 기록하겠습니다.

○ 性別

남자 - 노동요, 타령, 참요(讖謠), 警世요, 정치요, 情戀요

여자 - 노동요, 女歎요, 시집살이요, 情愛요

童謠

남자아이 - 諷笑요, 동물요, 식물요

여자아이 - 유희요, 자연요, 어희요, 연모요

자장가, 나물캐기요(채채요)

○ 그 밖에

儀式요, 輓歌, 民間信仰謠

2) 口演方式

독창, 교환창, 선후창

3) 기본음율

四四調와 四三調이겠으나 때로는 문장따라 반복구절이 많고 후렴이 붙어 운율적으로 부르기가 쉽다 되어 있다 하겠습니다.¹⁾

2. 方向

여러 형태와 다양한 유형의 민요 중 가장 우리네 마음과 마음을 잇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참다움을 발견, 인간성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함에 있겠고 그래서 가정과 이웃에 얽힌 구수한 내용을 의식하고서 우리고장 어디엔가 아직도 빛을 못보고 묻혀 있는 것과 간간히 생활속의 기억을 더듬어 되살린 유희요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또 일정한 곡조가 없더라도 처지와 환경에 따라 어떤 감각에 의하여 표현되는 동작 또한 찾고자 함에도 힘썼습니다. 그래서 순수 우리고장 특유의 다른 지방과 중복되지 않다고 생각되는 몇몇을 골라 소개하는 방향으로 제한 하고자 하였습니다.

3. 背景(내용 삭제)

1) 襄陽景觀

우리고장 양양을 누군가 입안의 침이 마르도록 일컫기를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주위 곳곳마다 풍류를 즐길 수 있는 살기 좋은 고을이라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기

1) 국사백과사전 동화문화사 1975. p514-515

억을 떠올려 봅니다.

그러기에 양양 부사로 온 李海朝(1709~1710)가 근무하는 동안 관내 30곳을 꼽아 소위 '峴山30景'으로 詩의表現 한 작품이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행정기관에서 '양양8경'을 선정하여 대대적 홍보자료에 큰 몫을 차지하게 하였습니다.

이렇듯 옛날부터 「양양아리랑, 양양8경가」등 주옥같은 노랫말들이 세월 흘러도 그 누가 일일이 지도 보급하지 않아도 면면히 계승되고 있습니다. 진정 그 속에 삶의 가치가 스며있고, 그런 장면이 놀이터, 일터, 가족모임의 어울림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희·노·애·락 조화하여 밝고 맑은 내일을 내다보게 하였습니다.

장소, 시간, 계층을 초월한 가운데 흥얼댐, 응얼댐이 즉흥적 발산으로 내뿜는 것 하나하나가 노래가 되고 희낙락이 되었습니다.

여기 우선 배경적 연출의 중심체가 될 수 있는 몇을 골라 내 놓습니다.

(1) 峴山30景(내용삭제)

(2) 襄陽8景(내용삭제)

(3) 양양노래

① 양양아리랑

1절. 설악산 중턱에 실안개 돌고
다늉집 문전에 건달이 돈다
아리 아리 아리 아리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2절. 낙산의 인경은 현산을 올리고
우리네 정든님 나를 올리네
아리 아리 아리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 작자 미상 -

② 양양팔경가

4. 用語의 定義

- 1) 유희요는 사전적 의미 그대로 여러 사람이 일정한 형식 없이도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노랫말을 지어 흥얼댐 내지는 高低長端에 맞춰 내려온 전통적 관습형이라 말할 수 있겠으며
- 2) 조화율동은 혼자이든 여럿이든 아니면 어떤 승부를 결정내고자 할 때 그 목적, 그 상황과 처지에 따라 잘 부합되도록 표현적 동작의 유연성, 민첩성을 강조하면서 흥겹게 가볍게 빠르게 소기의 성과를 얻고자 함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데 있다 보면서 찾아낸 조합적 복합적인 용어로 정의해 봅니다.

II. 펴는 글

1. 遊戲謠

- 목록 일람 -

1-1	손뽕치기	1-18	방귀놀이
1-2	다리세기	1-19	뚜거리 낚기
1-3	땅 뺏기 놀이	1-20	천렵장면
1-4	줄넘기	1-21	아기업고
1-5	소꿉놀이	1-22	재롱피우기
1-6-1)	미역 감고 나서	1-23	난다 긴다
1-6-2)	미역 감던 장면	1-24	수탉소리
1-7	널뛰기	1-25	암탉소리
1-8	부엉이	1-26	명태바리
1-9-1)	자장가	1-27	武運長久
1-9-2)	자장가	1-28	無題(6.25전쟁 중)
1-10	아가 힘 세우기	1-29	이(흙헐기생충)
1-11	웃음꽃	1-30	돌림놀이
1-12	풍물놀이	1-31	이 빠진 아이
1-13	핑서방	1-32	놀림가락

- 1-14 빼꾸기 1-33 언덕 오르는 화물차 보며
- 1-15 방아개비 1-34 한글 익히기 놀이
- 1-16 잠자리 1-35 잠깐 아이 보며
- 1-17 연날리기

1-1. 손뽀치기

세세세 아침바람
찬바람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
엽서 한 장 써주세요

두리 두리(둥글게 둥글게)
가위, 바위, 보.

※ ‘구리 구리 장깨이 뽀’ 라는 구절은 일본식 표현으로 보겠습니다.

가죽 또는 벗이 마주 앉아 나름대로 高低長短으로 손뽀 치며 노랫말을 읊습니다. 그러다 끝 무렵 ‘가위, 바위, 보’로 승부를 결정, 질 경우 이긴 사람의 무릎 사이에 머리를 묻습니다. 이때 재빠르게 열 손가락 중 하나를 예민한 뒷머리 푸욱 파인 곳을 꾸욱 누르고 나서 얼른 떼면서 손가락을 째악 퍼 보이면서 “어떤 것?” 또는 “요것?”하며 누른 손가락 알아 맞추기를 바랍니다. 참 정직했습니다. 서로 “아니아”도 할 수 있었으나 그대로 따릅니다. 이속에 참다운 인성교육의 한 장면을 꼽아 봅니다. 잠깐 시간내어 그리움이 아닌 기다림의 情, 넘치는 곱다란 마음 품는 장면 퍼기를 소망합니다.

1-2. 다리세기

- 1) 고모네 집에 갔더니
암탉 수탉 잡아서

기름 동동 뜨는 거
나 한 술 안 주고
우리 집에 와 봐라
팔죽 한 글 주나 봐.

- 2) 이童 저童 香氣童
文童아이 곱사童.

※ 주관적 입장에서「이 아이 저 아이 향기로운 아이 글 잘하는 곱다란 아이」로 의미부여 해 놓습니다. 잠깐 해학적 표현 방법으로 어젯일 되살린 웃음의 순간, 포착하시길 기대합니다.

방안이거나 바깥명석에 앉아 다리세기 놀이를 통한 두터운 우리네 愛情, 友情, 同情의 조화로움 다시 찾고자 노력 할 때입니다. TV에, 컴퓨터에 폭 빠져 삽니다. 풋풋한 사람 내음 되찾고자 나서야 되리라 봅니다.

1-3. 땡 뽀기 놀이

아이들 놀이의 한가지로 ‘말’을 툭겨 지경을 그어가며 상대편 땅을 뽀어 나가는 놀이입니다. 그때 말(퉁개미)이 꼭 필요한데 그것을 조심스럽게 동그랗게 엮전 크기만큼 돌로 살짝살짝 쫘아 만들 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르던 노랫말.

조금 조금 먹어라
내일 모레 장날에
떡 사 줄게
조금 조금 먹어라.

이렇게 주어 온 사금파리나 옹기조각을 편안히 앉아 정성들여 다듬는 옛 모습 한번 되살려보면 아무리 편한 두뇌의 IT시대라 할지라도 그때의 손놀림 일등장인의 꿈이 아니었을까 한번쯤 높여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1-4. 줄넘기

- 1) 앞에는 운전수
뒤에는 손님

달려라 달려라
서울 역까지(2회 반복)

여기는 서울역 다 왔습니다.

- 2) 또 옥 툽
누구십니까?

손님입니다.
들어오세요.

문 따 주세요.
치얼 킅
하나, 둘, 셋, 넷.

줄넘기 풍경 연상 해 보십시오. 맨 발로 가락 맞춰 뛰며 드나들다 한 장면 끝나면 진급됩니다. 발목에서 조금씩 올려 앞가슴까지도 뛰어넘던 멋진 그 모습!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해 넘는 줄 모르도록 한마당 뛰던 그때 그 놀이 지금, 어딜 다 갔습니까?

1-5. 소꿉놀이(종교질)

각시 방에 불 켜라.
신랑 방에 불 켜라.

일명 五行草(푸른 잎, 빨간 줄기, 노란 꽃, 흰 뿌리, 검은 씨)라 하는 「쇠비름」을 뿌리채 뽑아 들고 노랫말에 맞춰 붉어질 때까지 몇 번이고 쓸어내리던 그때를 그려 봅니다. 그 꽃말은 건강과 행복.

우리 가정에 그 이상의 바람, 무엇 있겠습니까. 이렇듯 우리 선조님들은 어린 시절부터 또래끼리 어울림에

서 인격형성과 역할분담 활동에서 표현력 신장에 깊은 뜻을 두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놀이장소는 방안, 처마 밑, 대문 밖, 시냇가 돌밭이었고 그 도구는 쓰다버린 그릇조각, 조개껍데기, 조약돌 등 여기에 아기 인형(급하면 긴 풀줄기로 꼬아 만들기도 했음) 꼭 있겠습니다. 어제, 오늘, 모래에도 살 우리 아이들의 놀이 모습과 비교해 보심도 꽤 큰 의미부여가 충분하리라 보겠습니다. 물질만능시대, 편리한 기계, 기구가 혹 사람보다 우위에 놓일까 염려 또한 없지 않습니다.

1-6-1) 미역 감고 나서(몸 말리는 소리)

해야 해야 나오너라
뽕개로 물 떠 먹고
빨리 빨리 나오너라.

※뽕찌개 = 밥사발 뚜껑

여름날 냇가에 나와 벌거벗고 미역 감던 기억 되찾아 봅니다. 한참, 물장구치다 밖에 나와 젖은 몸 어서 말리려는 마음에서 입었던 옷 얼른 집어 들고 되는데로 흥얼거리며 물기를 말리던 그때 그 모습 되살려 봅니다. 지금은 아예 벌거벗고 미역 감는다는 것 상상 못할 일. 지난날 그 속엔 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바라볼 수도 있는 초롱한 눈망울! 여기에서 오늘을 보게 하였습니다.

1-6-2) 미역 감던 장면

해야! 해야!
어서 어서
나오너라
쟁쟁쟁쟁
말라라
어서 어서
나오너라
해야! 해야!

수영, 아니었습니다. 미역 감는다고 했습니다. 훌렁 벗고 알몸으로 풍덩 물에 듭니다. 세심한 아이들은 벗어놓은 옷가지 위에 큰 돌을 올려놓고 가벼운 운동 삼아 팔 다리를 움직이면서 천천히 물에 듭니다. 한동안 천진난만하게 물에 들어 어울려 놀다 좀 춥거나 시들해지면 물 밖으로 성큼 뛰어 나옵니다. 봄에 있는 물기를 손으로 훔쳐 쓸어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옷을 집어 들고 '해야 해야', 를 되는데로 부르면서 마르도록 합니다. 어떤 때는 해가 구름에 가리어 성급한 마음에 더욱 빠르게 부르면서 옷으로 몸을 말립니다. 그래도 시원치 않으면 마르거나 말거나 한바탕 주위를 맴 돌니다.

어느새 물기는 싹악 날아갔습니다. 이제는 상상도 못할 장면, 함부로 냇가에서 수영 목욕 어렵도 없습니다. 그때가 좋았습니다. 그립습니다.

1-7. 널뛰기

1) 맘 먹구(먹고) 뜸 먹구(먹고)

치매(치마)꼬리 발싸고
맘 먹구 뜸 먹구
뜸 물 받아 개 주구(주고)
올라라 담 밖
멀리멀리
보아라.

2) 쿵더쿵 쿵더쿵 널뛰는데

싸래기 받아서 닭 주고
왕겨를 받아서 개 주고
종 드래기 옆에 차고
하늘의 별 따러 가자.

나들이 제한받던 옛 여인들, 그 시절 명절 또는 좋은 겨울날, 안채 마당에서 「喜喜樂樂」한때를 갖게 됩니다. 힘차게 밟고 올라 바깥세상 잠깐 볼 수 있는 기회로 삼

았습니다. 자지러지는 소리가 울 밖을 넘습니다. 이젠 그 어울림의 역사가 추억으로 아니면 망각된 공허함을 느끼게 합니다. 아련한 그 장면 그 얼굴 老年 아닌 實年의 채 바퀴를 보람차게 돌리고 있지 않나 그러도 봅니다.

1-8. 부엉이

부엉 부엉
부웅 부웅

뭘 먹고 사니?

부흥 부흥
걱정 없다.

富興 富興
부엉 부웅.

겨울밤 깊어갑니다. 고요한 밤 그려 봅니다. 뒷산 가지에 앉아 토해내던 부엉이 소리 연상해봅니다. 눈 오기를 재촉하듯 밤은 더 조용해집니다. 바람도 없습니다. 약간 흔들림에도 어떤 예감을 갖게 합니다. 우리 선조님, 겨울이 깊어지면 먹고 사는 것 걱정되어 그 부엉이에게 물어보던 그 마음, 지금은 없습니다. 참 바빠들다 집에 들면 곧장 깊은 잠에 들 수 밖에 없습니다. IQ에서 EQ에서 SQ로 접어든 세상. 한번쯤 이웃을 생각하며 시간의 3단계를 펴 보는 것도 펴 의미 있는 순간이라 하겠습니다.

1-9-1) 자장가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자장 자장

새양귀야 굶지 마라

검둥개야 짓지 마라
우리 아기 잠 깰라

우리 아기 잠 들었다
자장 자장.

할머니 생각합니다. 지난날 아기 재움의 뭇은 할머니
였습니다. 한 지붕 밑에 3대가 오순도순 살아가는 것을
우리네는 장수하는 가정, 복 받은 가정으로 불리왔습니
다. 지금은 고도화 산업사회의 물결에 핵가족으로 보편
화 된지 꽤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할일 하는 세상 되었습니다. 진정 좋은 집(건물)
은 준비하되 즐거운(행복) 가정은 그리 흔하지 않다 해
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한번쯤 우리네 참다운 옛 情
생각하게 합니다.

1-9-2) 자장가

둥기 둥기 둥기야
입으나 벗으나 둥기야

하늘처럼 높이 되라
천하처럼 널리 되라.

우리네 옛 가정 풍경. 보통 3, 4대가 한 지붕 밑에서
사는 것을 장수하는 가정. 복 받은 가정으로 이웃들이
부러워하며 칭송해 왔습니다. 그때 귀여운 새 생명 아
기의 육아는 할머니 뭇이 되기도 했습니다. 칭얼댔라치
면 얼른 이듬하여 「뎨 꼭지, 빈 꼭지」를 가슴을 열고 물
리셨습니다.

아기는 한동안 빨다 물다 잠이 듭니다. 깨어나면 「둥
기 둥기」로 열리어 봅니다. 대를 잇는다는 소망 하나에
힘드신 줄도 모르셨습니다. 지금, 고도의 문명, 문화
물결이 아무리 새차다 해도 오직 情 하나 만큼은 그대
로 남았으면 합니다. 나를 키우시던 할머니! 그때 그 모

습 또렷해집니다. 그림습니다 어느덧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둥기 둥기 둥기야
돈을 주면 너를 사래(까)
금을 주면 너를 사래(까).

일가문에 화복동아
동네방네 인심배야
나라남께는 충신배야
둥기 둥기 둥기야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뒷집 아긴 못 두 잔다
자장 자장 원래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어서 어서 자거라
나는 빨래 나가서
일 한단다

자장 자장 자거라
자장 자장 자거라
우리 아기 잘도 잔다
빨리 빨리 자야지
에미(엄마) 나가서
일하지.

1-10. 아가 힘 세우기

어디 보자
아가야!
살려면

버둥

버둥

죽으려면

빠엣

빠뻗

여기 보자

아가야!

단단

끗끗.

걸음마 직전의 귀여운 아가를 번쩍 들어 세웁니다. 그리고 흔들어 봅니다. 아가는 재빠르게 다리 놀림을 합니다. 그렇게 몇 번이고 반복해 봅니다. 아가가 웃습니다. 무탈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기만을 은근히 함께 빌어 보던 우리네 「미풍양속」의 하나가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감히 남의 집 아이를 함부로 안아 본다는 것 그리 원하지 않는다는 현실로 맴돕니다. 시대는 변해가도 참모습 그대로 이어졌으면 하는 아쉬움 잠깐 느껴보게 합니다.

1-11. 웃음꽃

코 코 코

입.

코 코 코

귀.

코 코 코

눈.

귀여운 상대를 보며 한동안 한곳을 오래도록 빠르게 찍기를 반복하다가 됐다 싶으면 얼른 다른 곳을 외치며 전혀 또 다른 방향의 한곳을 찍습니다. 틀리면 벌칙으로 노래 부르기 아니면 어떤 동작표현을 요청합니다.

웃습니다. 근심걱정 있습니다. 그저 희희낙락 장면 연속뿐입니다. 지금 혹 가족이 함께 한 자리가 있다면 되살려 본다면 돈독한 가족사랑의 꽃이 되리라 봅니다.

1-12. 풍물소리(마당놀이 장면)

팽과리 “아주머이(아주머니) 아주머이

동네 아주머이

날 줌 보오

날 줌 보오

날 날 보오.“

날나리 “나는 몰라

나는 몰라.“

징 “주어라 주어

어서 어서

장구 “태엥 탕 탕

탕탕 태 엥.“

북 “푹푹

푸욱 푹 푹.“

우리네 놀이 속에도 해학이 있었습니다. 풍물에 대한 특징 기능에 걸맞는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즉 팽과리는 구성체와 선도적 역할 기능에서 활력과 기교 위치를 날나리(대평소)는 간드러진 멋스러움을 징은 무게 있는 중후한 맛을, 장구는 강력한 힘을 솟게 함은 북은 우직 하면서도 동참 강화 의식 유도에 충분하였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같은 소리와 가락이지만 생각에 따라 각 가지 느낌을 갖게 하였습니다. 거짓 없는 생활상의 나열이라 하겠습니다. 그 함께 어울림의 즐거움 속에서도 터놓고 직설적으로 하기 곤란한것들을 슬쩍 돌려 비유적으로 알 듯 말 듯한 표현을 통해 나름대로 가슴마다 걸려 앉히게 하면서 서로가 웃게 하는 여유의 공간을 마련하였다 하겠습니다.

1-13. 썩서방

썩렁 썩렁 썩서방
자네 집이 어딘가?

이산 저산 넘다가
덤불밑이 내 집일세.

썩렁 썩렁 썩서방
무얼 멀고 사느냐?

멀구(머루) 다래 따먹다
내 불○ 훔쳐 죽겠네.

※ 훔쳐 : 조심성이 적고 삼가지 않아 행동이 가볍다
는 뜻

숲 속 어디엔가 깊숙 숨어 앉아 내뿜는 그 소리! 사뭇
그 울림 골 안 차고 넘습니다. 지난날 선조님 먹고 사시
는 일 썩 걱정되어 혼잣말로 주고받으며 은근히 풍년농
사를 바라던 마음. 지금, 상황은 혹 다를지 몰라도 풍
요의 꿈만은 분명 같으리라 봅니다. 그 울림에서 어떤
의미를 나름대로 찾는다면 썩 보람되리라 믿습니다.

1-14. 삐꾸기

삐꾸 삐꾸 삐꾸아
어디서 왜 우니?

오빠 생각 절로 나
숲속에서 운단다.

삐꾸 삐꾸 삐꾸꾸
삐꾸꾸 삐꾸 삐꾸.

숲 속 나뭇가지에 앉아 댕해 놓는 삐꾸기 울음에서
전설 하나 퍼게 합니다. 멀리 떠난 親同氣 생각 함께 그

려 봅니다. 지나친 그리움은 恨으로 남는다가에 견디어
낸 기다림의 꿈! 따사로운 봄볕에서 찾는 것도 意味 있
다 하겠습니다.

1-15. 방아개비

아침 방아
짙어라
저녁 방아
짙어라

앞마당 꽃밭에서나 처마 밑에서나 아니면 동구 밖 풀
밭을 누비며 뛰다 서서 방아개비를 잡아드립니다. 뒷다리
를 포개들고 있노라면 꺼덕꺼덕 위아래로 빠르게도 느
리게도 쉬어하기를 반복하는 몸놀림을 봅니다. 농경문
화권에서 익히 대하던 디딜방아를 연상해서입니까? 디
딜방아 짙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노랫말을 이어 맞춰
웁어 봅니다. 재미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천진스럽습니다.

1-16. 잠자리

1) 앉은 자리 썩썩
앉은 자리 썩썩

붙잡으면 산다
잡히면 죽는다
멀리가면 죽는다
머리카락 빠진다

앉은 자리 썩썩
앉은 자리 썩썩.

2) 알나라 딸나라
알나라 딸나라.

늦여름 아니면 초가을 빨간 고추잠자리가 텃밭 화초에 고추 대에, 옥수수 대에 멀리도 가까이도 아닌 알맞은 거리에서 오르내리다 잠깐 앉습니다. 앉은 자리가 흔들거립니다. 그때 균형 잡으려 날았습니다. 앉은 몸짓 볼만합니다. 아이들은 살글살글 숨을 죽이고 가까이 갑니다. 붙잡았습니다. 손바닥을 넓게 펴고서 ‘알 나라 딸 나라.’를 몇 번이고 불러봅니다. 신기하게도 줄줄이 알을 낳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손자의 흥얼거림을 달래려는 마음으로 할머니도 그렇게 동작을 취합니다.

참 좋은 풍경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정겨운 「家族愛」가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해집니다. 그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이라 한다면 새삼 우리네 마음의 초점, 어디가 제일인지 다듬게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1-17. 연날리기

날아라
올라라
바람타고
하늘까지
올라라
날아라

어서 어서
올라라.

겨울날, 추운 줄도 모릅니다. 정성들여 정교히 제작된 연을 들고 여럿이 언덕 아니면 산등성이에 올라 연줄을 서서히 풀어줍니다. 바람타고 하늘로 오릅니다. 제주(?)도 가끔 보기도 합니다. 웃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되는데로 「가오리 연」을 달리며 날려 봅니다. 거기에 꿈도 실었습니다. 하늘을 봅니다. 푸르고 높음을 새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내가 있음도 터득하게 됩니다. 이런 바람직한 시간의 3단계 흐름에서 단순한 기

역이 아닌 애뜻한 추억으로 오늘에 서 봅니다. 새롭습니다. 맑습니다. 밝습니다.

1-18. 방귀놀이

뽕나무가
‘뽕옹’ 하고
방귀를 뀌니

대나무가
‘땃기 이눔’ 하고

참나무가
‘참아라’ 한다

해학은 근심걱정을 말끔히 씻어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님 그러하셨습니다. 주변의 하찮은 사물을 통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습시다. 솔직했습니다. 헛된 꾸밈 결코 없었습니다. 수수했습니다. 겉과 속이 그리 다르지 않았습시다. 믿기를 잘 하셨습니다.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 부여가 분명 됩니다. 이제는 중심에 서서 역사의식과 자존방법을 찾고자 거듭나는 계기가 확실히 되리라 봅니다.

1-19. 두거리 낚기

고기야! 고기야!
아가리
딱 딱 벌러라
김치국
들어간다 김치국

싸리가지 또는 그리 길지 않는 대나무에 낚시를 매어 달고 지렁이를 미끼로하여 바위아래 틈에 넣습니다. 얼른 낚습니다. 제쳐 올립니다. 마냥 기뻐합니다. 이때 고기를 떼어 마련된 줄에 끼우기 위해 흥겨워 부르던

일정한 곡조없는 노랫말이라 할까요? 이제는 그런 풍경 아예 없습니다. 그때 서산에 해 넘는 줄도 모르게 꽤 늦도록 낚시하던 그 장면 펍 낭만적이었습니다.

1-20. 川獵장면

자자 자자 데어라
씨억 씨억 굼어라
벅벅 박박 훑어라
우우 우우 몰아라

들었다
올려라
열씨구
많구나 많아
절씨구
좋구나 좋아

여름날 천렵풍경입니다. 5, 6명이 함께 나가 반두를 대고 쇠스랑으로 자갈바닥을 긁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장의 특유의 어획기구라 할 수 있는 ‘개송장’을 측석에서 생나무 가지로 제작합니다. 끌어당깁니다. 고기가 반두에 듭니다. 주로 뚜거리입니다. 냇가 적당한 곳에 차일을 칩니다. 아니면 다리 밑에 가마솥을 걸고 뚜거리탕을 끓입니다. 그릇에 담아 물속에 들어앉아 먹는 맛 일품입니다. 시원합니다. 또 대청봉 바라는 눈빛 더 초롱해집니다. 지금은 자연보호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양양인’의 품격을 생각해야겠기에 그 모습 추억으로 남겨야 되리라 봅니다.

1-21. 아기업고

내 강아지
귀염동아
잘도
잘도 크다

어여(어서)
쭈욱 쭈욱
니(너)
아범 구실 만큼만 해라
아범 만큼 되어라

내 강아지
귀염동아.

아기를 업고 바깥에 나왔습니다. 힘들지만 업은 손자 아이 궁둥이를 가볍게 두들기며 달래 봅니다. 아빠가 큰 지위에 있지는 않지만 이웃간에 호감가는 사람이기에 그렇게 아들자랑 손자자랑을 펴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 아닌 잘된 사람으로 잘 성장하기를 기원하는 소박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지나친 욕심에 한 생애에 적지 않게 중도하차하는 사례를 가끔 보았기에 펍 큰 의미를 느껴봅니다. 여기 평범한 생활경험 철학을 터득케 하는 어느 할머니의 참된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1-22. 재롱피우기, 따라하기

곤지 곤지
곤지
잼 잼
잼
돌이 돌이
돌이
까꿍
까꿍.

귀여운 아기를 바라봅니다. 먹지 않아도 살 것만 같은 분위기입니다. 어설피 손놀림 속에서도 웃음이 솟습니다. 마냥 좋기만 합니다. 소망을 봅니다. 대를 이었다는 안도감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쏟았습니

다. 오늘에 사는 우리가족, 가정의 개념의 폭이 알게 모르게 좁아졌습니다. ‘핵가족’이란 낱말을 만들어 냈습니다. 다시금 우리정신 문화의 축이라 할 수 있는 가족제도가 퇴색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함께 안고 싶습니다.

둥기 당기

당기 당

둥기 둥기

어디 보자

어여(어서) 웃어라

어여 어여

잘 잘 잘 커라.

어디 보자

금자동아

여기 보자

금자동아

우리 아기

옥동자야

장군이더

장군.

섰구나 섰어

우리 아가

띄었구나 띄었어

이리 이리

하나 둘

하나 둘

아이구

내 손자야!

1-23. 난다 긴다(동작 흘리기 놀이)

난다 긴다

긴다 난다

난다 난다

새가 난다

긴다 긴다

쥐가 긴다

이런 방법으로 같은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하기를 느리게, 빠르게를 여러차례 거듭하다가 혼미한 지경에 들었구나 할 때 어느 순간 갑작스레 소리와 동작이 헛갈리어 혹 틀린 경우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벌칙이 내려집니다. 이를테면 마당 한바퀴 돌고 오기, 코끼리 흉내 내기, 어떤 물건 찾아오기 등 좀 힘든 과제를 주어 찢찢 매는 꼴을 보며 서로 웃기도 놀리기도 하여 한때를 즐겁게 하는 놀이였습니다.

이제는 여럿의 어울림보다는 나홀로 어떤 전자기기 앞에 앉아 게임에 몰두 하는 장면이 보편화 되었습니다. 이웃이 없습니다. 고독합니다. 좀 불편, 불만이 있던 그때 그 장면 좀 짜증스러웠습니다. 지내놓고 보니 참된 사람의 마음을 알 듯 합니다.

1-24. 수탉소리

프득 프득

프드득

배꿍아 죽겠다

배꿍아 죽겠네

온종일

니(너) 맥이다(떡이다)

그만

이렇게 되었구나

꼬기요 꼬기요

꼬끼끼오

꼬옥 기기오.

지금처럼 집단적 전문적 사육환경이 아닌 농촌에서 닭을 많지 않게 마음대로 내놓고 치던 시절, 처마 밑이거나 마구간 등 적당한 곳에 햇대를 설치해 놓은 곳으로 해가 지면 먼저 오르는 닭의 뒤따라 차례차례 올라앉아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 무렵 가끔 초저녁에 뻐치는 수탉이 있기는 하지만 대개 한밤중에 날개 짓을 하고 나서 요란하게 밤을 찢는 찌렁찌렁하게 소리를 내 뽐어 맵니다. 시계가 그리 많지 않던 그 시절에 그 소리가 시각을 가늠하게 하는 척도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잠에 깬 주인 양반 자신의 일상과 비유하여 家長(?)끼리의 어떤 푸념의 상통성을 꼽지 않나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조상님들은 생활주변의 평범한 울림에서 생활 철학을 얻고 힘을 얻어 밝음이 올 아침을 어서 오기를 기다리지 않나 여겨봅니다.

1-25. 암탉소리

눈도

코도

없는거

하나 낳구나(낳았구나)

꼬꼬텍 꼬옥

꼬꼬텍

꼬꼬텍 꼬옥 꼬꼬

꼬옥.

미리 마련된 등지에 일상으로 알을 낳아 왔지만 늘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아마도 안전여부를 거듭 확인하는 듯 합니다. 그러다 서서히 등지에 올라왔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경쾌한 모습으로 날개 짓을 합니다. 그리고 요란하게 외쳐댁니다. 그야말로 ‘눈도 코도 없는 것 낳았다’의 알람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주인 또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뭘 그리 대단하다고 수선을 떠느냐의 반응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과소평가에서 읊조림이 아닌가합니다. 아무튼 닭의 입장이든 사람의 입장이든 그 대단한 광경은 이제는 옛 풍경으로 전설로 남을 날도 그리 머지않았다 생각하니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 어떤 진지함을 남겨야 할 이때가 아닌가 하는 교훈적 마음을 포개게 합니다.

1-26. 명태바리와 아낙네 소원

우리집 남편이

명태바리를 갔는데

바람아 광풍아

섯달 열흘만 불어라.

文字的 해석으로는 통하지 않는 노랫말이라 하겠습니다. 진정 바람은 事事歸港을 염원 하는 가족의 마음을 엿뵈아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도 海村에서는 出漁하는 이들에게 표현적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이 不文律로 남아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 시절 한겨울 變化無雙한 날씨에 돛단배에 소수의 인원이 승선하여 미끼 끼운 낚시로 조업한다는 그 자체가 생명을 담보한 현장이라 한번쯤 상상해보는다면 그 ‘狂風’은 ‘順風’을 바라는 마음이겠고 ‘섯달 열흘’ 즉 백일은 조업기간과도 관하지 않으리라 짐작하게 됩니다. 그 속에는 좋은 날씨와 만선의 꿈을 그리는 소박한 아낙네의 간절함, 애뜻함이 담긴 내면세계의 等價性을 한번쯤 새긴다면 가족사랑의 노랫말로 길이길이 남으리라 봅니다. 그러기에 일정한 旋律 이전에 場面따라 吐해 놓는 아리랑 또는 民謠

의 高低長短에 큰 의미부여, 결코 無理가 아니라 하겠습니까. 잠깐, 그 많던 명태 다 어디로 갔습니까? 기다려줍니다. 그립습니다.

1-27. 武運長久

우리 남편
국군 갔다

북진 한다
기분 좋다

진가 진가
진가 진가.

우리 근현대사에서 6.25는 영원해야 할 교훈. 수많은 젊은 남자(여자도)들이 불법납치를 감행한 인민군을 격퇴하는 마음으로 군에 입대합니다. 우리는 우방 16개국 참전용사와 함께 수복을 위해 북진하게 됩니다. 그때 아낙네들이 武運長久와 무사귀향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읊었던 구절입니다. 특히「진가」는 외래어「Zing」에서 온 것 아닌가 봅니다. 즉 사전적 의미는 핑핑, 씩씩 그리고 원기, 활기, 열의, 열정이라 하겠고, 군이 우리식 표현으로 맞추었다면 「진가, 진가」로 되지 않았나 합니다. 또 Zing은「씹」하는 소리를 내며 나아가게 하다」였다면 더욱 그렇게 믿어 봅니다. 진정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주체와 대상인 가정 속에서 튼튼한 국가안보 또한 기대할 수 있다하겠습니다. 꼭 다짐할 일. 평화는 지킬 수 있는 힘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오늘이어야 할 것입니다.

1-28. 無題(6.25전쟁중)

남이야
죽던 말던

통일만 되면
통일만 되면

한 다리 끼자
한 다리 끼자
끼자
끼자.

6.25사변. 국제적으로는 한국전쟁(Korea war). 우리는 6.25전쟁으로 정의하고 있겠습니다. 실로 3년 1개월 2일간 즉 1,128일의 전화 속에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의 응어리는 아직도 아물지도 풀리지도 않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 시절의 놀이장면의 한 토막으로서 어찌면 지극히 이기적 발상이라 할 수도 있겠으나 한번쯤 당시의 환경과 처지를 생각해 보면 이해되리라 보겠습니다. 내용인즉 내기를 걸고 소위 '꿀밤'을 주며 잠시 잠깐 웃음을 솟게 한 놀이라 하겠습니다. 시대성을 반영한 즉흥적 표현이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은 오직 위로와 평강을 강조한 것이라 보겠습니다. 아무튼 통일, 재건, 우의를 그 저변에 있게 한 건설적 꿈이 깃들게 한 놀이 문화라 평가해 보직 합니다.

1-29. 이(흡혈 기생충)

올해는
이 잡는 해

모두
속옷(팬티) 벗어라

이 잡는
손톱 끝에
피가 묻는다.

※ 한자로는 蝨(슬)이라 합니다.

웃지도, 함부로 들어 내놓고 말할수도 없는 지난 날

이야기. 특히 겨울이면 한번 입은 옷을 자주 갈아입지 못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피 빨아 먹는 기생충 ‘이’가 많았습니다. 몸이 가려워 긁적 긁적 하다 손에 어떤 것이 집힙니다. 꼭 쥐고 손톱에 놓고 재빠르게 엄지손가락끼리 압박시킵니다. ‘톡’ 소리가 납니다. 어떤 때는 옷을 벗어 숯불이 담긴 화로위에 두 사람이 팽팽하게 평면되게 잡아당기며 끌고루 찌임을 합니다. 잠시 후 그 뜨거움에 이 들은 기어가다 그만 떨어집니다. 이때 대화 한 토막 소개하면 ‘탁’ 소리가 나면 “내일 날씨가 청명하겠구나.” “또 ‘피’ 소리가 나면 “으응 날씨가 굿겠구나.” 일기예보 감으로 삼았습니다.

또 이웃 아낙네가 놀러오면 할머니는 그의 무릎에 누워 머릿니 잡기를 청합니다. 일상으로 예의상 그렇게 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시원하네 시원하네” 합니다. 그런 것이 먼 옛 이야기가 아니었고 바로 몇 십년 전 우리 주변의 이야기였습니다.

1-30. 돌림놀이

사치기 사치기
삿사바

사치기 사치기
삿사바

나무이름 대기 착착
감나무 착착
밤나무 착착.

맨 처음 한 아이가 주장이 되어 선창을 합니다. 이어 함께 손뼉 치며 무릎치고 하면서 ‘나무이름 착착’ 그 다음 아이는 ‘밤나무 착착’ 또 그다음 아이는 ‘감나무 착착’ 이런 방식으로 동글게 앉은 차례대로 이름을 냅니다. 만약 자기 차례가 왔는데 미처 이어가지 못한다면 벌칙이 내려집니다. 노래 부르기, 흥내 내기, 무얼

들고 오기 등 각가지 나름대로 멋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좀 둔한 아이의 활동에 때로는 웃습니다. 그야말로 방안이 떠들썩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학습의 장으로 조금도 손색없는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사치기를 「邪치기」로 표기해 놓고 의미를 찾고자 하니 이해가 됩니다. 즉 「요사스런 것 차내기」라면 옛 선조님들의 놀이를 통한 바른생활,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교훈적 생활철학의 깊은 뜻 알 듯 합니다.

오늘날 나만의 한정된 공간에서의 생활과 한번쯤 비교한다면 지난날 그 속에서는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바람직한 사회성 향상에 어떤 시사점을 갖고 있었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마-31. 이 빠진 아이

1) 혼니(헌이)는 니가(너가) 가지고
새이는 내가 갖는다.

2) 앞니 빠진 수명다리
뒷골로 가다가

호박 줄에 걸려서
“아이구 머이야!”
엎어져라.

※ 수명 = 물을 대거나 빼기위하여 길 득이나 방축 따위의 밑에 뚫어 놓은 물구멍

젓나가 뽀히던 기억 새롭습니다.

그때 제때 뽀지 않아 「뒤틀니박이」로 놀림 받던 아이들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겁먹은 손자를 달래가면서 가늘고 길긴 실로 이를 묶고 눈 깜빡 할 사이 뽀아 주시던 우리 할머니 그 때 그 모습 그립습니다. 윗니일 경우 바깥에 나가 지붕을 향해 발끝을 모아 바로서서 힘껏

던지게 하였습니다.

굴러 떨어지면 다시 서서 던지게 하였습니다. 아랫니 일 경우 부엌아궁이 앞에서 그런 요령으로 던져 넣게 하였습니다. 이 빠진 모습의 노출장면을 최소화하려고 입을 가리고 대화하던, 뛰 놀던 기억도 있겠습니다. 이런저런 「이같이」떠올리며 한 가족 간의 끈끈한 이야기 펴놓고 오순도순 행복의 꽃동산 가꾸 보는 일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의미부여로 충분하다하겠습니다.

마-32. 놀림 가락

1) 옛 장사(장수)

ㅃ 구멍은
찐덕 찐덕.

기름장사(장수)

ㅃ 구멍은
반질 반질.

명절을 앞둔 어느 겨울날. 달콤한 옛을 고우는 날은 온통 집안이 들썩, 아이들 세상이 됩니다. 부엌에 수없이 드나들며 부산을 땁니다. 미처 되지도 않은 옛물 끓는 가마솥에 몰래 수저로 살짝 떠 올려 입으로 '후후' 하며 꿀꺽 삼켜 봅니다. 맛도 몰랐습니다. 녹진한 옛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아끼느라 조금씩 뜯어 입에 넣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손바닥까지 혀로 핥습니다. 그래도 「찐덕찐덕」은 그대로입니다. 기름! 참기름, 들기름 그리고 깻묵 우리들의 좋은 간식거리로 충분했습니다. 윤기가 돕니다. 어찌다 손등에 묻은 그것은 오늘날의 Hand cream으로도 손색 없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약품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 기억 아니 그 추억 참 좋은 한 토막으로 남았습니다.

마-33. 언덕 오르는 화물차 보며

꺼져라 꺼져라
발 동 꺼져라

꺼진다 꺼진다
발 발 동
발 발 동 동

꺼졌다 꺼졌다
발 동 동
발 — .

그때 자동차가 오늘날 같이 Oil이나 Gass가 아닌 숯 즉 「木炭車」로 운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힘이 약했습니다. 고갯길을 오를라치면 자연히 속력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푹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오름을 보던 아이들은 그렇게 장난끼로 놀려 대기를 했습니다. 한 백년도 아닌 그 시절 풍경이었는데 한 오백년보다 더 아득한 옛날 이야기로 떠 오른 듯합니다. 그때는 공해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지금에 와 「지구온난화」「녹색운동」에 어떤 시사점 분명 없지 않다 하겠습니다.

마-34. 한글 익히기 놀이

가가 가다가
거거 거기서
고고 고기 잡아
구구 국을 끓여

나나 나도 먹고
너너 너도 먹고

다다 다 먹었다
더더 더 먹을래.

우리글 「한글」자랑스럽습니다. 동남아 어느 부족은 우리 한글로 익히고 있다 합니다. 한때 일제의 강점으로 잃었던 우리말, 우리글을 8.15해방으로 되찾아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가가 거겨 고교 구규 그기」를 줄줄 외운 다음 그 속에서 「고기」를 찾게 하였습니다. 흥미로웠습니다. 그때 그 기쁨 말로 다 표현 할 수 없겠습니다. 어린 시절 나는 할머니에게 한글을 익혔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되어 학교에서 우리글 공부에 남보다 펍 수월했습니다. 우리 선조님들 쉽게 빠르게 익히며 적응 활용하도록 생활 속에서 지체도 언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글, 우리말 가장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우뚝하기를 마음깊이 아로 새기는 일 펍 보람되리라 믿습니다.

마-35. 잠 깬 아이 보며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우리 북땡이(땡이)

땡구나 땡구나
두 눈
땡구나

어여 어여(어서 어서)
쑤욱 쑤욱
쑤욱 쑤욱 — .

우리는 전통적으로 한 지붕 아래 3, 4대가 어울려 살아가는 것을 가장 복 받고 長壽하는 가정으로 그리고 그 속에 1) 글 읽는 소리 2) 베 짜는 소리 3) 아기 울음 소리가 있기를 은근히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혹 귀여운 아기가 아프다면 할머니가 “어디보자.”하며 아픈 곳을 찾아 몇 번 이고 쓰다듬습니다. 금방 낫기라도 한 듯 아기의 칭얼거림이 ‘하하, 해해’ 가 울 밖 넘는 정겨움... 지금, 핵가족시대라 하더라도 우리 襄陽人! 성숙된 모습 품격있는 장막 곱게 꾸미려는 美德 변함없

으리라 믿습니다.

2. 調和律動

- 목록 일람 -

- 2-1. 골뱅이 놀이
- 2-2. 걸식패거리 놀이
- 2-3. 눈싸움
- 2-4. 닭싸움
- 2-5. 팔씨름
- 2-6. 말목씨름
- 2-7. 목침 빼앗기 놀이
- 2-8. 제기차기
- 2-9. 통차기
- 2-10. 짱치기
- 2-11. 팽이치기
- 2-12. 비석치기
- 2-13. 자치기
- 2-14. 진돌이
- 2-15. 붓물싸움놀이

우리들 생활속에 놀이를 통하여 흥을 돋우는 장면이 연출되면 의례히 흥얼거림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때 튀어나오는 언어는 환경에 맞춰 높은 소리, 낮은 소리, 긴 소리, 짧은 소리가 온통 어울려 장단이 되고 곡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노랫말 또한 상황에 따라 입 밖으로 튀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오래 지속되면 민요로서 또 놀이를 통하여 불리지게 되면 바로 유희요가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놀이에서는 그때 장면마다 흥얼거릴 수 있다 보았기에 일정한 노랫말을 적지 않고 놀이만 몇몇은 소개해 봅니다.

1) 골뱅이 놀이

마당이나 빈터 그리고 학교 운동장 한 구석에 골뱅이 모양으로 둥글게 선을 긋고 나서 두 패로 나뉘어 한패

는 바깥쪽에서 뱅글뱅글 달려 서로 근접거리에서 만나면 '가위, 바위, 보'로 승부를 가르고 지쳐 이어진 쪽에서 다음 아이가 달려 나와 꼭 같은 방법으로 최종지점에서 최후의 승부를 결정짓는 놀이입니다. 끝나면 몇 번이고 반복을 거듭하는 동안 해 지는 줄도 모르고 흠뻑 빠져 들게 됩니다. 재미있었습니다. 달리기도 '가위, 바위, 보'에 대한 요령도 터득하게 됩니다. 이때 손톱에 침을 헛바닥에서 문혀놓고 동그라미이면 바위, 찢어 모습은 가위, 민 바탕이면 보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가끔 들어맞기도 했습니다. 이상한 일로 여기면서도 계속 방법에 재미가 더욱 쏠쏠해졌던 기억도 있겠습니다.

2) 걸식패거리 놀이

정월보름날. 동네 청장년들이 한곳에 모입니다. 남녀가 역할을 바꾸는 모습으로 가장해서 모여 서서 바가지를 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덕담도 주면서 밥을 얻어 모읍니다. 주인택이 때로는 춤도 추게 합니다. 덩실덩실 춤도 춥니다. 모두가 한마음 됩니다. 이렇게 모아진 밥을 가지고 동네 발방앗간에서 방아다리에 걸터앉아 맨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무병하여진다는 믿음으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한때를 보냅니다. 또 동네 풍물, 오늘날의 사물놀이로 한바탕 떠나갈 듯 울려대며 곡조가 없어도 나름대로 덕담 섞어가며 놀아 봅니다. 아무튼 이웃간의 '화합의 한마당 잔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농경문화권에서 절대 필요한 장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3) 눈싸움

눈 내린 이튿날 앞 눈이나 너른 마당에 모이어 패를 갈라 주먹만한 크기의 눈 몽치로 서로 향하여 던집니다. 안 맞으려 이리저리 피하는 모습 어찌다 잡히면 눈에 눕혀 놓고 생눈을 옷 속에 집어 넣습니다. 눈에 묻기도 합니다. 야단법석입니다. 그 주위가 떠나갈 듯 요

란합니다. 이렇게 한참하고 나면 온몸이 온통 맘에 흠뻑 젖게 됩니다. 그래도 좋아합니다. 크게 웃습니다. 또 주위에 불도 피워 놓고 젖은 몸과 신발도 말려 봅니다. 정말 장관입니다. 지금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람 사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4) 닭싸움

두 사람 또는 여럿이 패를 나누어 양쪽에서 마주보며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를 올려 두손으로 올린 다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신호에 따라 깡충깡충 외다리 로 뛰어 상대의 앞에서 겨루기를 합니다. 맞대어 센 사람의 동작에 무너뜨리면 이기게 됩니다. 이때 넘어지지 않으려고 뒷걸음으로 피하기도 하고 또 그때 몰래 뒤에서 나타나 짹째 앞에서 밀어 제쳐 승부를 가리기도 합니다. 양쪽 응원단은 손뼉치며 고함내며 "잘한다" "저기다" "이겼다" 야단칩니다. 떠나갈 듯 그 주위가 온통 열기의 도가니가 됩니다.

5) 팔씨름

적당한 높이의 책상을 사이로 마주앉아 손뼉을 치고 나서 손바닥을 째억 벌리고 상대의 손과 손에 마주하며 힘차게 잡아 봅니다. 벌써 승패를 가늠하게 되는 기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신호가 떨어집니다. "젓 먹던 힘 다 내어라." "어서 어서" "잘 한다." "뒀다 뒀어. 이겼다." 좁은 공간에 함성이 넘쳐 납니다. 이긴 사람, 진 사람 가릴 것 없이 온 회중이 모두 힘 빠져 나른해진 그 친구들을 위해 조출한 술판을 벌려 놓습니다. 흥겹습니다. 모두가 하나 됩니다. 그 순간만큼은 근심도 걱정도 묻어둔 전다운 이웃간의 참 모습을 그려 놓습니다. 지금은 모일 공간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닌 세상 되었습니다.

6) 발목씨름

한발을 세우고 마주 앉습니다. 바지가랑이를 걷어 올

립니다. 맨살이 서로 닿게 합니다. 이때 서로 닿았을 때의 느낌이 어떤 사람은 매우 억센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통빠’라고도 합니다. 서로 닿게 되어도 어느 정도의 감을 잡게 됩니다. 맨살끼리 부딪쳐도 한쪽 약한 사람은 고통을 의식하게 되는데 양쪽 대결자 발 사이에 둥근 물체를 끼워 놓고 시합을 하게 되면 서로 버티던 힘에 아픈 줄도 모르다가 그 경기가 끝난 다음의 고통이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긴 자의 기쁨은 그야말로 그 기세가 충전할 정도입니다.

7) 목침 빼앗기 놀이

얼마 전 까지만 하더라도 사랑방 손님들의 왕래 많을 때에는 방안한 구석에 나무토막을 베개 대용으로 대패로 잘 다듬어 비치해 놓았습니다. 모여 놀다 눕고 싶으면 그 목침을 각기베개로 하여 눕기도 합니다. 이때 동네 사람들이 모이면 내기 형식 또는 무료함을 달래려는 마음에서 ‘목침 빼앗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손아귀가 억센 사람이 목침을 양끝에서 잡고 신호에 따라 잡아 당깁니다. 손아귀 힘이 여간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이기면 ‘장사’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 하나의 전통놀이로 가끔 민속경기 때나 볼 수 있는 옛 놀이의 하나로 남았다 해도 그리 지나친 말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동네청년들이 모여 놀던 공간인 방이 없었습니다. 그 방은 농한기에는 모여 새끼도 꼬며 오는 봄 영농준비에 필요한 용품을 품앗이 형식으로 오늘 이 맥 새끼를 다음날은 저 맥 새끼를 꼬아 주는 윤번제 이웃돕기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이때 그 맥에서 술상도 차려 내어와 즐거운 한때를 보내게 하였습니다.

8) 제기차기

엽전에 한지나 미농지를 말아서 구멍을 뚫어 그 구멍을 통하여 접었던 종이를 빼어 올립니다. 그리고 손으로 가늘게 찢거나 가위로 가늘게 말기 좋은 길이로 가

늘게 썰어서 수술이 되게 합니다. 놀이형태는 한발로 양발로 차 올려 숫자를 세거나 등글게 서서 떨어지지 않도록 돌림을 하거나 머리 위로 높이 올리기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 차올리는 모습이 볼만합니다. 발과 손이 같이 오르내린다든가 또 얼굴모습, 입 모양 등 신체 부위마다 각가지 형태로 보는 이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게 합니다.

9) 통차기

미리 준비해 온 빈 캔 통을 중앙지점에 놓고 술래를 정합니다. 그리고 차고 숨고 찾는 놀이판이 신나게 벌어집니다. 이때 술래는 가위, 바위, 보로 정합니다. 술래는 숨은 아이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꼭꼭 숨습니다. 그야말로 머리카락까지도 함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대단하게 숨습니다. 이때 숨은 아이들이 ‘약 올리기’가 시작되는데 “끼욱”, “끼욱” 이상소리를 냅니다. “○○찾았다.”하며 외치면서 재빨리 통을 밟습니다. 이때 찾긴 아이가 먼저 달려 나와 통을 차대면 다시 숨습니다. 이렇게 찾기, 숨기를 거듭하는 동안 꽤 많은 시간이 흐릅니다. 한참 하다 싫증나면 내일 다시 하기로 약속하면서 각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정말로 즉흥적으로 여러 마디의 외침으로 흥겨운 시간을 보내게 되던 아이들 놀이판이라 하겠습니다.

10) 짚치기

추운 겨울날 미리 물댄 논바닥에서 자기 키 만큼 큰 장대를 들고 나무로 곱게 깎은 둥근 물체로 또는 팽이로 양쪽 편으로 나뉘어 하던 놀이이라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미끄러운 얼음판 좀 쉽게 달릴 수 있도록 긴 새끼로 신을 신은 발을 묶습니다. 끼끌끼끌한 면으로 잘 넘어지지 않고 비교적 안심하게 달릴 수 있기에 안전관리에도 신경을 썼다 하겠습니다. 한참 뛰고 나면 온몸에 땀이 흐릅니다. 그래서 논가에 나뭇가지로 불도 지펴 놓고 즐거운 놀이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도 즉흥

적으로 고참치고 “잘한다.” “이렇게...” “여기 여기...” 등 왈자지껄 온통 주위가 떠나갈 듯 외침이 넘쳐 납니다. 지금은 시설 좋은 스케이트장, 스키장, 또 실내경기장에서 즐길 수 있기에 또 하나의 추억거리라 하겠습니까. 때로는 팽이치기도 그렇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11) 팽이치기

팽이는 나무 원추형으로 깎아 만들어서 예리한 그릇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돌리기 위한 팽이채를 그리 길지 않게 적당히 자기 체구에 맞게 만듭니다. 팽이를 팽이채 끈에다 감았다가 평평한 바닥에 횡 돌리며 쓰러지지 않도록 계속 쳐 댁니다. 그야말로 매를 맞을수록 ‘앵, 앵’ 소리가 더 요란합니다. 혼자 치기도 하지만 때로 팽이 하나 돌려놓고 둘이서 같이 번갈아 가며 치기도 합니다. “돌아라. 빙글 빙글” “때려라 어서 어서” “맞아야 잘 돈다 돌이”를 연방 외쳐 뵙니다. 웅크리고 가만히 있던 아이들 잠깐 사이 더워집니다. 때로는 걸 옷을 벗어 놓고 신나게 쳐댁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래도록 몰두하게 됩니다.

12) 비석치기

아이들 손바닥 크기만 한 납작한 돌 판을 가지고 일정한 선에서 가슴에 얹고서 전면에 적당한 거리에 세워 놓은 길쭉한 돌 앞에 가서 내려뜨립니다. 그때 바로 떨어져 세워 놓은 돌을 넘기는 놀이입니다. 이때 발자국을 옮길 때마다 매우 조심성을 보입니다. “하나, 둘, 셋” “맞아라.” 하며 가슴을 바로 세우면 갖고 왔던 돌이 흘러내리면서 세운 돌에 그 돌(비석)을 넘어뜨려봅니다. 정말 조심성 있게 조심조심 정성 다해 목표점과 내려놓는 모습 아주 진지합니다. 막 뛰어 노는 아이들에게 잠깐 침착성을 길러 보는 좋은 예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13) 자 치기

약 한자에서 한자 반 길이(30cm~45cm)의 막대와 ‘베뚜기’라 하는 한 뼘 크기의 성인의 엄지손가락 굵기의 약 15cm의 둥근 막대를 예리하게 양쪽 끝 빗가게 잘라 놓은 도구입니다. 그것을 막대로 치면 약간 뜹니다. 이때 빠른 동작으로 땅에 떨어 지기 전에칩니다. 그러면 바로 맞으면 꽤 멀리 날라 갑니다. 이렇게 3번 정도 반복한 다음 거리를 막대와 자로 재어 횡수를 누가 기록하였다가 그 수가 많음에서 승부를 가려냅니다. 어떤 때는 긴 못과 작은 못을 자치기 대응으로 즉 ‘못 자치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잘못해서 신체부위에 맞게 되면 심한 상처를 입게 되니 어른들은 위험한 놀이라 해서 제지할 때도 있었습니다.

14) 진 돌이

학교운동장 같은 너른 공간을 활동무대로 삼고 양편으로 나뉘어 행하여지던 단체놀이였습니다. 여기에 학교운동장을 예를 들어 보면 양쪽 골대를 각 진영의 본영으로 삼고 양쪽 선상에 횡대로 주욱 늘어서서 신호를 기다립니다. 신호가 나면 일제히 달리어 상대방의 아이를 잡거나 손으로 가볍게 건드리면 잡힌 것으로 간주되어 자기편 골대에 이어 세웁니다. 또 되살아나는 방법이 있는데 늘어서 있는 반대 진영에 우리 편 끝 아이에 접근하여 손만 마주치면 그 대열 모두가 회생하여 흐터지게 됩니다. 이렇기를 거듭하여 끝까지 붙잡거나 아니면 몇 명으로 제한한 인원내 다 달으면 승패가 결정됩니다. 이때 신호가 갖가지입니다. 몰래 상대를 피하는 방법 손짓으로 허점을 가리켜 살려는 활동이 아주 불만합니다. 함성이 대단합니다. 해지는 줄 모르도록 늦게까지 행해졌습니다. 요즘은 다른 과외활동으로 옛 얘기 옛 모습으로 남았습니다. “야! 이리 이리.” “야! 여기 여기.” “어! 온다 온다.” “피하라 속여라.”하며 상대방의 엄습을 피하면서 앞서기도 옆으로 몸을 틀기도 또 뒤로 물러서기를 거듭하면서 한 순간도 오직 상대방을

직임에만 온통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때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역습의 기회 또한 포착하려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되도록이면 인원 손실의 최소화를 위하여 약한 아이들은 중간에 세워놓고 보호하면서 상대의 공격에 방어와 역습의 기회를 포착하고자 번갈아 가면서 온통 떠들썩한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정말 해지는 줄도 모르도록 늦게까지 행하여졌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과외활동으로 또 하나의 옛이야기 옛 모습으로 남았다 하겠습니까.

15) 붓물 쌓기 놀이

여름날 폭 좁은 냇가 한곳을 택하여 위아래 쪽 편으로 나뉘어 붓дук 쌓기를 합니다. 위쪽에서는 물 모으는 독을 높게 쌓고 아래쪽에서는 갑작스럽게 터트려 놓은 윗물의 속도에도 끄떡없을 든든한 방어벽과 같은 독을 쌓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양편이 완공해 놓고 한사람의 신호에 의하여 윗쪽 붓дук을 허물어뜨립니다. 가두어 두었던 큰물이 힘차게 내려 흐릅니다. 이때 윗물이 세어 아래 독을 무너뜨리면 위쪽편이 이긴 것으로 반대로 흐른 물에 아무 탈 없이 건디어 내면서 오히려 흙탕물의 거품이 빙빙 돌다 위로 역으로 오르면 아래쪽이 승리한 것입니다. 이때 응원 대단합니다. “터져라. 터져라.” “터진다. 터진다. 야 ~” “올라라. 올라라.” “오른다. 오른다.” “어서 어서 거품아 ~” 대단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놀이는 농경문화권에서 수리사업의 역할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관심과 생활의 큰 몫이었음을 이르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영농, 기계화경영, 수리시설의 변천으로 천수답에 의존하던 시대가 아닌 세상에서 굳이 놀이와 생활의 연속성을 이야기 할 필요성 있는가를 반문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맨발로 뛰며 넘나들면서 독을 쌓고 던고 서서 다지기를 오래도록 하는 동안 자연히 심신의 강인성을 가져왔다면 지금은 기계조작의 간편함과 능숙한 놀림에 걸 맞는 한정된 공간에서 놀이를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대자연 속에서 천진스런 아이들의 모습 그리 흔히 볼 수 없음에 어떤 예감 결코 떨칠 수 없다 해도 그리 과언이 아닌 줄 압니다.

3. 아리랑

- 목록 일람 -

- 3-1 양양 아리랑
- 3-2 님 계신 산골
- 3-3 정거장 풍경
- 3-4 진달래꽃
- 3-5 외로움

- 1. 양양 아리랑

아리랑은 선조들의 정신과 끈질긴 생명력으로 우리 언어 속에 면면히 이어온 작자 미상의 노랫말이라 하겠습니다. 굳이 뜻을 밝힌다면

아(我) : 바로 참 나를 의미하고

리(理) : 알다, 다스리다, 통한다

랑(朗) : 즐겁다, 밝다. 라 하겠으며

한마디로 이어 표현한다면 ‘참 나를 아는 즐거움’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으로는 정선, 밀양, 진도 아리랑을 비롯 전국 100여 곳에서 불리지고 있으며 우리 도에도 강원도 아리랑, 정선, 평창, 영월, 삼척, 춘천, 강릉 그리고 양양 아리랑도 있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양양 아리랑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1. 설악산 중턱에 실안개 돌고

달녹집 문전에 건달이 돈다

아리 아리 아리 아리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 간다

2. 낙산의 인경은 현산을 올리고

우리네 정든 님 나를 올리네

아리 아리 아리 아리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 간다

- 작자 미상 -

3-2. 님 계신 산골

산천이 좋아서 뒤 돌아 보았나
 님 계신 곳이라서 뒤 돌아 보았지
 아리 아리 아리 아리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 작자 미상 -

자연과 인간과의 조화로움 속에서 은근히 그리움과 기다림을 함께 품은 듯 한 우리 양양 특유의 노랫말로 꼽고 싶습니다.

3-3. 정거장 풍경

간다 못간다 얼마나 울었던지
 정거장 대합실이 한강수 되었네
 아리 아리 아리 아리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 작자 미상 -

동해 북부선 종착역 양양! 1937. 12. 1 개통, 1950. 6. 25 사변으로 중단된 철도. 어서 복원되어 달리며 울리는 기적 소리 미리 듣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기념비적 표지석 세웠으면 하는 바람 간절해집니다.

3-4. 진달래꽃

분홍물 들었네 분홍물 들었네
 이 산 저 산 진달래 꽃에
 분홍물 들었네 분홍물 들었네
 아리 아리 아리 아리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 작자 미상 -

이 꽃 필 무렵이면 아직 봄을 느끼기엔 이른 듯 합니다. 다만 얼음장 녹이는 그 물소리, 벌판에 솟는 아지랑이! 「喜喜樂樂」 봄나들이 꿈 한 가슴 품게 합니다. 여기 또 하나 아리랑 노랫말 중 ‘우들도 못 가서 발병난다.’에

서 그 ‘우’은 동, 서, 남, 북 즉 조화·화합 그리고 완성의 기다림, 어울림이 담긴 선조님의 순수함을 바로 교훈적 연출의 한 장면이라 본다면 분명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 복된 영원성을 잉태하게 되는 바람직한 同一 視效果로 정신문화의 꽃, 자자손손 피우리라 믿어 봅니다.

3-5. 외로움

설악산 꼭대기에 제집(기와집)을 짓고
 가는 님 오는 님 잠이나 재울가
 아리 아리 아리 아리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 간다

깊고 깊은 산골을 설악산 꼭대기로 표현, 어느 누군가의 외로움이 묻어나는 내용 속에 그래도 지극히 기다림의 情 또한 느끼게 합니다

Ⅲ. 맺는 글

1. 結語

가. 우리고장 襄陽은 BC 6,000년경 형성된 오산리 선사문화 유적을 통하여 原襄陽人의 생활터전으로 자리매김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나. 남북으로 길게 뻗어 내린 백두대간에서 산과 들, 계곡, 하천 그리고 바다 ‘東海’를 앞에 두고 대대로 자자손손 이어온 天惠의 景觀을 손꼽아도 조금도 손색없는 곳이라 하겠고

다. 歷史的 時代的 背景 따라 수많은 人傑이 오가면서 편안한 안식처인 복된 가정, 생존을 보장받게 되는 활기찬 일터에서 오늘에 서서 내일을 내다보면서 고된 거듭되어 오는 날마다의 반복연습

과정에서 잠깐 쉬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는 즉 흥적 말, 바로요(謠)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하겠습니다.

라. 이런 노랫말들이 어느 지방엔들 없으리요만 우리 고장에도 특유의 '유희요'를 남기어 오늘에 이어 온 것이 되겠습니다. 즉 생활경험을 바탕으로 유희본능을 들어낸 표현동작 형태, 질서, 조직화 된 통일성을 통하여 일시적 쾌감을 뛰어넘어 순수한 앓을 내다보게 하는 소망있는 情겨운 영원성을 낳게 한 것 아닌가 보겠습니다.

마. 농경 문화권에서 오랜 세월동안 이웃과 같이 하는 동안 어울림, 두들림 등 갖가지 형태로「모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시 말해서 자연스러운 연습반복과정을 통하여 차기생활과 생존과정에 유익이 되고 수월성 또한 가져오게 하는 집단 또는 개별놀이 형태로 이어온 것에서 오늘에 사는 우리들에게 미래지향적 의미를 찾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였다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을「調和律動」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바. 변화무쌍한 고도의 산업사회에 진입한지 꽤 오래 되었다 할지라도 시간의 3단계 안에서 비좁고 답답한 한정된 특속이 아닌 또 하나의 목표, 목적에서 또 다른 삶의 源泉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안에 나라사랑, 이웃사랑, 가족사랑 그리고 미래지향적 순수성의 발로가 거기에 충분히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되겠습니다.

사.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하더라도 人心, 人情의 喜, 怒, 哀, 樂의 분명한 뿌리가 있음을 느끼게 하는 傳統社會를 찾게 하였습니다.

아. 오직 하나 참(眞)을 찾아 퇴색되지 않은 본질 속에서 순응하고 인내로 적응하는 가운데 올 곧은 꿈을 잉태하게 하는 계기 또한 느끼게 함이 바로 遊戲謠이요 그리고 調和律動이라 하겠습니다.

2. 提言

아직도 나서면 향토사회 구석구석 무한히 산재되어 있는 보배로운 각양각색의 노랫말들이 빛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하겠습니다.

이에 관심 있는 기관, 단체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로 나서서 지방정신 문화의 한 축이 되게 함에 서슴없는 동화되어 또 하나의 장한 맥을 이을 과제로 삼는 좋은 기회제공의 필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끝.

〈參考文獻〉

- | | |
|-------|-------------------------|
| 양양군 | 양주지 춘천 강원일본사 출판부 1999 |
| 양양군 | 양양군 통계연보 |
| 양양문화원 | 양양향토지 서울 대한공문사 1976 |
| 양양문화원 | 현산문화(제19호) 대양프리카 2008 |
| 양양문화원 | 현산문화(제20호) 대양프리카 2009 |
| | 국사백과사전 서울 동화문화사 1975 |
| 이재풍 | 襄陽詩歌의 背景과 敎訓의 詩文精選 2002 |

여성십경

〈편집실〉

1. 운문천석(雲門川石)

운문 냇가에 솟은 바위들의 아름다움

2. 오현연수(烏峴煙樹)

오현으로 퍼져 나가는 노을 물든 풍경

3. 화등낙조(花登落照)

진달래가 한 창일 때 낙조의 아름다움

4. 은담폭포(銀潭瀑布)

마을 서북방에 있는 은빛 나는 폭포물

5. 노봉명월(爐峰明月)

노봉 산위에 비치는 저녁달의 아름다움

6. 용소명탄(龍沼鳴灘)

용소 주변에 흐르는 물소리의 아름다움

7. 고적부운(高積浮雲)

높은 산 겹겹이 쌓인 구름의 아름다움

8. 내천유어(柰川遊魚)

맑은 물속에서 떼 지어 노는 물고기들

9. 산사모종(山寺暮鐘)

명주사에서 울려 퍼지는 저녁 종소리

10. 모암어적(帽巖漁笛)

모암에 앉아 낚시하며 듣는 피리소리

설악산의 팔기 (八奇)

〈편집실〉

天吼地動(천후지동) 巨巖動石(거암동석) 轉石動穴(전석동혈) 百斗毆穴(백두구혈)
垂直節理(수직절리) 有多盪暴(유다탕폭) 金剛有穴(금강유혈) 冬季遲雪(동계지설)

가. 天吼地動(천후지동) : 여름철 비가 많이 내릴 때면 으레 천둥이 일어나고 번갯불이 번쩍거리면 온통 하늘이 찢어지듯이 울부짖고, 땅이 갈라지는 듯 지축이 흔들린다. 그 소리의 신비와 울림의 기이함은 예부터 기이하게 생각해 왔다.

나. 巨巖動石(거암동석) : 큰 집채 같은 바위가 움직인다는 것은 신기로운 것이다. 거암괴석이 흔들거린다는 것은 돌 많고 바위 많은 설악산에서만 볼 수 있는 신기로운 것이다.

다. 轉石動穴(전석동혈) : 계조암 같이 바위와 바위가 서로 맞대어 하나의 자연굴을 만들었으니 이것 역시 기이하고 곳곳에 이런 자연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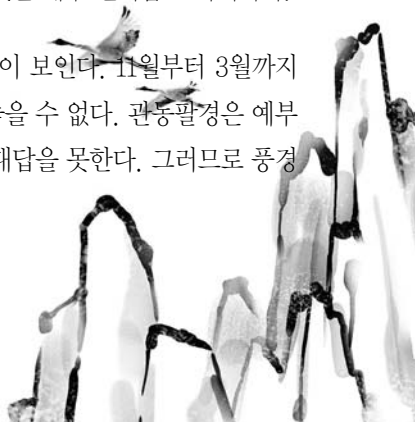
라. 百斗구穴(백두구혈) : 외가평에서 백담사로 가는 도중에 있는 구혈은 콩 백 말도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있으니 옛날 학이 날아간 자국이라 하지만 진기롭고 기이한 형태가 아닐 수 없다.

마. 垂直節理(수직절리) : 천불동 골짜기의 뽕죽뽕죽한 바위의 봉우리나 울산암 가리봉의 만물상 할 것 없이 모두 수직절리로 천태만상의 형상을 하고 있으니, 역시 신기한 조화다. 용의 치아같이 속은 용아장성의 암상은 수직작용에서 험준한 형태를 하니 신기하고도 기이한 자연이다.

바. 有多盪暴(유다탕폭) : 폭포가 있는 곳에서는 으레 늪[沼]이 있던지 못[淵]이 많다. 쏟아지는 물에 반석이 패어 큰 바위 확인된 것이 탕이다. 12선녀탕 같은 것이니, 이것 신기함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사. 金剛有穴(금강유혈) : 역시 비로봉의 금강굴 같은 것은 큰 석산에 큰 구멍이 있는 것은 매우 신기롭고 기이하다.

아. 冬季遲雪(동계지설) : 눈이 많이 내리면 쌓이고 쌓여 수십장이 되고 사시장창 눈이 보인다. 11월부터 3월까지 온 눈은 개골산에 백설이 만건곤하는 절경을 이룬다. 이것 역시 팔기 가운데 빼놓을 수 없다. 관동팔경은 예부터 전해 온다. 그러나 설악산의 특징을 한 마디로 설명하려면 말문이 막혀 얼른 대답을 못한다. 그러므로 풍경을 여덟 가지로 골라 표현한다.



설악산의 팔경 (八景)

龍飛昇天(용비승천) 雪嶽霧海(설악무해) 七色有紅(칠색유홍) 紅海黃葉(홍해황엽)
春滿擲蜀(춘만척축) 月夜仙峰(월야선봉) 滿山香薰(만산향훈) 開花雪景(개화설경)

가. 龍飛昇天(용비승천) : 산에 많은 폭포가 있다. 설악산은 폭포로 명성을 날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우리나라에 3대 폭포인 대승폭포, 쌍폭, 양폭포, 천당폭, 토왕폭포 등이 대표이다. 대승폭포를 바라보면 물줄기가 떨어지면 무지개가 서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용이 승천하는 것 같고, 황홀하며 물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늘로 올라가는 느낌을 갖게 한다.

나. 雪嶽霧海(설악무해) : 여름이 되면 봉우리마다 구름에 덮이고 안개에 쌓여 있는 신비로운 풍경은 참으로 장관이다. 대청봉은 구름 위에 솟아 있고, 골짜기란 골짜기는 안개 속에잠겨 설악은 안개의 바다로 변한다. 설악이 아니라 운악(雲嶽)이며, 수해이며, 무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하운다기봉(夏雲多壽峰)이라는 말은 설악산을 두고 말한 것이며, 산봉우리에 앉으면 날아가는 우의선인(羽衣仙人)이 된 것 같다. 설악산의 구름은 어떻게 보면 구름이 가다가 흩어지고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 봉우리에서 쉬다가 다시 흩어져 순간적으로 자취를 감추고 만다. 구름의 흐름은 실로 기이하며 측량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야말로 유수같은 행운(行雲)이며, 무해를 보지 않으면 실감이 나지 않는다. 구름이 산을 헤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산이 구름을 헤치고 남으로 갔다가 북으로 달리고, 모였다가 헤쳐지고 헤쳐졌다가 사라지는 착각이 드는데 구름의 조화는 팔경 가운데 제일이다.

다. 七色有紅(칠색유홍) : 폭포가 떨어지는 곳에는 아침과 저녁이면 햇빛에 반사되어 떨어지는 비말(飛沫)에는 영롱한 7색의 무지개가 된다. 선녀가 금시라도 타고 갈 수 있는 듯한 무지개다리가 놓여 지니 정말 진경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무지개가 하늘거리며 움직인다.

라. 紅海黃葉(홍해황엽) : 가을이 되면 온 산천이 단풍으로 붉게 물들고 나뭇가지마다 누런 잎에 쌓여 골짜기마다 마치 수놓은 병풍을 펼쳐 놓은 것 같은 광경은 정말 금수강산이다. 우수수 낙엽이 지고 붉게 몸을 단장하는 단풍나무는 팔경 가운데 진경이다.

마. 春滿擲蜀(춘만척축) : 봄에 진달래와 철쭉이 만발하여 산에 가득하다. 6월 초에 피는 진달래 철쭉은 상상할 수 없는 진경이다.

마. 月夜仙峰(월야선봉) : 가을이 와서 밤하늘이 밝을 때 둥근 달이 중천에 뜨면 기암괴봉의 모습이 난무하는 선녀처럼 보인다.

사. 滿山香薰(만산향훈) : 봄에 초목이 소생하면 그 향기가 산에 가득하여 바람이 불면 향긋한 냄새가 온 골짜기에 가득하다. 대청봉, 화채봉, 오색계곡에 군생하는 눈향나무 숲을 지나가면 숲향기가 코를 찌른다. 눈으로 보는 풍경도 좋거니와 코로 냄새를 맡는 것도 풍류의 하나이다.

아. 開花雪景(개화설경) : 겨울이 오면 산이 육화(六花)로 덮인다. 나무나 기암절벽에 눈이 쌓이면 온갖 형태의 눈꽃이 피어 절경을 지나 묘경을 이룬다.

팔기팔경은 양권일(楊權一)의 몇 분의 시인 묵객이 남긴 글 시화를 묶어 평한 것이다.

팔기에 지포(地圃)하는 송백을 넣어 구기(九奇)로 생각한다. 대청봉에는 송백이 땅에 기어가면서도 얽혀 퍼져 성장함이 기이하고 팔경에 진기한 짐승과 아름답고 고운 소리로 노래하는 금조(禽鳥)를 들 수 있다. 궁노루, 흰곰, 크낙새가 서식하는 곳이 설악이다. 진기한 동식물을 완상(玩賞)하는 것도 일경일 것이다. 그러므로 구경(九景)이라고도 할 수 있다. 기괴한 경치를 바라보면 볼수록 대자연의 심오한 조화작용을 알아낼 분이 몇이 있을지 그저 묘한 풍경에 삼매경에 빠져들어 자아를 잃고 선경에 있는 감회를 갖는다.





떡 류

〈편집실〉

떡은 가정의 대소사 및 잔칫날과 같은 의례행사에 빠지지 않는 주요한 음식이다.

떡이란, 곡식을 가루 내어 찌거나 삶거나 기름으로 지져서 만든 음식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떡의 어원은 옛말의 동사 찌다가 명사가 되어 찌기-떼기-떠기-떡으로 변화된 것으로 본래는 찌 것이라는 뜻이다. 떡을 일컫는 한자어로는 고(餠), 이(餌), 자(饘), 편(片, 餠), 병이(餅餌), 투(飴), 탁(飴)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병(餅)이라고 한다.

1) 감말랭이찰편

재료는 찹쌀 2Kg, 감말랭이 400g, 밤 20개, 서리태 200g, 대추 500g, 설탕 1컵, 소금 약간이다. 찹쌀은

물에 불린 후 곱게 갈고 감말랭이는 물에 씻어 닦아 놓는다. 밤은 껍질을 벗겨 반으로 잘라놓고 서리태는 물에 씻어 불려 놓고 대추는 씨를 빼고 적당한 크기로 썬다. 찹쌀가루에 감말랭이, 서리태, 밤, 대추, 설탕을 넣고 골고루 섞는다. 시루에 넣어 찌 낸다. <제보자 : 황현숙(여) : 현북면 잔교리>

2) 당귀잎떡

재료는 쌀2되, 팥 2컵, 삶은 당귀잎 8컵, 설탕 1컵, 소금 4큰술이다. 쌀은 8시간 불려서 소금을 넣고 빵아체에 내린 다음 설탕을 고루 섞어 넓은 그릇에 담고 삶은 팥과 당귀잎을 잘게 뜯어 섞어 시루에 밑을 깔고 넣어 떡을 안친다. 김이 오르고 젓가락으로 찢러보아 쌀가루



가 묻어나지 않으면 다 익은 것으로 떡을 그릇에 쏟아 한 김 나간 후 먹기 좋게 썬다. <제보자 : 이정희(여) : 서면 용천리>

3) 도토리칩송편

재료는 쌀가루 400g, 찹가루 150g, 도토리가루 150g, 소금·콩·팥·설탕·솔잎 약간이다. 쌀을 8시간 정도 물에 불려 팽아 가루로 만든다. 송편소로 검은 콩과 팥을 넣는데 검은 콩은 물에 4시간 정도 불린 후 물을 제거하고 소금을 넣어 고루 섞고 팥은 잠길 정도의 물을 붓고 한 번 끓어오르면 물을 버리고 다시 새 물을 부어 주어 푹 삶아지면 체에 걸러 앙금을 낸 후 설탕을 넣고 약한 불에서 볶아 식힌다. 쌀가루와 찹가루, 도토리가루를 고루 섞은 후 소금을 넣고 익반죽한다. 소를 넣고 송편을 빚은 후 식용유를 발라 붙지 않도록 하고 찜통에 솔잎을 깔고 찐다.

4) 메밀총떡

재료는 메밀가루 2Kg, 두부 1Kg, 잣 1Kg, 마늘 60g, 숙주 400g, 소금 100g, 고춧가루 40g, 깨소금?들기름 약간이다. 메밀을 갈아서 껍질을 벗긴 후 곱게 갈아서 체에 내린다. 두부는 꼭 짜서 잘게 으깨고 잣김치(배추김치)는 송송 썬다. 숙주나물은 살짝 데쳐서 잘게 썬다. 준비된 재료에 갖은 양념을 하여 버무린다. 메밀반죽은 기름을 두른 후 팬에 한 국자 떠 넣고 다른 재료를 넣어 말아서 지져낸다. <제보자 : 오옥연(여) : 양양읍 청곡2리>

5) 수수부꾸미

재료는 차수수 6컵, 팥 1컵, 소금 1작은술, 설탕 4큰술, 계피가루 2큰술, 식용유 약간이다. 차수수는 깨끗이 씻어 하루쯤 더운 물에 불린 후 가루를 만들어 놓고 팥은 껍질을 벗긴 후 충분히 찌낸다. 다

찌진 팥은 뜨거울 때 소금을 넣어 주걱으로 으깨어 어레미로 내린 다음 설탕, 계피가루를 넣고 소를 만든다. 차수수가루는 익반죽하여 둥글납작하게 만들어 팬에 모양을 만들어 지지면서 한 쪽이 익으면 뒤집어서 다른 쪽을 익히고 소를 한가운데 넣어 반을 접어 꼭꼭 눌러 붙인다.

6) 찰옥수수시루떡

재료는 찰옥수수 500g, 팥 250g, 설탕·소금 적당량이다. 찰옥수수를 물에 불려 곱게 뺑는다. 팥에 물을 붓고 끓인 후 일단 물을 버리고 다시 잠길 정도의 물을 부어 삶아 대충 뺑는다. 찜솥에 김이 오르면 팥을 깔고 찰옥수수가루를 1cm 두께로 깔고 다시 팥을 깬다. 뜸을 들이고 따뜻할 때 썰어 낸다. <제보자 : 정옥연(여) : 서면 영덕리>

7) 송천떡

송천 민속떡의 특징은 전통방식 그대로 직접 빚어 만드는 민속떡으로 맑은 공기와 순수한 시골 인심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특히 떡을 만드는 식재료는 청정 자연에서 자라는 쑥 등의 신선한 재료와 무공해 청정쌀을 이용하여 거의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전통방식 그대로 손으로 빚어 만들고 있다. 또한 이 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소를 만드는데 강낭콩과 팥을 삶은 다음 고운체에 걸러 물기 없이 꼭 짠 다음 팬에 소금, 설탕을 넣고 계속 저으면서 수분을 증발시켜 가루를 만들어 소를 넣는다. 모든 떡은 안반에 떡메로 쳐 만들어 맛있고 입안에서의 촉감이 매우 좋아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떡의 종류로는 송편, 개피떡, 절편, 백설기, 쑥설기, 팥시루떡, 인절미, 찹쌀모찌, 찰몽생이, 콩시루떡 뿐만 아니라 약식까지도 만들고 있다.

(1) 약식 : 재료는 찹쌀 5컵, 밤 10개, 대추 5개, 잣 2큰



술, 황설탕 1꺇컵, 참기름 5큰술, 계핏가루 1큰술, 간장 4큰술, 소금 ½큰술이다. 쌀을 5시간 이상 충분히 불린 후 시루에 찌고 충분히 찼 쌀에 볶은 설탕을 넣고 골고루 섞은 후 참기름, 간장, 소금, 계핏가루, 대추, 밤, 잣을 넣고 골고루 혼합하여 시루에 다시 찼다. 모양을 만들어 식혀 썬 후 담는다.

(2) 송편 : 재료는 멥쌀 5컵(멥쌀가루 10컵), 썩 60g, 소금 1큰술, 송편소(풋콩 300g, 소금 1작은술)이다. 멥쌀은 깨끗이 씻어 물에 5시간 정도 불린 후 소쿠리에 건져 소금을 넣고 가루로 빵아서 체에 내린다. 썩은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파랗게 데쳐서 곱게 다진다. 멥쌀가루를 2등분하여 하나는 그대로, 하나는 썩 다진 것을 넣어 절구에 찜어 끓는 물로 익반죽하여 오래 치대어 젖은 베보자기나 비닐 등을 덮어둔다. 풋콩은 껍질을 벗기고 소금을 약간 뿌려 간을 한다. 각각의 반죽을 한 입 크기로 떼어 둥글게 빚은 후 가운데에 우물을 파 소를 넣고 손자국 모양을 내어 빚는다. 빚은 송편을 솔잎을 깐 찜통에 서로 닿지 않게 엮고 김이 오르고 난 후 20~25분 정도 더 찼다. 다 익으면 불을 끄고 5분 정도 뜸을 들인 후 참기름을 발라낸다.

(3) 개피떡 : 재료는 멥쌀 5컵(멥쌀가루 10컵), 소금 1큰술, 썩 60g, 동부콩(거피) 150g, 설탕 1큰술이다. 멥쌀을 물에 12시간 정도 담갔다가 건진 다음 소금을 넣어 기계로 갈아 고운 가루를 만든 후 물을 뿌려 고루 섞어서 찜통에 찌고 파리가 일도록 기계로 다시 쳐서 이등분한다. 썩개피떡은 썩을 손질하여 끓는 소금물에 살짝 데쳐 행군 후 물기를 빼고 다져서 찼 멥쌀가루와 함께 초록색이 나도록 기계로 찼는다. 흰색 개피떡은 그대로 사용한다. 동부콩을 거피하여 소금과 설탕을 넣어 섞은 후 꼭꼭 주물러 소로 넣는다. 밀대로 민 떡을 넓게

펼친 후 꼭꼭 주물러 놓은 소를 넣고 지름 5.5cm 정도의 공기로 떡을 하나씩 떠낸다. <제보자 : 박희순(여, 63세) : 서면 송천리 1반>

(4) 백설기 : 재료는 멥쌀 10컵(멥쌀가루 20컵), 소금 1.5큰술, 꿀 1.5큰술, 설탕물(설탕 1컵, 물 ½컵)이다. 멥쌀을 깨끗이 씻어 물에 12시간 정도 담갔다가 건진 다음 소금을 넣고 빵아 체에 내려서 끓인 설탕물과 꿀을 넣어 솔솔 뿌리면서 손으로 고루 비빈 후 체에 다시 한 번 내린다. 시루에 시루밑을 깔고 쌀가루를 손으로 솔솔 뿌려 위를 고르고 편편하게 한 다음 베보자기를 물에 적셔 시루 위를 덮고 불에 올려 김이 오르면 약 20분 정도 푹 찼는다.

(5) 썩설기 : 재료는 멥쌀 10컵(멥쌀가루 20컵), 썩 100g, 소금 2큰술, 꿀 2큰술, 설탕물(설탕 1컵, 물 ½컵)이다. 멥쌀을 깨끗이 씻어 물에 12시간 정도 담갔다가 건진 다음 소금을 넣고 빵아 놓는다. 하나는 쌀가루를 고운체에 내려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 놓고 다른 하나는 썩을 삶은 다음 쌀가루와 섞어 같이 갈아 고운체에 내려서 고운 가루를 만든다. 체에 내린 각각의 가루에 끓인 설탕물과 꿀을 넣어 솔솔 뿌리면서 손으로 고루 비빈 후 체에 다시 한 번 내린다. 시루에 시루밑을 깔고 쌀가루를 손으로 솔솔 뿌려 위를 고르고 편편하게 한 다음 썩과 쌀가루를 혼합한 가루를 한 켠 올린 후 다시 켠쳐로 올려 베보자기를 물에 적셔 시루 위를 덮고 불에 올려 김이 오르면 약 20분 정도 푹 찼는다. 뜸이 잘 들었으면 도마에 얹어서 한 김 나간 후에 큼직하고 네모지게 썬다. <제보자 : 추계월(여, 57세) : 서면 송천리 2반>

(6) 팔시루떡(팔고물시루떡) : 재료는 멥쌀 10컵(멥쌀가루 20컵), 소금 2큰술, 고물(붉은 팔 4컵, 소금 1큰술)이다. 멥쌀을 깨끗이 씻어 물에 12시간 정도



담갔다가 건진 후, 소금을 넣고 빵아 체에 내려 고운 가루를 만든다. 팔에 물을 붓고 삶아 한소끔 끓으면 그 물을 버리고 다시 팔의 3배 정도의 찬물을 부어 팔이 무를 때까지 삶는다. 팔이 거의 익으면 물을 따라내고 낮은 불에서 뜸을 들인 후 소금을 넣고 절구에 대강 짤러 고물을 만든다. 시루에 시루밑을 깔고 팔고물을 뿌린 다음 멥쌀가루를 3~4cm 두께로 수평으로 편편하게 안치고 계속 팔고물과 멥쌀가루를 번갈아 켜켜로 안쳐 솥 위에 올린 후 밀가루로 반죽 한 시룻변을 붙인다. 배보자기에 물을 적셔 시루 위에 덮고 센 불에서 찌다가 김이 오르면 20분 정도 더 찌 낸다.

- (7) 인절미 : 재료는 찹쌀 10컵(찹쌀가루 20컵), 소금 2큰술, 물 ½컵, 고물 1(노란콩가루 1컵, 소금 ½작은술, 설탕 1큰술), 고물 2(거피 붉은 팔 1컵, 소금 ½작은술, 설탕 1큰술), 고물 3(거피 동부팔 1컵, 소금 ½작은술, 설탕 1큰술)이다. 찹쌀을 깨끗이

씻어 물에 13시간 이상 담갔다가 건진 다음 찜통에 안쳐서 거의 익을 무렵 소금물을 밥에 뿌려 다시 푹 찜다. 노란 콩가루와 거피 붉은 팔, 거피 동부팔에 소금과 설탕을 넣어 간을 맞춘다. 절구에 찢밥을 넣고 절구공이에 소금을 잘 적셔가며 으깨어지도록 골고루 친다. 안반에 고물가루를 깔고 쏟아 적당한 두께로 밀어 가로 3cm, 세로 5cm의 크기로 썰어 놓은 떡이 뜨거울 때 각색 고물을 묻혀낸다.

- (8) 미지떡 : 인절미에 고물을 묻히지 않은 떡을 말한다. <제보자 : 박경자(여, 58세) : 서면 송천리 1반>
(9) 찹쌀모찌 : 재료는 찹쌀 10컵, 소금 2큰술, 물 ½컵, 고물(거피 동부팔) 3컵, 모찌소(붉은 팔) 3컵이다. 인절미와 같이 찹쌀을 물에 불린 후 찌서 절구에 넣어 골고루 잘 쳐진 떡을 적당히 뜯어 삶은 팔을 소로 넣고 동부팔을 삶아 커피 내어 고물로 묻혀 만든다.

2011 문화학교 소개

〈편집실〉

문화학교 교실별 수료자

교 실 명	강 사	수 료 자
합 계	8 명	112명
한 시 교 실	이 종 우	김경일외 14명
서예교실(한문)	함 연 호	손인환외 18명
서예교실(한글)	김 광 희	심용구외 17명
한국화교실	정 영 택	김영미외 12명
민 요 교 실	이 희 선	김봉신외 10명
기 타 교 실	강 명 근	안경옥외 16명
사물놀이교실(초급)	임 효 건	박종량외 4명
사물놀이교실(중급)	임 희 영	손영애외 13명

모범상 수상자

교 실 명	성 명
한 시 교 실	안병대
서예교실(한문)	안병돈
서예교실(한글)	김재옥
한국화교실	정희정
민 요 교 실	박순용
기 타 교 실	장동연
사물놀이교실(초급)	민병예
사물놀이교실(중급)	김현주

2011년도 문화학교 학생 수상 및 공연내역

강좌명	수상 & 공연내역
한문서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서화대상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천작가: 손인환 * 운곡서예문인화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선 : 손인환, 신동섭 * 님의침묵서예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선 : 신동섭 - 입선 : 손인환, 박문희, 이희숙 * 대한민국단오서화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선 : 김경일 * 강원미술협회 서예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선 : 이희숙
한글서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회 대한민국 강릉단오서화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천작가자격획득 : 장우인 - 특선 : 장우인, 심용구, 김재욱, 전명자 - 입선 : 김재욱, 김영순, 이용우, 전명자 * 제9회 님의침묵 서예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선 : 심용구, 이용우, 이주옥, 이희숙, 노복현(흠림, 판본), 김재욱(흠림) - 입선 : 김영순, 정계은 * 제21회 전국공모 강원서예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상 : 장우인 - 특선 : 심용구, 노복현, 이주옥 - 입선 : 노복현, 김영순, 이용우, 이주옥, 김재욱(2점) * 제6회 대한민국 운곡서화문인화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선 : 장우인, 노복현, 이주옥, 임하택 - 입선 : 장우인, 심용구, 노복현, 김영순, 김영복, 이용우, 임하택 * 제14회 대한민국 한글서예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선 : 장우인, 노복현, 김영순, 이주옥

강좌명	수상 & 공연내역
사물놀이(중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3회 현산문화제 공연(남대전둔치) * 기로연 공연
한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9회 전국한시백일장(2011.8.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작 : 석정 황재권 - 장려상 : 계당 김경일, 엄백 김구래, 간산 김형래 * 시험풍아 제24호(20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작 : 계당 김경일 * 시험풍아 제25호(201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작 : 계당 김경일, 소해 박문희
민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회 동구리경향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려상 : 김봉신의 12명 * 제33회 현산문화제 공연 * 2011연어축제 공연 * 장터공연 4회 * 강원소리진흥회 창립기념공연 * 농민의 날 공연 * 기로연 공연 * 강원도 국악 경영대회 민요부문 최우수상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3회 현산문화제 공연
한국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단오서화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대상 : 김영미 * 강릉서화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선 : 흥선녀 * 의정부 회룡미술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선 : 서영석 - 입선 : 정희정, 안용선 * 고양시 행주미술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선: 박은예

우리 몸을 진짜 위하는 올바른 건강상식

〈편집실〉



■ 생수가 수돗물보다 낫다? No

“생수와 수돗물 간에는 단 한푼어치의 차이도 없다.” 미국 워싱턴 대학 수생 화학자인 지애머 박사의 말이다. 위생적인 측면에서 생수나 수돗물이나 둘 다 별 차이가 없으니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수돗물을 마시는 게 훨씬 경제적이지 않느냐는 것. 수돗물을 단 1분만 끓여도 박테리아와 기생충이 죽을 뿐만 아니라 생수에 들어 있지 않은 불소도 포함돼 있다. 불소는 충치를 막아주고 박테리아 살균작용도 한다.

■ 키스하면 감기가 전염된다? No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건강한 사람 16명에게 감기 걸린 사람들과 몇 분 동안 프렌치키스를 하도록 하는 실험을 해본 결과 그들 가운데 딱 한사람만 감기에 감염됐다고 한다. 진한 키스를 하는데도 감기가 옮지 않는 이유는 입 안의 점막 때문. 점막에서는 점액질이 꾸준하게 분비돼 항상 촉촉하게 습기를 유지해주는데, 바로 이 점막이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보호막이 되고 살균 역할도 한다는 것이다.

■ 손톱은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 Yes

손톱을 보면 우리 몸의 단백질, 비타민, 아연, 철, 염산 등의 섭취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다. 건강한 손톱은 부드럽고 분홍빛을 띠지만 색깔이 변하면 건강에 이상 신호. 두껍고 노란 손톱은 갑상선 이상이나 폐 질환. 하얗게 변하는 손톱은 간경변 등의 간 이상. 갈색이나 검은색의 띠가 나타나는 손톱은 피부암. 절반이 흰색으로 바뀐 손톱은 신장 이상. 떨어져 나가는 손톱은 갑상선 이상. 둥글게 말리는 손톱은 빈혈. 일부 표면이 함몰되는 손톱은 탈모나 건선.

■ 화를 잘 내면 빨리 죽는다? Yes

수시로 화를 내는 사람들은 55세 이전에 심장병에 걸릴 가능성이 3배, 심장 마비에 걸릴 가능성이 5배나 높다. 이렇게 급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화를 다스리는 법을 가르쳤더니 심장 상태가 훨씬 나아졌다고. 화를 내면 카테콜아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면서 혈관이 좁아진다는 것.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심장 질환에 걸리기 쉽고, 결국 단명을 자초하는 길이 된다.

■ 사람은 두뇌의 10%만 쓰다 죽는다? No

정상적인 사람의 두뇌는 100%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 MRI 화면에 나타난다. 치매 환자들의 두뇌를 MRI로 촬영해 보면 죽어 있는 부분이 눈에 띄는데, 이렇게 질병으로 죽어 있는 부위만 제외하고는 모두 사용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두뇌의 10%만 쓴다는 말을 미국의 광고업자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한다.

■ 흡연하면 딸 낳는다? Yes

부모가 모두 담배를 피우면 딸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과 덴마크의 과학자들이 갓난아기 약 1200명을 조사한 결과, 부모 모두 비흡연자일 경우 남녀 비율은 1.21:1로 남자 아이가 더 높았다. 반면에 부모가 모두 흡연하면 남녀 비율이 0.82:1로 여자 아이가 많았다. 이유는 남자 정자세포가 흡연에 취약하거나 담배 연기가 남자 태아의 자궁 착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 남성 염색체가 여성 염색체보다 담배 연기에 더 약하다는 분석도 있다. 어쨌든 이로 인해 남자가 환경에 약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이다.

■ 많이 잘수록 오래 산다? No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크립키 박사가 6년 동안 110만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하루에 6~7시간 수면을 취하는 사람이 가장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8시간 자는 사람은 이들보다 12%, 9시간 이상 자는 사람의 수명은 최고 40%나 더 짧았다. 잠을 9시간 이상 자는 사람은 대부분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결론. 수면은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단 한 시간을 자더라도 깊은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하다.

■ 어두운 곳에서 책을 읽으면 눈이 나빠진다? No

오랫동안 어두운 곳에서 책을 보면 머리가 아프지만 휴식을 취하면 눈 근육의 피로가 풀리면서 두통도 사라진다. 시력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는 의미. 그러나 전문가들은 책이나 TV를 가까이 보는 습관이 장기화되면 근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근시 환자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은 책과 TV, 컴퓨터의 영향이다. 산업화된 생활을 하기 전에는 근시율 0%에 가까웠던 호주 원주민들이 백인들과 섞여 살면서 근시 환자 비율이 급속도로 높아졌다.

■ 넥타이 조여 매면 녹내장에 걸리기 쉽다? Yes

넥타이를 꼭 조여 매면 눈으로 가는 피의 흐름이 차단되면서 눈의 압력이 높아진다. 넥타이를 단단히 맨 채 눈검사를 받으면 눈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도 바로 이 때문. 조여맨 넥타이가 목 정맥을 압박해 안압이 높아지는 것이다. 뉴욕의 한 의사가 영국 안과학 전문지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넥타이를 조여 매는 습관이 몇 년간 계속되면 녹내장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녹내장은 시력 상실을 초래하는 무서운 병으로 40대는 전체 인구의 3%, 70대는 5% 정도가 이 병의 환자다.

올바른 음주방법



우리나라의 술 문화는 모두 함께 모여서 먹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쉽게 친해지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진솔한 얘기도 나눌 수 있지만 술을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폭음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서로간의 음주량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건강을 배려하는 태도는 술도 즐기고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술을 매일 마시는 것은 몸에 좋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 먹어야 건강에 끼치는 해를 줄일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음주 수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는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 두 가지가 있는데 많은 부분은 선천적으로 결정되므로 사람마다 마실 수 있는 양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흔히 '주량' 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분수를 알아서 그 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음주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연시 회식이 겹치는 시기에 회식을 계획한다면 그 간격을 3일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간이라도 음주 후 정상으로 회복되는데는 72시간 정도가 소요되므로 간의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하려면 간을 쉬게 해 주는 기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프로야구에서 선발 투수가 4일 또는 5일마다 등판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살이 쪼다? 술을 많이 마시면 영양 결핍이 된다고 하는데...

회식이 잦은 우리나라 성인 남성에게는 술로 인한 비만이 많습니다. 대개 '술살' 이라고 부르는데 술과 함께 먹는 안주가 문제가 됩니다. 보통 성인 남성이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가 2,500kcal 정도인데 반해 저녁 회식에서 소주 1병과 삼겹살 1~2인분 그리고 이에 곁들인 냉면이나 된장찌개, 각종 반찬을 먹게 되면 놀랍게도 하루에 먹을 것을 저녁 한 끼에 모두 해결하게 됩니다. 여기에 2차까지 가서 폭탄주와 안주를 더 먹게 되면 3,500~4,000kcal 이상을 섭취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패턴이 일주일에 2~3회씩 계속된다면 남은 에너지가 지방으로 바뀌니 비만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술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어떤 관계인가요?

가장 중요한 점은 술을 마신 뒤 절대로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겠죠, 남성들은 대개 3잔 정도, 여성은 2잔 정도만 마셔도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05%에 이르게 되지만 사람마다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이 다르므로 술을 조금 마신 후라도 운전하면 괜찮을 것이라는 자만은 절대 금물입니다.

가끔 술을 마시는 사람의 경우 알코올 농도가 0.05%이면 행복감과 긴장 완화, 운전 능력의 감소가 생기기 시작하고 0.125~0.15%에서는 행동이 자제되지 않고 0.2~0.25% 수준에서는 기민성이 없어지고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0.5%이상이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의 술을 거부하는 '현명한 음주법'이 있을까요?

술자리에서는 주위 사람들과 천천히 대화를 나누면서 술을 즐기고 술을 따를 때는 잔을 가득 채우지 말고 반 정도만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술을 한번에 마시기보다는 여러 번에 나눠서 마시는 것이 좋으며 동료에게서 받은 잔도 바로 돌려주지 말고 천천히 주는 것이 자신과 상대방을 위한 길입니다.

어느 정도 술이 들어가 더 이상 마실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면 주변에 양해를 구하고 잠시 쉬어야 하며 더 이상 본인이 버티기 어려운 자리가 되었다면 옥신각신하는 것보다는 살짝 술자리를 빠져 나와 다음날 맑은 정신으로 양해를 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윗사람들도 아랫사람이 주는 술을 모두 받아 마셔야 위신이 선다는 생각을 버리고 술을 아주 조금씩 받거나 아예 받지 않는 것도 좋겠습니다.

처음에만 어렵지 막상 시작하면 아랫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음주 문화는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똑똑한 음주 십계명

1. 공복에 마시지 않는다.
2. 적당히 마신다.
3. 천천히 마신다.
4. 혼자 마시지 않는다.
5. 술은 섞어 마시지 않는다.
6. 해장술을 마시지 않는다.
7. 과음 후 사우나는 출입 금지.
8. 간을 쉬게 한다.
9. 술 마실 땐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10. 복용하는 약이 있을 때는 술을 조심한다.

올바른 양치법-포인트



올바른 양치 습관은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행여 이를 닦은 후에도 뭔가 찝찝함이 남는다면 이는 하는 것의 원인이 치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치질 방법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아이의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 아이 혼자 이를 닦게 하면 올바른 방법을 익히기 전이라 치아를 상하게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래의 일반적인 양치질 방법으로 자신의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방법은 보편적인 방법의 하나이며 별도의 치료나 특별한 경우의 관리를 위한 방법은 전문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적인 양치질 포인트

- 1) 하루 세 번 식후 3분 정도 양치질 시간을 가진다. _자기전 1번 더 닦아주면 더욱 좋다.
- 2) 잇몸에서부터 치아의 곁을 따라서 닦아낸다.(잇몸 마사지 효과)
- 3) 무리한 힘을 주어 박박 닦지 않는다.
- 4) 치아에 낀 찌꺼기를 없앤다는 기분으로 닦는다.
- 5) 어금니에서부터 먼저 닦는다.
- 6) 바깥쪽 면 - 안쪽 면 - 씹는 면
- 7) 입냄새가 있는 경우 혀바닥도 함께 닦아 준다.

2. 칫솔 고르기

- 1)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은 부드러운 모
- 2) 질환이 없는 경우 딱딱하지 않은 일반 모를 선택합니다.
- 3) 칫솔 머리부가 작은 것(어금니 2개 내지 3개 정도 덮을 수 있는 크기)

3. 소금을 사용할 때 주의 사항

소금의 굵은입자를 직접 사용하면 잇몸 또는 치아에 상처(마모)를 남기기 쉽습니다.

물에 녹여 입을 행구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올바른 양치법으로 이젠 잇몸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추운 겨울철 건강관리요령



집안에서의 건강관리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날씨가 점점 서늘해지면 집안에 창문을 여는 횟수는 점점 줄어 듭니다.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시키지 않는 경우 호흡기 질환이 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춥더라도 자주 환기를 시켜 주세요. 가습기를 가동해서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함으로써 호흡기 점막의 방어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온도나 습도가 너무 높으면 기저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집 먼지 진드기나 곰팡이 서식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실내온도는 대략 20~22℃, 습도는 40~60%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물론 공기청정기나 가습기의 청결한 관리는 기본입니다.

외출시 손을 자주 씻기

손은 많은 병원균을 옮기는 기관이기 때문에 환절기 뿐만 아니라 항상 외출 후에는 손을 씻어야 됩니다. 감기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충분한 숙면을 취하고 목욕 습관을 바르게 하세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피부 각질층이 건조해지고 피부의 수분함량이 적어지면서 피부 건조증도 생기기 쉽습니다. 목욕 후에는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도록 하세요. 피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습적 순면 제품의 옷을 입고, 피부를 긁는 손톱을 짧게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너무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할 경우 급격한 체온변화로 인해 감기가 올 수 있습니다. 꼭 미지근한 물로 목욕을 하세요.

평소 충분한 수분과 비타민 풍부한 계절과일 섭취

충분한 수분 섭취 및 비타민이 풍부한 계절과일을 잘 챙겨 먹는 것도 모든 질병으로부터 튼튼할 수 있는 비법중에 하나입니다. 주황색 감, 노란 배, 빨간 사과 등 제철과일을 챙겨서 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황색 과일의 특징은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비타민은C는 귤의 2배나 될 정도라고 합니다. 감에는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타닌 성분도 많아서 순환기계 환자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배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장을 자극하기 때문에 변비에 좋습니다. 기관지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능도 있어서 감기에 걸렸을 때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하루 20분 이상 운동하기

건강 유지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운동이죠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꾸준한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이 필수입니다.
아무리 일이 바쁜 직장인이라도 20~30분 이상 걷기만 하더라도 건강한 신체를 유지 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보조적으로 섭취하는 것도 부족한 성분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양양문화원 이사

이철규님 시인 등단



- 이름 : 이철규
- 생년월일 : 1943. 3. 21
- 주소 : 양양군 서면 수상(상평)40-4번지
- 연락처 : 011-379-5247
- 경력사항 :
 -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서면이장협의회 회장
 - 양양군 이장협의회 수석부회장 3년

〈亞世亞文藝 신인상 시상식〉

- 일시 : 2011.12.10(토)
- 장소 : 서초구민회관



3 · 8선

이철규

날푸른 동해, 붙끈 장엄한 아침 해가 뜬다
간만의 차 큰 서해, 그 붉은 노을 그리며
넘어가는 씨름*이 있다.

포성과 화약 냄새가 살육과 동족상쟁으로
형제자매 부모 잃은 통한,
추위와 굶주림에 헐벗은 처절한 시간대

통일은 절망의 지옥으로 떠나고
버려져 녹슨 휴전선에
그 많은 희생의 멍든 손,
소중한 자유 움켜쥐고 있네

정녕 망각하거나 몰라서는 안된다
한 줌의 흙으로 소멸된
선열들의 그 고귀한 넋을

*씨름 - 지도상의 날금 씨름



이철규 당선소감

침엽수는 10월 무렵이면 성장을 멈추고, 활엽수는 지상에 낙엽을 지우며 다가올 계절을 준비한다. 행복한 마음으로 흰 빛 세상을 기다리는 나무가 있다면, 지금 저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흰 눈이 내릴 겨울의 초입에서 가슴 벅찬 등단 소식을 전하여 듣고 조금은 믿어지질 않아 무척이나 가슴을 다독이며 망설였다. 나의 졸작에 놀랍고 감사하게도 푸른 하늘 높이 오색풍선으로 손을 보아서 날려주신 『아시아문예』 심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조금은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부단히 노력할 것을 스스로 다짐한다. 그 동안 지도와 격려해 주신 강원영동 숲 해설가협회 정선지 회장님을 비롯한 ‘은빛문학’의 회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묵묵히 마음으로 벌어주던 집사람과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준 나의 세 자녀에게도 참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차지에 전하고 싶은 심정이다. 비록 배운 것도 많지 못해서 글을 쓰고 싶은 욕구가 강하여 시작에 몰두하면서도, 되지도 않는 글을 쓰는 자신의 행위가 못내 부끄러웠다. 어느덧 세월이 덧없이 흘러 고회를 접하게 되니 더욱 조심스러움이 앞선다. 특히 해방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시련의 비참함, 굶주림에 어려웠던 시절에 시를 쓰고자 하는 그 소중한 마음가지미 내가 지극히 갈망하고 소유한 전 재산일지도 모르지만 작은 풀벌레소리, 바람과 나무의 속삭임, 찬이슬 머금은 새벽달이 주는 웃음, 아침바다의 고요함을 뭉치고 퍼서 맞추어보는 맑은 영혼을 지닌 그런 시인이 될 것을 차제에 약속한다. 다시 한 번 눈물겨운 오늘이 있기까지 힘 되어준 주위의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철규 : 강원도 양양군 상평 출생. 양양문화원 실버 학교 수료. (현)양양문화원 이사. 영동숲해설가협회 고문. 「은빛문학회」회원

안심암(安心庵)의 자심탑(慈心塔)

〈편집실〉

양양에서 서쪽으로 4km쯤 가면 안심암(安心庵)이라는 절이 있다. 옛날 이절에 효성이 지극한 자심(慈心)이라는 승려가 있었다. 자심은 불심이 두터워 중이 되었지만 속세에는 불교를 믿지 아니하는 부모가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어느 한 해인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가 홀로 남게 되었다. 효성스런 자심은 신심이 없는 어머니가 절에서 기거하기가 오히려 불편할 것 같아서 절로 오지 아니하겠다고는 것을 더 강제로 권할 수는 없었다. 그는 어머니 뜻대로 살게 하고 매일 한 번씩 찾아뵈우고 노모를 위로하는 것을 일과로 삼으면서 지냈다. 비록 출가한 중이라고는 하나 홀로 남아있는 어머니에게 효성을 다하니 어머니 생전에는 불편이 없이 지내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 멀지 않아 죽으면 신심이 없었던 어머니에게 극락에는 가지 못할 것을 생각하니 어머니 죽은 후의 고초가 걱정이 되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신심을 가지라고 더 권하지도 못할 바에야 어머니의 사후를 위해 어머니를 대신하여 불사(佛事)를 일으켜야겠다고 어머니 뉘의 탑을 하나 짓기로 했다. 그는 탑에 쓸 돌을 여러 곳에서 찾아 그 한 덩어리를 정성을 다하여 다듬었다. 망치와 정으로 돌을 다듬을 때에는 어머니의 극락행(極樂行)을 염(念)하면서 다듬었다. 돌을 다 다듬은 뒤에는 자기 어머니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수고를 끼쳐서는 어머니가 극락 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아 며칠이 걸리던 자기 힘으로 돌을 다듬고 돌을 끌어다가 탑을 쌓았다. 그러다 보니 자심(慈心)의 공력(功力)도 많이 들었고 시간도 많이 걸렸다. 동료 승려들이나 이웃사람들이 그의 성력(誠力)에 감동되어 협력하겠다고 자청해 오는 사람도 있었으나 그는 모두 사절하고 홀로 자기 힘으로만 이 탑을 쌓아갔다. 그러던 중 아직 탑이 완성되기 전에 어머니가 병상에 눕더니 얼마 안가 세상을 떠났다. 탑이 되기 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으니 자칫하면 어머니는 극락에 가지 못하였을 지도 모르겠다고 혼자 걱정을 하였다. 상사(喪事)를 마치고 절에 돌아와 보니 자심(慈心)이 완성하지 못했던 탑 윗부분이 깨끗이 완성되어 있었다. 자심이 이상히 여겨 동료들에게 물었더니 “자네 어머니가 죽어 염라대왕에게 심판을 받기 전에 탑이 다 완성되어야 그 탑의 공력으로 극락에 가겠기에 자네 어머니 병환이 위중하다는 소리를 듣고 남은 부분을 우리가 협력하여 다 마치고야.” 라고 한다. 한편 고맙기도 하려니와 한편으로는 남의 힘으로 마치게 되어 개운치 아니한 데가 있었지만 이미 다된 것이니 그대로 두고 날을 받아 탑제(塔祭)를 지내기로 했다. 그런데 탑제(塔祭) 바로 전날 밤 자심(慈心)의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 “나는 생전에 적선한 것도 없고 불심도 없어 지옥으로 갈 것이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불사를 일으켜 탑을 쌓은 은공으로 극락에 가게 되었다. 그러나 그 탑의 밑 부분은 염불하며 정성을 다하여 지어서 좋으나 웬일이지 위 부분은 염불도 정성도 없이 지어져 그것 때문에 극락에 못 가고 미결로 남아 있다. 그러니 네가 이왕 나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니 윗부분의 사연을 알아서 잘못되었거든

그 부분만 헐어 다시 쌓아 달라”라는 것이다. 자심은 느껴진 바가 있어 날이 밝은 뒤 탑에 올라가 자기가 쌓지 아니한 부분을 전부 헐어 버렸다. 이것을 본 동료나 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그대의 효성에 감동되어 괴로움을 무릅쓰고 그대 어머니 죽기 전에 완공하려고 밤을 새워가며 쌓은 탑이다. 그 탑을 헐어버린다는 것은 남의 성의를 무시한 처사다”라고 노기등등하여 대어 들었다.

자심은 어젯밤 꿈 이야기를 소상하게 말하고 양해를 구하여 겨우 납득을 시켰다. 그날부터 자심은 전과 같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아니하고 혼자 힘으로 열심히 염불을 하며 탑역사(塔役事)를 다 마치고 탑제(塔祭)날을 정하여 탑제(塔祭)를 올렸다.

탑제날 밤 꿈에 또 어머니가 나타났는데 비단옷을 입고 연꽃 속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연꽃을 타고 자심에게 오더니 “나는 그동안 극락도 지옥도 아닌 곳에서 미결인 체 고생하고 있었다. 이제 염라대왕이 불러 대왕 앞에 갔더니 대왕이 인과업보란 본인에 의한 것인데 그대는 생전 그대의 업보로는 당연히 지옥으로 갈 것이로되 아들의 효성과 신심이 하늘에 사무쳐 오늘 아들 덕에 극락으로 가게 되었다. 가게 된 연유나 알고 가되 그대는 극락에서 아들을 위하여 축원하라고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극락에 온 것은 네 덕이라고 알려주었다. 그 뒤부터 이 탑을 자심탑이라 부르게 되었고, 죽은 부모가 극락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꼭 이 탑에 와서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고 한다.

관찰사 오도일(觀察使 吳道一)과 소금장수

오도일(吳道一)은 조선조 숙종(1795~1720년)때의 문신으로, 자는 관지(觀智) 호는 서파(西波) 1673년 문과에 급제하여 강원도관찰사, 대제학(大提學), 한성부윤(漢城府尹), 병조판서(兵曹判書) 등을 역임하고, 문장이 뛰어난 분으로, 강원도 관찰사가 되어 영동지방을 순시 중 낙산사에 도착하여 빈일루 누각 위에 자리하고 그 수려한 경치에 도취되어 시를 지으려고, 시운(詩韻)을 읊조리고 있는데 누각 아래서 누군가 인기척을 하면서 말하기를 “관찰사 사도오(使道伍)의 글 잘한다는 말이 가소롭도다” 하면서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 오도일관찰사(吳道一觀察使)는 그래도 시운을 계속 읊조리니 역시 같은 곳에서 “관찰사 사도오(使道伍) 글 잘한다는 말이 가소롭기만 하도다.”하는 소리가 또 들려와 관찰사 오도일은 노하여 수행원을 시켜 어느 놈인지 찾아보도록 한즉 하인들 말이 어떤 소금장수 한 놈이 누각 밑에 소금지

개를 괴어놓고, 그 옆에서 돌을 베고 자고 있다는 말을 듣고, 다시 하인들을 시켜 그놈을 잡아 와 자기 앞에 앉혀놓고 말하기를 네놈이 어찌하여 감히 나를 비웃는다는 말인가 하니 소금장수 말하기를 “사도께서 밤이 새도록 글만 읊조리시고 잠자리에 들지 않으므로 그러한 말을 하였습니다.”하니 관찰사 오도일은 말하기를 “내가 운자를 부를 터이니 네가 시를 잘 지으면 상을 줄 것이고 못 지으면 곤장(棍杖)을 면치 못할 것이다.”하면서 일천천자(千字)를 운자로 부르니 소금장수는 곧이어 부르기를 “부천대해(浮天大海)는 동남북이요, 삽지기봉(插地奇峰)을 만 2천올시다.”하였다.

이것을 곧 해석하여 보면 “하늘에 띄워놓은 큰 바다는 동쪽, 남쪽, 북쪽 3면이 다 바다이고 땅에 꽂아 놓은 기특한 봉들은 금강산 1만2천봉이 뒤가 뒹니다”하니 관찰사 오도일은 “이렇게 멋진 글귀를 보고 놀라서 말하기를 자네는 과연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로다.” 성명은 무엇인가 하니 소금장수는 말하기를 “천한 사람이 성명을 세상에 전하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하필 사도오(使道伍)께서 물으시니 소인의 성명만이나마 오가(吳哥)라고 불러주십시오”하고 어딘가로 사라져버렸다는 것이다.

6·25한국전쟁 전까지 낙산사 경내에 이름이 난 빈일루에 오르면 낙산사 주위 사방의 경색을 관상조망하는 곳으로 특히 시선묵객(詩仙墨客)들의 글 짓는 곳으로 유명했다. 지금은 그 자취도 볼 수 없어 낙산사의 옛 정취를 잃은 것 같다.

구탄봉(九嘆峰)

함창봉에서 바로 서쪽으로 약 500m 거리로 마주보는 산이 구탄봉이다. 그런데 산명은 구탄봉이라고 하기까지에 물론 거기에 대한 유래도 있거니와 또 근사하게 전하여 내려오는 속설도 많은 것이다. 고려 시대에 지술가로 유명하던 도선(道詵)이 오대장맥(五垓長脈)을 타고 들어오다가 지진두인 남대천 머리에 다달아 동으로 흘러가다가 이 산세를 바라보니 반드시 여기에는 명당이 숨어 있을 것을 짐작하고 두루 더듬어 보았으나 찾을 길이 없었다. 그래서 탄식하고 내려와서는 다시 쳐다보고 또 올라가서는 탄식하기를 아홉 번이나 하였다. 그래서 구탄봉이라고 하였다한다. 또 향간에서 전하는 말에 의하면 양양의 안대산은 화산이었다. 그래서 이 화산을 앞에 놓은 양양에서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년 춘추 2회 식이 산상에서 무녀를 불러드려 굿놀이를 하였다. 그래서 굿터봉이라고도 전하고 있다. 이 봉을 수위로

열두봉우리가 중중(重重)히 양쪽으로 늘어섰으니 무산(巫山) 12봉이라고 말한다.

이 상봉에 올라서면 주위경관이 안하에 전개하였으며 삼삼(森森)한 수림들은 천년람을 이루고 있다. 백리장강의 남대천물은 굽이굽이 산밑을 안고 돌아 동해로 흘러가고 설악에서 쏟아지는 일진풍은 정방향으로 마주친다. 산이 체용도 좋거니와 골 이름도 기묘하니 이 산을 찬미하기에는 자연동명[곤우꼴]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임천리에 함평이씨라면 한참 구한국시대에 대소과(大小科)가 쏟아져서 사관(司官)으로나 문한(文翰)으로나 양양의 갑족이라고 하리만치 가성이 진진하였지만 또 그 이씨문중에서도 제일 문한이 좋고 가세가 부요(富饒)하여 만석꾼이라고 호칭하던 이교환씨의 조부 산소가 이 골안에 들어와서 미좌축향으로 앉게 되었다. 그때 묘지를 점택하던 지술가의 판정이 “천곤장익(天鵬張翼)” 하늘의 곤조가 나래를 펴고 앉은 형국이라고 크게 소리를 높였다. 그래서 이 지명을 곤우꼴이라고 불러온다.



지명유래

〈편집실〉

>>> 조산리(造山里)

고려말에는 마을명을 시상촌[柴桑村 : 조인벽이 양양조산리에 은거하여 그 마을 이름을 중국 동진(東晉)의 은일시인(隱逸詩人) 도연명(陶淵明)이 살던 중국 산서성 시상산을 모방하여 시상촌이라 하였다고 함]이라고도 하였는데 현재는 조산(造山)이다. 옛날 이 마을 산맥이 바닷가까지 이어져 있지 않고 중간이 끊어진 것을 보신 고승이 “그 산맥이 끊어져 있어 훌륭한 인재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앞날의 발전을 위하여 동리 주위에 산을 만들어야 한다며 1657년 선조들이 인력으로 만든 연고로 조산리라 칭하였다. 산을 인위적으로 만든 후 이 마을에서 훌륭한 유능한 선비, 학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한다. 지금도 조산초등학교 옆에는 산봉우리가 있는데 그 때 동네 사람들이 만든 산이다. 또한 이 마을 솔밭 속에는 고려시대부터 나라의 예법(禮法)에 따라 중사(中祀)로 제례를 올리는 신성한 동해신묘(東海神廟)가 있다. 조선 성종 21년(1490년)에 해군부대였던 대포영이 강릉 안인포에서 이곳 조산리로 옮겨왔으며, 수군사령관인 대포만호의 작전지휘하에 동해안을 방어하던 곳이다. 또한 『한국지명총람』에도 조산리는 성(城)안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의 ‘성안말’ 북쪽 문 뒤편 마을이란 의미의 ‘북문뒤’ 등의 지명이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도평에 대한 유래는 1667년에 산이 붕괴되어 섬이 되었던 것이 1867년에 대홍수로 인하여 매몰되어 현재는 전담으로 화하였으므로 과거의 섬을 추상하여 섬들[島坪]이라고도 한다.

>>> 황이리(黃耳里)

황이리는 일명 황룡마을이라 한다. 신라시대 수도승들의 요람이었던 선림원지와 미천골을 품에 안은 전형적 산촌마을인 황이리는 마을 형상이 귓불이 늘어진 누런 황룡이 머무는 형상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마을 한가운데로 남대천 지류인 1급 수질의 후천이 흐르고 있다. 또한 미천골

은 하늘과 산이 맞닿는 곳에서 쏟아지는 폭포수, 미천골자연휴양림, 불바라기약수터, 문단이암산, 얼음굴, 맑은 계곡 등 풍부한 관광자원인 자연환경에 곁들인 황이리의 특산물은 친환경우렁이농법으로 재배하는 친환경쌀과 인진쑥, 장뇌, 산채, 송이, 토종꿀, 표고버섯, 목공예품 그리고 산천어 등 희귀어가 맑은 후천에서 살고 있으며, 특히 여름이면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드는 원시림이 무성한 천혜의 아름다운 마을이다.

>>> 수여리(水餘里)

고려 명종(明宗)때부터 조선초기(1450년) 단양우씨(丹陽禹氏)의 우거지(寓居地)였다. 전염병으로 우씨일가(禹氏一家)가 몰락하고 두 가구만 남았을 무렵 이세문(李世門)이 단종폐위 계유정란(癸酉靖亂)시 삼척에 정배되었다가 1456년 함흥 본궁으로 양이(量移) 중 양양에 잠시 머물렀을 때 무협의 특별 몽유(蒙宥: 죄인이 농임을 입음)로 윤희(允許: 임금의 허가함)의 은혜를 입고, 이곳을 매입 정착한 곳이다. 당시 마을 안은 온통 굴참나무숲이던 것을 개간 정지하여 양양 제일의 명당 터라 불리는 흥덕말을 조성하고 보니 곳곳에 넓은 바위가 있어 그들 바위에서 글공부를 하였다하여 '문바우마을' [文巖鄉]이라고 하였다. 한편 마을 뒤는 남대천의 물굽이가 휘어 닿는 곳으로 물이 풍부하고 경치가 아름답고 물이 모자라는 때가 없다하여 '무내미' 라고 불렀으며 조선시대 관덕정이 있었다. 행정구역상 조선시대는 통칭 동면(東面)이라 하였으며, 1916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당뒤편, 바구매[博古馬], 버덕말, 솔말, 동넉말, 흥덕말, 서넉말, 넘말을 병합하여 수여리라 명하고 손양면에 편입되었다. 수여리에는 알곳은 일화가 전해진다. 조

선시대 1580년 송강 정철이 강원관찰사가 되어 동해안을 순행 중 이 마을 서낭재에 올라 서서 "이크! 여기 대리[大虯: 큰 교룡, 큰 뱀 없는 용] 한 마리 있군" 하면서 소금항아리로 살(煞)을 지르고 갔다한다.

>>> 둔전리(屯田里)

신라시대에 창건한 진전사가 있었는데 고려 때 둔전(屯田)이 있었으므로 둔전리라 칭하게 되었다. 조선조 때 강선면으로 있을 때에는 강선역의 토지인 둔전이 있었으므로 둔전동이라 불려오다가 1916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둔전리라 하여 강현면에 편입되었다. 여귀소는 진전사지 앞 하천에 수심이 10m 가량 되는 소가 있는데 진전사 창건 시 여승이 절을 지으려고 기도를 하는데 중에 현몽하기를 "이 소를 뛰어 건너서 갔다 오면 절을 짓도록 하여준다."고 하므로 여승이 이 소를 뛰어 건너가다가 익사하여 여귀소라고 한다.(둔전리 추종삼의 증언) 한편 옛날 아기를 업은 아낙이 이곳 물가 언덕에 뽕을 따러 갔다가 등에 아기를 업고 뽕 따기가 힘들어 아기를 내려 잠재우고 뽕을 따다가 젖을 먹이려고 아기를 찾으니 간곳이 없어 찾으니 그녀의 귀여운 아기는 잠에서 깨어나 엄마젖을 찾아 엉금엉금 기어가다가 그 깊은 소에 빠져 익사한 것을 발견하고 "아기야! 아기야!" 애타게 부르던 그 소리 오래오래 메아리치니 세인들이 "아기소"라 했다는 이야기가 구전되고 있다.(사교리 최돈수의 증언) 둔전리는 추계 추씨(秋溪 秋氏)의 세거지(世居地)로 탐거리 동남쪽에 추계 추씨 10대 기념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여지도서』양양부편에 의하면 영조 35년(1759년)에는 둔전동리로 불렸다.

2011 경로효친 문예작품 심사평

심사자	부문	심사내용
최은희 (양양중)	포스터	<p>경로효친 포스터는 학생들에게 있어 점차 잊혀져 가는 “효”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상상력과 창의성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p> <p>학생들의 작품은 주로 크레파스와 물감으로 표현하여 경험과 생각의 폭이 좁아 학생들의 꿈과 상상력이 단편적인 점이 아쉬움으로 남으면서 그러나 나름대로 “효”에 대해 진지한 자세가 보여 희망을 읽을 수 있었다.</p> <p>학생들의 작품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학생 스스로 찾아서 실험하고 재창조해 가도록 크레파스, 먹물, 물감 등 평면재료 외에도 색종이, 잡지, 나뭇잎, 사진등의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무한한 꿈과 상상력을 펼칠 수 있길 바란다.</p>
김영준 (양양여중)	시,산문	<p>‘경로 효친’이라는 한정된 주제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대체로 예년의 수준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었다. 상투적인 문체와 표현도 문제이지만, 경험 부족 등으로 새로움이 덜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다양한 경험, 그리고 더 많은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본다.</p> <p>이런 가운데 김예원(양양초)의 시는 간단하면서도 뛰어난 관찰력에서 우리나라는 진솔함과 진지함이 어린아이다운면서도 산뜻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고, 오종현(송포초)의 산문은 자신의 여러 경험을 잘 엮어내어 하나의 주제로 이끌어가는 데 매우 익숙한 솜씨를 지니고 있어 좋았다.</p> <p>이에 반해 중학생들의 산문에서는 뛰어난 작품을 찾기 어려웠고, 대체로 무난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p> <p>시각적인 놀이에 더 민감하다는 반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p>

2011년도 경로효친 문예작품 입상현황

학교별 등위	산문			시				포스터				
	최우수	우수	장려	최우수	우수	장려		최우수	우수	장려		
초등학교	송포초교 6학년 오중현	공수전 분교 5학년 탁한결	양양초교 6학년 김유진	한남초교 6학년 함주연	양양초교 4학년 김예원	공수전 분교 4학년 이하늘	인구초교 4학년 이규민	한남초교 5학년 김서정	양양초교 6학년 정재연	한남초교 6학년	남애초교 5학년 최무근	양양초교 6학년 방효주
		송포초교 6학년	양양초교 6학년 윤지영	조산초교 6학년 신호주		송포초교 1학년 신성진	남애초교 3학년 임수민	양양초교 6학년 변다정		조산초교 5학년 장밝음	송포초교 2학년 김현수	
		남애초교 5학년 최리애	인구초교 5학년 주시은	손양초교 6학년 전혜림		송포초교 4학년 박배균	손양초교 4학년 이진서	남애초교 4학년 오지훈		송포초교 6학년 고영현	송포초교 2학년 이승현	인구초교 6학년 김채연
중학교	현남중 1학년 전해인	현북중 1학년 박혜영	현남중 3학년 김지혜									

경로효친문예작품 초등부 시부문 최우수상

할머니

김예원(양양초등학교 4학년)

할머니가 아프데
할머니는 맨날 안 아프다면서 아프데요.

할아버지가 아프데요.
맨날 안 아프다면서 아프데요.

할머니 아프지마.
할아버지 아프지마!
할머니, 할아버지는 또 고개만 끄덕하네요.



경로효친문예작품 초등부 산문부문 최우수상

진정한 경로효친 - 마음 알아주기

오종현(송포초등학교 6학년)

6살 태운이가 성당 앞마당에서 놀다가 넘어져 조금 까져서 피가 났다. 모두가 퇴근한 후라 밴드를 붙여달라며 계속 울었다. 없다고하니 태운이는 그것 때문에 집에 가자고 떼를 쓰기 시작했다. 수녀님께서 오셔서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이는 순간부터 울음을 그치는 것이었다. 놀라웠다. 우는 태운이의 마음을 알아준 것이 태운이를 그치게 한 힘이라 생각했다. 경로효친은 부모님이나 노인들을 효도하는 것이다. 누구나 흔히 아는 자리 딱 차있는 지하철에서 노인이 앞에 있다면 자리를 양보하면 그것도 경로효친을 한 것이다. 그리고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 짐을 들어주는 것도 경로효친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경로효친을 할 기회는 많았지만 귀찮고 하기 싫어서 안한 적이 많다. 다음엔 기회가 있을 땐 기회를 버리지 말고 도와 드려야겠다.

나는 이번 여름방학 때 강릉 외할머니 댁에서 지냈다. 방학 때 부모님이 오랜 기간 여행을 떠나셨기 때문이다. 앞집에는 5학년인 고모네집 아이가 있어 늘 그 아이와 즐겁게 논다. 강릉에만 가면 나는 앞집 애랑 놀기 바쁘고, 내 동생은 텔레비전이 친구가 되어 리모컨을 들고 맨날 텔레비전을 끼고 산다. 신나게 놀다가 밥 먹을 때가 되면 집에 가서 밥 먹는다. 자기 전에는 할머니께서 이불을 깔아 주신다. 지금 생각하니 나는 아직 어리지만 할머니보다 힘이 더 좋고 몸을 더 잘 움직일 수 있는데도 할머니께서 해 주시는 대로 받기만하고 있었다. 허리가 구부러져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를 내가 부러먹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생각하니 많이 부끄럽다. 그래서 다음에 지내러 갔을 땐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볼 생각이다. 5학년 때 캐나다에 잠깐 동안 공부하러 간 적이 있다. 그때 친구를 사귄 적이 있다. 특히 '타일러' 라는 친구와 친하게 지냈는데 세 번 그 친구의 집에 초대되어서 가 본 적이 있었다. 캐나다 아이들은 우리나라처럼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문화는 아니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함께 살면서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렇다고 모두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할머니나 할아버지 말은 안 듣고 엄마, 아빠 말씀만 듣고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만만해서 반말하고 떼를 쓴 적이 여러 번 있다. 나도 언젠간 늙어서 손자가 생길 수 있다. 그럼 나도 지금처럼 떼쓰고 존댓말은 쓰지 않은 것처럼 나중에는 내가 한 것이 똑같이 돌아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께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존댓말 쓰고,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면서 토달지 않아야겠다. 진정한 경로효친은 어른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로효친문예작품 중등부 산문부문 최우수상

우리마을 콜서비스

전해인(현남중학교 1학년)

‘바로 어제도 나는 앞집 할머니의 부르심을 받고 밤10시 30분에 TV를 고치러 달려갔다.’ 우리 마을에는 유일하게 우리 집에만 아이들과 부부가 있다. 마을주민의 대부분의 78~80세를 훌쩍 넘기신 할머니, 할아버지이다. 공무원이신 엄마, 아빠는 아침 출근길에 할머니들을 인구까지 모셔드린다. 그리고 군청에서 보내오는 우편 같은 것도 할머니들은 눈이 안보이시기 때문에 우리 집으로 가져와 엄마에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신다. 또 돈을 찾아 드리는 것도 우리 엄마의 몫이고, 아빠 역시 이런 일을 자주 하신다. 덕분에 우리는 할머니들의 귀여움을 받는다. 하지만 늘 귀여움을 받는 건 아니다. 우리도 우리 마을에서 한 몫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요즘 아빠가 1년 동안 교육을 가시는 바람에, 언제나 TV가 고장 나면 달려가 고쳐드리고 동생은 할머니들의 심부름을 자주 한다.

그리고 할머니들께서는 물을 우리 집에서 담아가시는데 그 몫을 담아드리는 것도 해찬이의 몫이다. 지금도 나와 동생은 매번 부르면 달려가는 것이 늘 귀찮게만 느껴진다. TV를 보다가도, 컴퓨터를 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집에 전화가 오면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것이 “우리 부르는거 아냐”이다. 그만큼 우리 가족은 동네 콜서비스처럼 일하고 있다. 하루는 엄마께서 투정부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셨다. “해인아, 해찬아! 엄마도 너희들이 많이 힘든거 알아. 엄마도 가끔 짜증나고 화도 난단다. 그런데 꼭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란다. 너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길러주신 분들이 할머니들이서 그리고 우리에게 몸에 좋은 야채들도 많이 나눠 주신단다. 또 할머니들이 우리 아빠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신거나 다름 없는거야 그래서 아빠도 할머니들께 투정하나 안 부리고 도와드리는 것이란다. 또 할머니들도 매번 미안하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기쁘게 도와드리자” 이 말을 듣고 나니 우리가 이 시골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다 할머니들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늘 투정만 부린게 생각나 죄송한 마음도 들었다. 늘 고치러 갈때면 억지웃음을 지었던게 생각나서 나는 정말 나쁜 아이라고 생각했다. 앞으로는 할머니께 투정 부리지 않고 부르시면 바로바로 달려가는 ‘우리 동네 콜서비스’가 될 것이다. 나로 인해 기뻐하시는 할머니들의 모습이 생각난다. 앞으로도 꼭 이렇게 서로 도우며 살아가고 싶다. 할머니께 너무 죄송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경로효친문예작품 초등부 포스터부문 최우수상

사랑이 담긴 전화한통 주름진 얼굴에 활력 충전

변다정(양양초등학교 6학년)





2011 양양문화원 언론홍보현황

〈편집실〉

〈강원도민일보 2011년 1월 6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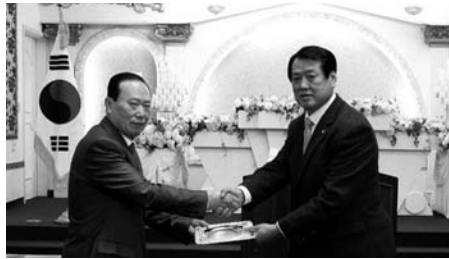
2011년 · 양양 신년인사회



양양문화원이 주관한 2011년도 신년 인사회가 5일 오전 낙산 비치호텔에서 송훈석 국회의원과 이진호 군수, 오세만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양양/최 훈

〈강원도민일보 2011년 3월 12일(토)〉

양양문화학교 개강



2011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개강식이 11일 오전 일출예식장에서 열렸다. 올 문화학교는 3월부터 12월 까지 총 9개월의 과정으로 한문서예, 한글서예, 사물놀이 등 총 200명을 모집한다. 양양/최 훈

〈설악 NEWS 2011년 3월 28일〉

양양문화원, 군 장병 초청 역사문화 탐방



"이번 교육을 통해 전역 후 다시 양양을 찾을 수 있도록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양양문화원(원장 양동창)이 지역 내 군인들을 초청해 실시하고 있는 '군 장병 역사문화교육' 이 장병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양문화원은 연말연시,명절 등에 위문하고 있는 육군 제1170야전공병단(단장 최용규) 장병들을 초청해 지난 7일과 24일 2회에 걸쳐 양양 역사, 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신병교육후 자대배치를 받아 양양에서 군생활의 첫발을 내딛는 장병 40여 명씩을 오산리선사유적지박물관, 낙산사, 양양양수발전소 에너지월드관 및 양양의 전통시장인 5일장을 견학 했다. 양양군 문화원은 올해 매월 1회 1170야공단 신병 3~4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지역 내 군부대들에 대해 신병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양동창 양양문화원장은 "어려운 재난이 닥칠 때 마다 군 장병들은 우리 지역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어 그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사하고 양양의 역사문화도 알리기 위해 이번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며 장경민 기자

38선 숭길 해설사 과정 개강 양양문화원, 노인 30명 24회 강의



양동창 양양문화원장이 38선 숭길 해설사 과정 개강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양양문화원(원장 양동창)이 지난달 30일 어르신 문화학교 '38선 숭길 해설사' 과정 개강식을 가졌다.

2011 어르신문화학교의 '38선 숭길 해설사' 과정은 양양군이 6.25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올해부터 추진하는 역사와 테마가 있는 38선길 조성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38선 숭길 해설사들은 양성과정을 마친 후 관광객을 대상으로 6.25전쟁과 38선길 등에 대한 다채로운 안내를 하게 된다.

이날 개강식에는 강원발전연구원 이영주 박사가 나와 '길에 대하여' 라는 강의를 진행했으며, 오는 11월까지 8개월간 30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24회 진행된다.

'38선 숭길 해설사' 과정은 앞으로 대학 교수, 참전용사 등이 강사로 나서 38선과 6.25전쟁, 국군의 날 제정 의미, 체험담, 당시 음식만들기, 현장답사 등 다채로운 강의를 하게 된다.

양동창 양양문화원장은 "38선 숭길 해설사 과정을 통해 어르신들을 해설사로 양성해 지역관광 자원발굴과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양 문치만세운동 재현 행사 올해로 3번째 진혼무 공연·독리선언문 낭독



3·1만세운동 92주년을 맞아 지난 14일 오전 양양 강현 물치에서 1919년 4월5일 강현면 물치장날에 분연히 일어났던 물치만세운동을 기념하는 재현행사가 열려 민족정기를 드높였다.

양양문화원(원장 양동창)이 주관하고 강릉보훈지청과 양양군이 후원한 제3회 물치만세운동 기념행사에는 이철수 강릉보훈지청장과 애국열사 유족, 고완수 양양군수 권한대행, 강현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당시 일제에 항거하며 만세운동에 동참했던 강현지역 주민들의 의기를 되새겼다.

물치만세운동 재현행사는 3·1운동 당시 강현면민들의 드높았던 독립운동을 기념해 지역주민과 후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애국정신을 드높이기 위해 올해 세 번째로 열렸으며, 이날 행사는 극단 굴령식의 물치만세운동 재연 연극 및 진혼무 공연과 독립선언문 낭독, 의사·열사의 활동내용 소개, 3·1절 노래 제창과 만세 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양동창 양양문화원장은 "90년전 이곳 강현면 물치리에서 물치 5일장을 기해 분연히 일어났던 많은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군민 모두가 화합해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동참하는 원동력으로 삼자"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현산문화제 16일전야제 시작으로 막 올라 예향과 충절의 고장, 선산문화와 현대문화가 공존하는 군민화합의 축제



예향과 충절의 고장인 양양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국민안과 풍농, 풍어를 기원하는 33회 현산문화제와 43회 군민체육대회가 6월16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18일까지 양양 남대천 둔치 일원에서 열린다.

양양군 현산문화제위원회(위원장 고용달)가 주최하고 양양문화원(원장 양동창)이 주관하는 제33회 현산문화제는 양양군의 송이축제와 연어 축제와 더불어 성공한 대표적인 지역 축제다.

16일 오후 4시 고치물제와 장군성황제를 시작으로 현산문화제의 시작을 알리는 전야제가 양양읍 일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오후 5시부터 양양고등학교 밴드, 영신농악행렬, 제등행렬 등 시가행진이 펼쳐지고 저녁 8시부터 남대천 둔치 특설무대에서 군민노래자랑과 초청가수 공연이 열린다.

이어 밤 9시50분 남대천 일원에서 1,000여명의 폭죽이 밤하늘로 쏘아 오르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초여름 밤하늘에 펼쳐진다.

특히 33회 현산문화제에서는 10년 동안 개최해오던 '양양 동구리 경창대회'가 '제1회 강원도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로 격상 개최된다.

〈강원도민일보 2011년 5월 23일(월)〉

현산문화제 노래자랑

양양군민의 한마당 축제인 제33회 현산문화제 군민노래자랑 신청이 오는 27일까지 양양문화원과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된다.

이번 대회에는 양양군내에 주소를 둔 주민과 대학생, 지역에 주둔하는 군인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예심은 6월 1일 오후 2시 양양군 문화복지회관 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양양/최 훈 choihoon@kado.net

설악 NEWS

현산문화제 16일 전야제 시작으로 막 올라



33회째를 맞는 양양의 현산문화제는 ▲신석기를 비롯한 선사 유적이 넓게 분포되어 발달한 선사문화 ▲ 선종의 발상지인 진전사, 관음성지인 낙산사를 중심으로 한 불교문화 ▲구한말 의병항쟁 및 기미독립만세 운동이 벌어졌던 구국항쟁지역으로서의 호국문화와 근대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현산문화제는 이러한 양양의 독창적이고 고유한 전통문화를 전승하는 축제로서 장군성황제, 신석기인 가장행렬, 양주방아사 행차, 대포 수군만호 행차, 기미만세운동 등이 재현되는 지역의 대표적 축제이다.

또 6월 18일까지 행사장인 남대천 둔치 일원에서는 영신곡,추성판소리,민요경창,수동골상여소리등 문화공연과 읍면농악경연, 어린이 농악경연, 청소년국악사물놀이경연, 한시백일장 등 전통문화 경연, 분재·공예품·시낭송회·취호대회·야생전시회·농 특산물 전시회·서예·꽃 누르미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펼쳐진다.

한편 6월17일~18일까지 양양군체육회가 주관하는 제43회 양양군민체육대회가 함께 열려 육상,축구,배구,족구,테니스,게이트볼,마라톤,수영 등 총 13개 종목에 1,000명의 선수가 출전, 읍면별 기량을 겨루게 된다.

송준현 기자

인터넷 NEWS <2011년 6월 15일>

강원도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 대회 양양 동구리 경창대회 도 단위로 격상



군에 따르면 예부터 지역 주민들의 희노애락을 표현하며 생활 속에서 오랜 세월 불리어져 오고 있는 전통소리를 발굴 및 보존 계승하기 위해 그동안 10년 동안 개최해오던 '양양 동구리 경창대회'를 올해 11회 대회를 맞이해 도 단위 대회로 격상시켜 제33회 현산문화제 기간 중에 '제1회 강원도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참가신청을 한 30여 팀이 농요, 노동요, 어요 등 전통민요 부문에 대해 오는 18일 오전 9시, 양양군 문화복지회관에서 경연을 벌일 예정이다. 5인의 전문심사위원의 심사결과 최우수상 1팀에는 1백만 원, 우수상 2팀에 80만 원씩, 장려상 5인에 50만 원씩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또한 양양문화원은 이날 국악인 왕서은, 강릉 오독떼기 농요팀, 속초 도문 매나리 농요팀, 강원소리진흥회를 초청해 지역의 특색 있는 농요와 전통 민요공연을 펼칠 예정이다.양동창 양양문화원장은 "우리 양양지역은 예부터 노동요, 의식요, 유희요 등 다양한 전통소리가 전해내려오고 있다"며 "올해 처음 강원도 동구리경창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양양은 물론 강원도 전통민요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현대를 만들어가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양양군은 양양지역의 대표 전통소리인 현남 수동골 상여소리, '강원 상복골 농요', '현남 입암 농요' 등 3가지에 대해 강원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양문화원 주관으로 매년 '전통민요교실'을 개설하는 등 지역의 전통소리 계승에 노력하고 있다.

강원일보 <2011년 9월 26일>

솔향 그윽한 산책로 따라 근심걱정 훌훌

모노골 산림욕장 산책로 주민 600여명 참여 성황 양양군 2011 범군민 산소길 걷기대회가 지난 24일 모노골 산림욕장 산책로에서 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 열렸다.



강원일보사 주최, 양양군·양양군생활체육회 후원으로 열린 이번 걷기대회는 양양군보건소 후원 제7회 가족과 함께 건강걷기 행사와 함께 열려 더욱 성황을 이뤘다.이날 행사에는 정상철 군수, 오세만 군의장, 양동창 양양문화원장, 김택철 김현수군의원, 이한덕 농협양양군지부장을 비롯 각종 단체에서 대거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 군청에서 출발해 모노골 악수터~소나무숲길(A코스)~내곡리까지 6km 구간의 모노골 산림욕장에서 넘치는 솔향을 맡으며 걸었다. 출발에 앞서 강원일보사와 양양보건소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생수와 스카프를 제공하고 모노골 산림욕장 인근에서 원주자를 위한 기념 가방도 전달했다. 특히 모노골 산림욕장은 총 4억원을 들여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공간 조성사업이 마무리돼 명실상부 시민들에게 각광받는 도심 속 휴식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정상철 군수는 "강원 산소길 3000리에 포함된 구룡령옛길, 문화유적답사길, 디모테오순례길 등 다양한 길을 양양의 브랜드로 관광자원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의 휴식공간인 모노골 산림욕장에서 자연과 나를 느끼고 그간 바쁜 일상을 잠시 잊고 건강을 되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했다.

강원일보 <2011년 11월 5일>

양양문화원 유적답사

양양문화원(원장·양동창)은 임원 및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학생들과 함께 4일 수원화성의 화성행궁, 서장대, 화서문, 장안문, 연무대 등지의 유적답사를 실시했다.



강원일보 <2011년 11월 17일>

양동창 양양문화원장 "6·25전쟁의 아픈 역사가 주는 교훈 잊지 말아야"

38선 솔길은 아픈 한반도의 역사를 되새기게 하는 길이다. 아픈 역사가 주는 교훈 역시 후손들이 잊지 말아야 할 무형의 유산이라는 면에서 이 산소(O2)길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38선은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이어지는 분단의 선이었다. 양양의 38선이 유명한 것은 이곳이



6·25전쟁 당시 국군이 가장 먼저 넘은 곳이기 때문이다. 이 돌파로, 38선 이북지역이었던 양양군 대부분과 속초시, 고성군이 전쟁 후에는 남한에 속하게 됐다. 1950년 10월 1일, 가장 먼저 38선을 넘은 부대는 국군 1군단 3사단 23연대였다. 돌파한 위치는 38선 솔길의 동쪽 끝인 현북면 잔교리다. 당시 미군은 38선 돌파를 꺼렸으나 이승만 전 대통령 의 돌파 북진 명령을 받은 정일권(전 국회의장) 당시 육군참모 총장이 이 명을 다시 23연대에 직접 내렸다. 정일권 참모총장은 미군의 반대를 막기 위해 하조대 인근의 북한군 고지인 해 아군의 피해가 크다는 이유를 내세웠다는 일화도 있다. 잔교리에서는 해마다 10월 1일이면 38선 돌파 기념행사가 열린다.

편집후기

어느덧 임진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에도 문화가족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한해를 잘 마무리하게 되어 감사 합니다.

2011년에도 양양문화원은 뜻깊은 한해를 마무리할 수 있어 행복 하였습니다.

2010년 양양군지를 발간한 경험을 토대로 양양문화원 향토사 연구소의 활동이 활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1년 한국문화원연합회 주최 제26회 향토문화공모전에 우리 향토사연구소 이종우 소장과 이규환 연구원이 공동으로 “오색령 지명에 관한 고찰”이란 제목으로 응모하여 논문부문 최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한바 있으며, 양양철광촌 민속 조사를 시작하여 개황을 조사하였고 내년에 지속적인 조사를 할 계획이며 또한 양양의 역사에 관하여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 임진년 새해에도 양양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소의 눈부신 발전이 기대가 됩니다.

문화가족 여러분!

새해에도 문화원에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임진년 새해 좋은 용꿈 많이 꾸시고 온 가족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첫눈이 폭설로 하얗게 뒤덮인 12월

교정을 마치면서....

襄陽文化院 事務局長 金 光 泳



현산문화 제23호

2011年 12月 28日 印刷

2011年 12月 28日 發行

발행인 : 양 동 창

편집인 : 김 광 영

발행처 : 襄陽文化院

인쇄처 : 대양프리컴

매년 6월, 남대천 둔치 및 행사장

峴山文化祭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양양의 문화축제!

주요행사내용

- 전야제
- 민속놀이
- 식전행사
- 경축문예행사
- 개막식
- 전시및부대행사
- 식후행사
- 양양군민체육대회



 현산문화제위원회